

나는 '주민참여 마을학교'에 참여한 적이 있다.

주민참여 마을학교 자료집



2001

도시연대 | 후원 : 서울특별시

도시연대는 자신이 살고 있는, 그리고 생활하고 있는 공간을 스스로 개선하고 가꾸어 나가는 마을만들기활동을 지원하고 사회화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만들기는 물리적인 환경 뿐 아니라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 지역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측면까지 포함합니다. 가령, 담장 허물기 운동에서부터 골목길 가꾸기, 환경장터, 주민음악회, 거리축제 등 그 내용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마을만들기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은 90년대 들어서입니다. 경제적 수준이 향상되고 정치적 민주화가 진행되는 동안 사회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시민의식이 성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시민의식은 주변의 생활공간과 사람들의 관계에도 관심을 기울이게 하였습니다. 그 동안 행정이 하는 일을 방관만 하였던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개선하고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된 것입니다.

도시연대는 <주민참여 마을학교>를 통해 이러한 일련의 마을만들기 활동을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알려 나감으로써 어느 지역에서나, 그리고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점을 널리 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내가 생활하고 있는 공간의 현실에 대해 눈을 뜨게 하고 직접 그 환경을 개선하고 지켜나가는 주체가 되어야 함을 전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 1마당(5월 29일): 도시, 주민참여, 마을만들기 / 김찬호 (연세대)

경제대국을 꿈꾸며 이 땅의 자연과 육신을 바쳤건만 우리에게 돌아 온 것은 온갖 부실덩어리의 건물들과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덩이뿐입니다. 내 주머니 돈으로 구할 수 있는 집을 찾아 이리저리 떠도는, 학교 간다고 나간 아이가 병원으로 실려가는, 서울의 한강을 무사히 건너 온 것을 다행으로 여겨야 하는 우리의 도시공간을 바로 잡을 수는 없을까요?

우리의 도시공간은 어떤 역사를 거치며 문제들을 잉태시켰는지, 그러한 문제들을 풀어갈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 봅니다.

■ 2마당(6월 5일): 우리나라의 마을만들기 활동 / 정석(시정개발연구원)

지역 주민이 스스로 자신의 생활공간을 개선해 나가는 마을만들기는 물리적인 환경 뿐 아니라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 지역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측면까지 포함합니다. 가령, 담장 허물기 운동에서부터 골목길 가꾸기, 환경장터, 주민음악회, 거리축제 등 그 내용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다양한 참여주체와 다양한 테마들을 중심으로 우리의 생활공간인 아파트 지역, 주택가 지역, 상가 지역, 그리고 넓게는 국외에서 진행된 사례들을 살펴보려 합니다.

■ 3마당(6월 15일): 마을만들기 활동 지역 탐방 I (대구 삼덕동 골목가꾸기 사례)

〈대구 삼덕동 골목가꾸기〉

1998년 담장 허물기로부터 시작하여 꾸러기 그림대회, 골목공원과 마을 미술관 조성 등의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웃과의 교류를 열어가는 장을 제공한 담장 허물기는 대구시 전역으로 퍼져 각 구청, 경북대학교 병원, 학교, 공원을 둘러싸고 있던 담까지도 무너뜨리게 했습니다. 현재 대구 삼덕동은 사라질 위기에 놓인 한옥 한 채를 보수하여 마을 국악관으로

활용할 계획을 하고 실현에 옮기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 YMCA 녹색가게와 가출 청소년 센터, 대구 녹색소비자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힘을 모아 삼덕동 마을만들기를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1998년부터 시작된 대구 삼덕동 지역의 마을만들기!! 그 시작과 현재를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 4마당(6월 22일): 마을만들기 활동 지역 탐방 Ⅱ (서울 사당동 마을마당 조성 사례, 동두천 페타이어를 이용한 놀이터 조성 사례)

〈서울 사당동 마을마당 조성〉

사당동에 조그만 공원이 조성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공원은 1997년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던 “마을마당 조성 사업”과 맞물려 진행되었습니다. 이 공원이 주목을 받은 이유는 서울시가 추진했던 사업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조성 과정에 있어 처음부터 끝까지 사당 3동의 주민들이 함께 했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가 계획했던 안을 주민들의 시각에서 판단하게 하고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맞게 수정하게 했고 동네 아이들의 그림과 손도장으로 공원을 아기자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순탄치 만은 않았습니다. 공원조성 자체를 반대하는 주민과 계획안에 대해 다른 의견을 제시한 주민과의 갈등을 풀어냈던 일, 처음에는 많은 이가 관심을 갖다가 차츰 시들해져 갔던 주민들, 그리고 관리에 대한 알찬 계획을 세워 놓고도 제대로 지켜 내지 못한 오류도 있었습니다. 주민참여로 진행된 공원 계획의 엄청난 성과와 그 이면에 남아있는 주민참여에 대한 어려운 숙제를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사당 3동 양지공원 조성에 직접 참여했던 주민을 만나 함께 확인 해 봅시다.

〈동두천 페타이어를 이용한 놀이터 조성〉

10년 전부터 인근의 페타이어를 이용해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터를 만든 할아버지 한 분이 동두천에 계십니다. 직접 만나 뵙고 어떻게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페타이어를 이용한 생각은 어떻게 해 냈는지, 그리고 10여 년 동안 어떻게 유지시켜 왔는지 들어 보려 합니다.

■ 5마당(6월 26일): 체험 프로그램, 내가 하는 마을만들기 / 최종덕(한국주민운동정보교육원)

마을만들기!! 막상 꿈을 꾸어보고 계획도 세워 보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면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러한 갈증을 조금이라도 풀어 보고자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하였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공간에는 어떤 특성과 문제가 있는 지, 그리고 그런 공간을 어떻게 개선하고 싶은 지를 함께 기획해 보고자 합니다.

주민참여 마을학교 1마당

도시, 주민참여, 마을만들기

〈강의〉

지역 문화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 디자인의 과제와 전략 - 김찬호 (연세대)

〈참가자와 함께〉

지역 문화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 디자인의 과제와 전략

김찬호(연세대)

1. 들어가는 글

2. 환경의 변화와 토탈 디자인의 대두

3. 지역 디자인의 맥락

- (1) 지역간 경쟁과 경제의 문화화
- (2) 생활 환경의 퇴화
- (3) 주민 생활의 개별화
- (4) 행정 시스템의 비대화

4. 커뮤니티 디자인의 과제

- (1) 사물 또는 과제들 사이의 관계의 디자인 : 전체적 목표상(vision)의 포착
- (2) 생활과 인공물 사이의 관계 : 하드웨어에 덧붙이는 생활양식의 선택
- (3) 사람들 사이의 관계의 디자인 : 주민 참여 시스템과 시민 문화의 구축

5. 커뮤니티 디자인의 전략

- (1) 주민과 행정 사이의 매개 영역 만들기
- (2) 경제-문화의 시너지 효과
- (3) 자주적인 환경 학습의 장(場)
- (4) 미디어로서의 이벤트
- (5) 교육과의 연계 가능성

6. 마무리

1. 들어가는 글

지방자치 실시 이후 각 지자체 마다 지역 개발이 활발하게 전개되어왔다. 중앙 정부에 의존하여 안주하고 있던 지방 정부들은 이제 스스로 다스리고 살림을 꾸려가지 않으면 도태되고 마는 상황을 맞아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고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지역 개발은 많은 경우 지나치게 경쟁적이고 근시안적으로 진행되어 자연환경과 생활세계를 무분별하게 파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동안 국가가 일방적으로 주도해 온 경제 성장 위주의 개발이 이번에는 각 지역 주도로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이 높아지면서 대안적인 개발양식과 삶의 질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어왔다. 그것은 '지역'이 갖는 의미를 되묻는 작업에서 출발하면서, 그 공간을 풍요롭고 윤택하게 가꾸어가기 위한 전략 그리고 그것을 실행할 주체 형성 방안을 모색하는 차원으로 나아간다. 거기에서는 특히 주민들의 참여와 발의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다. 지역을 활성화하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차원에서 시설을 정비하거나 매력적인 이미지를 창출하는 것을 넘어서, 궁극적으로 거기에 담기는 삶 그 자체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것이다. 최근 한국에서도 서서히 확산되고 있는 '마을 만들기'라는 개념은 바로 그러한 지향을 함축하고 있다.

다른 한편 디자인도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다. 지금까지 대상들을 개별적으로 포착하여 그 완결성을 추구하던 방식으로부터, 그 대상들 사이의 관계와 그것을 둘러싼 컨텍스트를 함께 생각하고 디자인하는 방식으로 개념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바로 그러한 패러다임의 전환과 지방화의 추세가 맞물리는 영역에서 커뮤니티 디자인이 성립한다. 그 과제는 사물과 사물의 관계, 사물과 생활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유기적이고 조화롭게 엮어내는 것이다. 그리고 그 목표는 경제의 성장과 생활 공간의 쾌적함을 양립시키는 지역을 건설하고, 시민들의 자유로운 교류에 의해 공공 문화를 배양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지역 디자인의 의미를 사회적 디자인(social design), 또는 시민적 디자인(civic design)이라는 맥락에서 파악하면서, 그 성격과 방향을 모색하려고 한다. 지역 또는 커뮤니티라는 개념은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것을 모두 포괄하면서 논의를 전개하기는 어렵다. 이 글에서는 주로 도시의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이야기를 풀어가고자 한다.

2. 환경의 변화와 토탈 디자인의 대두

근대 산업사회는 개인의 욕망을 일깨우고 그것을 충족시키는 물리적 조건들을 제공하면서 전개되어왔다. 그리고 그 역동적 변화의 기반은 과학기술과 시장 메카니즘이었다. 대량생산

및 대량소비 체제 속에서 생활 공간은 새로운 물건과 시설들로 그 모습을 달리해왔고, 그 인공 환경의 급속한 확장 속에서 삶의 효율과 편리함도 점차 증대되어 왔다. 그런데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그러한 생산 및 소비의 패턴은 궤도 수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다. 그 맥락은 다음의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눠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인공물과 자연 사이에서 생기는 모순, 즉 생태학적 한계이다. 한편으로는 자원이 고갈되어가고, 다른 한편으로는 쓰레기나 유독 가스 등의 오염물질이 포화 상태를 이루려는 속에서 지금까지의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유통, 대량폐기의 사이클은 그 누적되는 엔트로피 때문에 점점 유지되기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 시스템과 생활 양식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지금, 디자인 분야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디자인의 존재 양식이 '에코 디자인' (Eco-design)이라는 개념으로 논의되고 있다.

둘째, 인공물과 인공물 사이의 모순이다. 우후죽순 들어선 건물들이 하나 하나는 나름대로 단장되어 있는데 그것들이 어우러져 빚어내는 경관은 흉칙하다. 자동차는 늘어나는데 도로나 주차장이 부족하다. 휴대폰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의료 기기나 심장병 환자의 인공 판막에 부작용을 초래한다. 이처럼 여러 차원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기계적인 부작용은 앞으로 점점 심각해지리라고 예상된다. 우리의 일상 공간에 늘어나는 인공물들은 그 하나 하나에 고도의 테크놀로지가 집약되어 있다. 그 결과 그 기계들이 작동하면서 다른 기계에 예상하지 못한 영향을 끼쳐 안전 사고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셋째, 인공물과 생활 사이의 모순이다. 이것은 곧 한 사람의 인공물 사용이 다른 사람의 안락함을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이동의 편리함과 효율을 위해 고안된 도구인 자동차가 거주 공간의 조용한 분위기를 해치고 안전한 보행을 위협한다. 휴대폰은 개인과 개인의 소통망을 확장하는 장치인데, 그것을 공공공간에서 무분별하게 사용함으로써 타인에게 불쾌함을 자아낸다. 이동과 통신의 범위가 넓어져 사람들이 유목민처럼 한 공간에 얽매이지 않고 여기저기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되면서 타인을 배려하는 문화가 박약해진다. 새롭게 등장한 도구가 보편화 되는 속도는 매우 빠르는데 그것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지켜야 할 매너는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 개별적인 사물과 사유 공간을 위주로 그 하나 하나의 기능적, 미적 완결성을 추구하던 디자인은 한계에 이르렀다. 시장 상황에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는 가격에 의해 '합리적'으로 매개된다. 그리고 사용자(소비자)와 제품의 관계는 그가 기능적 필요나 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한에서 '합목적적'으로 맺어질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개별적 관계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의도하지 않은 결과' (unintended consequences)를 빚어낸다. 저마다 개인적으로 추구하는 합리성, 이익, 질서, 편리함, 아름다움 등이 사회적, 생태적 차원에서 집적되면서 비합리성, 불이익, 무질서, 불편함, 추함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한 부정적 결과들이

반갑습니다. 도시연대 <주민참여 마을학교>입니다.

이미 임계치를 넘어 그동안 산업화 과정에서 성취한 풍요로움과 윤택함을 거꾸로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들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파악하고 전체를 아우르면서 조정하는 원리를 다시금 세우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바로 여기에 토털 디자인의 과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토털 디자인은 그동안 'concept'에 초점을 맞추던 단계를 넘어 그것이 놓여 있는 'context'를 설정하고 이해하는데서 출발한다. 그래서 안으로 내용의 충실을 기하면서 바깥으로 타자(자연, 다른 사물, 사회, 삶)와의 관계까지 시야에 넣으면서 디자인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는 개체의 완성을 추구하던 디자인에서 장(場)의 조화를 추구하는 디자인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그러한 장(場)은 여러 상황과 차원에서 상정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지역 사회'는 그 한 가지 구체적인 대상이 된다. 지역 사회에는 세계를 구성하는 모든 시스템과 영역들이 연루되어 있고, 그들 사이의 상관 관계가 응축되어 있다. 따라서 지역은 토털 디자인의 가장 전형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지역 디자인이 기존의 디자인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디자이너와 사용자의 관계이다. 지금까지 디자인은 전문 지식과 기능을 가진 디자이너가 일단 완제품을 만들어 제공하면, 사용자는 그 쓰임새에 따라 사용하기만 하면 되었다. 그에 비해 지역 디자인에서는 사용자도 디자인의 주체로 상징된다. 애당초 디자인을 할 때부터 사용자들의 참여가 이뤄지고 디자인이 일단 이뤄진 다음에도 사용자들의 행위를 통해 디자인이 계속 변형되고 완성되어 가는 것이다. 따라서 연역적이고 일방적(단선적)이고 폐쇄적인 디자인에서, 연역-귀납적이고 상호작용적이며 개방적인 디자인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셈이다. 이러한 디자인 양식은 커뮤니티 디자인의 핵심으로서 주민참여의 논리이기도 하다.

3. 지역 디자인의 맥락

그렇다면 지역사회가 디자인의 대상으로 떠오른다는 어떠한 배경이 있는가? 여기에서는 4가지 정도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1) 지역간 경쟁과 경제의 문화화

산업사회는 국민국가를 단위로 사회를 통합하면서 출범하여 전개되어 왔다. 그 과정에서 전통적인 지역의 자율성은 해체되어 거대한 틀 속에 융해되었고, 개개인의 삶은 자신이 속한 국가의 경쟁력과 긴밀한 함수관계 속에 놓이게 되었다. 그런데 그러한 사회 경제적 범주가 지금 재편성되어가고 있다. 자본, 정보, 사람, 상품 등이 국경을 점점 자유롭게 넘나들게 되면서 국가가 장악하고 있던 통제력은 상대화되어간다.

그러한 상황에 맞물려 한편으로는 범지구적인 시스템이 형성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

사회의 위상이 다시 자리매김되고 있다. 광활하게 펼쳐지는 무대 속에서 국가는 후견인으로서의 힘을 점점 잃어가고 또한 지방자치체가 출범하여 지자체에 많은 권한이 이양되어 왔다. 따라서 각 지역은 자기 나름의 생존전략을 찾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그를 위해서 지역들은 저마다 자생적인 발전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실행하면서 자신의 입지를 마련해가야 한다.

그러한 경쟁에서 지역의 '이미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통신 네트워크가 확장되고 사람들의 행동반경이 넓어지면서 각 지역들은 광범위한 영역에서 비교되고 평가된다. 그리고 정보 소비 사회 속에서 다채로운 구경거리 (spectacle)들이 넘쳐나면서 서로가 치열한 경쟁을 한다. 그러한 상황에서 지역도 그 자체가 하나의 미디어 또는 기호(記號)로서 자기를 표출하고 승인받는 것이 매우 중요해진다. 특이한 도시 경관을 조성하여 눈길을 끌거나 흥미로운 특산품이나 이벤트로 사람들의 발길을 끌어들이려는 시도에서 나타나듯이 매력적인 이미지를 발신하는 것은 지역의 경쟁력에서 중요한 요체가 된다.

(2) 생활 환경의 퇴화

그런데 그러한 이미지 경쟁 속에서 지역의 일부 겉모습은 현란하게 바뀌어가는 것과 대조적으로 도시의 삶의 공간은 전반적으로 점점 열악해져가는 것이 현실이다. 우선 상하수도나 도로 등 인프라 그리고 사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물리적으로 자연스럽게 노후화된다. 거기에 인구가 밀집하고 교통량이 많아지면서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 조건을 확보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 이는 특히 고령화 사회로 나아가고 삶의 질이나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더욱 심각한 문제로 부각된다.

그런데 물리적인 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문화적인 측면에서 볼 때도 도시 환경은 삭막한 모습으로 변하고 있다. 상업주의와 관료주의는 도시 문화를 위축시키고 왜곡시키는 커다란 두 요인으로 보인다. 상업적인 이윤만을 추구하는 개발 속에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면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은 비좁아져 간다. 그나마 얼마 되지 않는 공공 공간은 경직된 관료 시스템에 의해 통제되고 있어서 자유로운 교류의 장이 되기가 어렵다.

이벤트를 보아도 천박한 시장의 논리와 획일적인 관(官)의 규율이 맞물려 시민 문화의 자연스러운 활력을 억압한다. 또한 거리의 경관을 보아도 마찬가지다. 한편으로는 난삽한 간판과 무분별하게 틀어대는 스피커음들처럼 저마다 자기 하나만의 단기적인 상리(商利)를 위해 전체의 어우러짐을 파괴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관공서 건물이나 공공 시설물 디자인 그리고 여기 저기 붙어 있는 관제 홍보 포스터나 현수막처럼 획일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디자인과 언어들에 남발되고 있다. 이렇듯 비속하고 규격화된 공간적 문화적 조건 속에서 주민들이 지역에 대해 주인의식과 애착을 가지고 공동의 아이덴티티를 만들어가기는 대단히 어렵다.

(3) 주민 생활의 개별화

지역 아이덴티티 형성을 어렵게 하는 또 하나의 요인은 주민들의 생활 구조이다. 도시화가 진전됨에 따라서 주민들의 생활양식은 점점 개별화되어간다. 개별화란 지역 공동체가 점점 희석화되어 주민들 사이의 관계가 얽어지고, 또한 가족 내에서도 가족 구성원들 간의 관계가 약화되어 단절되는 것을 말한다. 자아의 고유한 세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사적(私的)인 것의 가치가 부각되는 것이다. 그럴수록 지역이라는 공간은 의미 있는 사회 영역으로서 의식되거나 체험되기가 어렵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 전체의 변화와 맞물려 있다. 사회의 변화가 빨라지고 생활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도시인의 삶 속에서 지역 공간이 지니는 비중과 의미는 점점 줄어든다. 무엇보다도 주민들이 지역에서 보내는 시간 자체가 점점 줄어들면서 그 공간을 배경으로 생활 세계의 공감대를 갖기가 매우 어렵게 된다. 사람들은 주민으로서가 아니라 어떤 공식 조직에 우선적인 소속감을 갖고 거기에서의 성취에 전력 투구한다. 따라서 사회의 제 영역들이 점점 세분화되고 전문화됨에 따라 그 영역들 사이의 이질성은 그대로 지역 사회 안에도 투영될 수 밖에 없다.

주민들 사이의 이질화를 문화적인 면에서 접근해보자. 이동 수단과 통신 네트워크의 발달에 힘입어 생활권은 날로 광역화되고 있다. 공간의 제약이 극복됨에 따라 사람들은 자기의 취향에 맞는 텍스트나 사람들을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게 되고, 그들이 저마다 특유한 동류 집단을 형성하면서 이질적인 하위 문화들이 증식한다. 지역 공간에서 그것은 사적 공간의 파편화로 나타난다. 이러한 익명적 삶의 조건은 도시화된 사회가 지닌 매력 가운데 하나이다. 지역 커뮤니티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만의 고립된 세계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활 구조 속에서 지역에 대한 공동의 관심사를 모은다든지 행동의 연결망을 구축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4) 행정 시스템의 비대화

지역 사회의 모든 것이 해체되어도 마지막 보루로 남는 것이 행정 조직이다. 그래서 지역을 디자인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데 그러한 행정조직이 현대 도시에서 지역 디자인의 주체가 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 행정 체계가 너무 복잡해지고 비대해져서 유연하고 신속하게 작동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로 지적될 수 있다. 그 배경은 다음과 같다.

주민들의 삶이 개별화될 수록 그전까지 지역 커뮤니티나 가족에 의해 충족되어오던 생활 관련 기능들 가운데 많은 부분이 공공 서비스에 대한 요구로 나타난다. 그 결과 행정이 관리해야 할 업무는 자꾸 늘어나고 이에 대응해 보다 전문화된 직능 체제로 대응하게 되면서 관료제는 더욱 공고해진다. 그래서 분업이 더욱 진척되고 새로운 직무와 기능들이 양산된다. 그러한 분화를 거듭하면서 복잡해진 그 시스템은 저마다 자체의 내적인 논리와 관성, 공식적으로 규

정된 역할과 매뉴얼에 의해 작동하면서 각 부서 사이의 칸막이는 점점 높아진다. 특히 한국의 경우 그것은 중앙 정부의 각 부처를 정점으로 관할 영역별로 수직적으로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지자체 단위에서 수평적으로 통합하기가 더욱 어렵다.

그런데 그렇듯 행정 조직 내부의 장벽들이 높아짐에 따라, 행정 조직 바깥으로 주민과의 사이의 벽은 더욱 높아진다. 그래서 주민의 생활에 관련된 일들을 다루면서도 그 처리 방식이 너무 추상적으로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로서는 해독하기가 매우 어렵다. 대의 기구인 의회의 의원조차 그것을 소상히 파악하여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찾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듯 행정 시스템은 점점 자폐적 영역으로 변하면서 주민과의 거리가 자꾸 벌어질 수 밖에 없다. 정책 결정의 장은 생활 세계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이다.

4. 커뮤니티 디자인의 과제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커뮤니티 디자인의 윤곽을 잡을 수 있다. 커뮤니티를 정의하여 물리적인 인프라, 그것을 관장하는 행정 시스템, 주민 생활, 경제 활동, 집합적 상징 체계 등이 어우러져 빚어내는 삶의 복합체라고 할 때, 그들 사이에 미적, 기능적 조화를 꾀하고 실현하는 문화 전략이 바로 커뮤니티 디자인이다. 그것은 한 마디로 '관계의 디자인'이다. 이를 크게 나누자면 사물 또는 과제들 사이의 관계, 삶과 인공 환경 사이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로 생각해볼 수 있다.

(1) 사물 또는 과제들 사이의 관계의 디자인: 전체적 목표상(vision)의 포착

앞서 언급했지만 공간이 포화상태가 되면서 그 안에 들어서 있는 여러 인공 도구 및 시설물들이 그 기능적으로 상충하거나 미적인 측면에서 부조화를 이루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러한 모순을 풀기 위해서는 그 하나 하나에 치중하기 보다는 커다란 방향을 먼저 잡아야 한다. 곧 전체의 목표상(像)을 잡는 것이다. 건축 디자인의 경우 그 완성도(完成圖)는 계획 도면이나 모형이다. 그러나 커뮤니티 디자인은 다르다. 그것은 대개 장기적으로 기획하여 실행해가는 만큼, 상황이 계속 바뀔에 따라 원래의 계획은 미완성인 상태에서 다음 계획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디자인의 대상은 구체적인 사물이나 형태가 아니라 커다란 방향, 곧 목표상이다. 그 목표를 정하는 것부터가 디자인에 포함된다. 커뮤니티 디자인이란 상황에 대한 사후 처방이 아니고 지역의 장래상(像)을 예견하고 그리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장래상은 각 지역이 처한 고유한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꼴을 이룬다. 그러나 그 다양함을 넘어서 보편적으로 추구되어야 하는 방향이 있다. 그 가운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경제의 발전과 삶의 질 사이의 균형이다. 근대 산업화 과정에서 사회의 제 영역이 생산의 논리로 재편

성되면서 생활세계는 극도로 위축되고 왜곡되어왔다. 이제 그러한 모순을 넘어서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산업의 활성화가 생활의 윤택함을 보장하고 생활 공간의 쾌적함이 산업의 경쟁력을 북돋는 지역 사회를 디자인해 가야 한다. 따라서 지역이 내세우는 상징과 이미지는 외적으로 발현되면서 경제적인 부가 가치를 발휘해 관광이나 지역 산업 진흥에 활력소가 될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주민들 사이에 공유되면서 사회적 통합의 접착제가 되어야 한다.

(2) 생활과 인공물 사이의 관계: 하드웨어에 덧붙이는 생활양식의 선택

그렇듯 인공물과 인공물 사이 그리고 지역의 과제들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전체의 목표상은 결국 인공물과 생활 양식과의 관계 속에서 결부되어 논의되어야 한다. 그 배경을 보자. 지역을 둘러싼 조건 그리고 그것에 밀접하게 연관된 주민들의 생활 세계가 끊임없이 변화한다. 그래서 그러한 조건이 자아내는 공간적 결과 또는 공간에 대한 새로운 수요를 안정되게 처리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게 되었다. 도시의 변화, 거기에는 시장 메커니즘, 인구구조 변화 및 이동, 소비 패턴 및 생활 양식의 변형, 자동차의 보급 등 여러가지 변수가 작용한다. 그 모든 변수들을 아무리 치밀하게 계산한다 해도 항상 문제는 남기 마련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지 사무 관료적인 판단만으로는 풀 수 없다. 어차피 모든 사람의 요구를 완전히 만족시키는 정답이나 그것을 찾아내는 기술이 없기 때문이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한국의 어느 도시마다 불법 주차가 큰 골치거리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세 가지다. 첫 째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는 것, 둘째 기존 도로에 공간을 정해 주차를 허락하는 것, 셋 째는 자동차 자체를 덜 타고 다니는 것이다. 첫번째 방법은 행정 쪽에서 거의 알아서 해온 일이다. 두번째 방법은 행정과 주민의 협조가 필요하다. 세번째 방법은 주민들이 스스로 생활 양식의 전환을 기해야 할 문제이고 그래서 가장 어렵다. 그런데 도시 공간이 포화 상태이고 땅값이 너무 비싸 첫 번째 방법은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나머지 두 방법에 의존해야 하고, 그것은 행정의 일방적인 조치로는 불가능한 해결 방안이다. 주민들의 협조 내지 자기 변혁이 수반되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근본적으로 자기 지역을 어떤 모습으로 만들겠다는 이데올로기의 문제가 개입할 수 밖에 없고, 그것은 토론과 합의를 요구한다.

그리고 공간과 재원의 한계 때문에 이제는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무턱대고 건물을 지어댈 수가 없다. 따라서 그 요구를 충족시키는 방안을 보다 폭넓게 확보해야 한다. 한 가지 예로 노인 복지를 생각해보자. 그를 위해서 행정이 주체가 되는 도시 계획 사업으로서 가장 흔히 떠올리는 것은 노인 센터나 노인 병원, 또는 간호 시설이 딸린 노인 전용 공영 주택 등을 건설하는 것이다. 그러나 전혀 새로운 건물을 짓지 않고도 자원 봉사자 네트워크를 만들거나 기존의 조직을 더욱 활성화하여 노인들을 보살피는 방법도 있다. 그렇게 담당 주체를 새롭게 확보함으로써 보다 폭넓은 선택지를 갖게 되고 보다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시민들의 합의를 토대로 선택하여 그 선택에 대해 함께 책임져야 할 사안이 고, 따라서 더 나아가 사회 운동의 과제이기도 하다. 문제는 곧 정치적인 장으로 옮겨간다. 사실 어떤 도시 계획이든 이데올로기를 깔고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그 생활 주체들의 참여는 당연한 추세라고 볼 수 있다. 각자 처한 입장에서 자신의 생활상의 요구를 사회화하면서 타인의 그것과 토론하고 타협하여 계획에 반영시키는 것은 지금 지방 자치와 주민 참여에서 점점 중요한 과제로 대두될 수 밖에 없다. 다양한 입장과 관점에 서서 공간을 읽고 발언하는 것은 디자인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기하는 계기가 된다.

(3) 사람들 사이의 관계의 디자인: 주민 참여 시스템과 시민 문화의 구축

그러한 디자인은 또한 주민들 사이의 네트워크, 그리고 주민과 행정 사이의 파트너십 속에서 발전할 수 있다. 커뮤니티 디자인은 참여를 통한 디자인일 때 진정한 의미가 살아난다. 그런 의미에서 커뮤니티 디자인은 디자인의 주체를 형성하고 그들 사이의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부터 디자인해야 한다. 어떤 행위자들이 참여하여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할 것인가, 그 원칙과 절차는 어떻게 세우는가 등의 문제를 면밀하게 고려해야 한다. 다시 말해 디자인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과정 그 자체도 디자인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행정이 전문가와 함께 일반적으로 구상하고 시행할 때는 기존의 일반적인 절차를 따르기 때문에 그것이 각별히 문제가 되지 않지만, 주민들과 함께 하려고 한다면 그 결합의 원칙과 방식을 새롭게 짜야만 하는 것이다. 그것을 얼마나 일관성있고 유연하게 정립하느냐에 따라 참여 또는 담당 주체의 다양성이 보장된다.

그러한 참여를 통해 형성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는 인공 환경을 이용하면서 서로 지켜야 하는 룰을 만들어가는 작업으로 이어진다. 도구나 시설을 매개로 한 사회적 관계를 합리적이면서 유의미하게 만들어가는 문화적 토대가 마련되는 것이다. 전문가가 아무리 좋은 의도로 시설을 디자인해도 그 올바른 쓰임새가 사용자들에게 숙지되지 않는다면, 디자인의 가치는 없어져 버릴 것이다. 그러나 처음 단계부터 참여가 이뤄진다면 그러한 시설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주민들 스스로 발의할 수 있고, 따라서 그 관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을 질 것이다. 그리고 그 시설이 어떻게 이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학습이 자연스럽게 이뤄져 디자이너의 의도대로 활용될 수 있다.

이렇듯 '참여'는 디자인의 과정과 결과 그리고 그 이용 방식을 유의미하게 이으면서 삶을 위한 디자인이 이뤄지도록 기여할 것이다. 그런데 디자인과 참여의 관계는 쌍방향으로 성립하리라고 본다. 그래서 위에서 언급한 참여를 통한 디자인'(design through participation)뿐만 아니라, '디자인을 통한 참여'(participation through design)도 상정될 수 있는 것이다. 즉, 지역 사회 내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둘러싸고 주민들 사이 그리고 주민과 행정 사이

반갑습니다. 도시연대 <주민참여 마을학교>입니다.

에 의사소통을 복돋는데 디자인이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사회적 디자인 행위를 통해 다양한 입장과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종합하는 것, 그리고 공동의 비전을 창출하고 공유하는 것이 커뮤니티 디자인의 핵심이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시민사회의 공동성(communality)을 구축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커뮤니티 디자인은 건실한 시민 문화의 토양 위에서 꽃피는 것이면서, 동시에 그 문화를 복돋는 촉진제가 되어야 한다.

5. 커뮤니티 디자인의 전략

커뮤니티 디자인은 그 커뮤니티가 놓여있는 조건에 따라 다양한 전략이 설정되고 구사될 수 있다. 도시인가 농어촌인가, 도시 가운데서도 대도시인가 지방 중소도시인가, 인구 규모가 얼마나 되는가, 인구 이동율은 얼마나 되는가, 인접 지역에 대도시를 접하고 있는가 아니면 동떨어져 독자성을 확보하고 있는가, 얼마나 유명한가, 지역 고유의 역사 유적지나 전통 행사가 있는가, 자연 환경은 풍부하게 보존되고 있는가, 베드 타운인가 아니면 경제활동 공간과 유흥공간이 공존하는가, 뚜렷한 중심 상점가가 존재하는가 아니면 소비인구가 주로 다른 지역 상권에 흡수되는가, 도시의 얼굴로 내세울 만한 상징적 공간(예를 들어 광장 등)이 이미 존재하는가 등의 여부에 따라서 디자인의 성격이 전혀 다르게 상정될 것이다. 그러나 그 어느 경우에도 공통적으로 취해야 할 전략이나 방향을 다음 몇 가지로 생각해보고자 한다.

(1) 주민과 행정 사이의 매개 영역 만들기

커뮤니티 디자인은 구성원들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뤄진다. 그런데 현대사회 특히 도시 상황에서 그러한 커뮤니케이션은 점점 어려워진다. 그 까닭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민들의 생활이 개별화되면서 그 관계가 단절되는 것, 행정이 비대화되면서 그 내부의 영역들 사이에 칸막이가 높아지는 것, 그리고 행정체계와 주민 사이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간극을 메우면서 이어주는 영역을 건실하게 확보하는 것은 지역 디자인에서 핵심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제도 내에 그러한 기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행정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계획을 형식적으로 승인하는데 머물러 실속이 없고, 거기에 관여하는 이들도 주변 조직에 소속한 주민이나 당장 어떤 문제에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주민집단 등 지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았다. 그래서 특정 사안에 대해 특정 주민들이 특정 부서와 만나는 형태가 주를 이루었다. 앞으로 필요한 것은 지역 전체를 포괄적으로 조망하면서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장(場)이다.

더 나아가 지역의 존재 방식을 주민들이 원하는 일정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제도를

주민들과 행정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몇몇 지자체에서는 국가의 법률 보다 더욱 엄격한 조례를 설정해 지역을 지키고 있는 경기도 부천시의 담배자동판매기 금지 조례는 그 한 가지 예이다. 이웃 나라 일본에서는 경관에 관련해 지자체가 독자적인 조례를 만드는 경우가 많다. 90년대 들어 일본에서 주목을 받는 한 가지 사례가 가나가와(神奈川)현 마나쓰루(眞鶴町)의 「마을 만들기 조례 : 미(美)의 기준」라는 것이다. 80년대 후반부터 리조트 맨션 붐이 일어 환경이 급격하게 파괴되기 시작한 이 지역에서는 무계획적인 개발에 대해 급수 규제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개발에 대한 주민 의견 표명의 장을 조례로 설치함으로써 주민 참여를 제도화하게 된 것이다. 이 조례에서는 기존의 도시 계획법 등의 기준으로는 환경 보전이 어렵기에 마을 만들기에 관해 3가지를 독자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1) 적정한 절차(공청회, 열람, 의견서 제출, 보고서 작성, 의회의 의결)를 밟아 개발을 진행할 것 (2) 토지 이용 규제 (3) 마나쓰루의 경관은 마나쓰루 독자의 것이므로 마나쓰루에 어울리는 「미(美)의 원칙」을 천명한다는 것이다. 이 조례는 주민 참여에 의해 자치체가 풍요로운 지역 공간을 만드는데 획기적인 시도로 평가되고 있다.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미의 원칙」으로서 거기에는 장소, 격조, 척도, 조화, 재료, 장식과 예술, 커뮤니티, 전망이라는 8가지 원칙이 담겨 있다. 「미」는 주관적인 것인데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가라는 반론도 있었지만, 이 원칙은 특정한 색깔이나 양식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고, 미에도 룰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했음에 의미가 있다.

그런데 이렇듯 자치체의 조례가 국가의 법률이 마련한 것 보다 더욱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개발을 제한하는 것은 쉽지는 않다. 현행 일본법 체제상 국가가 사업 허가를 내준 공사를 자치체가 막을 경우(공사에 필요한 수도물을 공급하지 않는 방법이 일반적이다), 개발 업자가 재판을 걸면 결국 자치체가 패소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조례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선언적인 성격이 강하다. 그래서 주민들 스스로에 대한 다짐인 것이고, 중요한 것은 언론의 관심을 끌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자치체가 이기는 경우 따지고 보면 그것은 거의 대부분 조례라는 법률로써가 아니라 여론에 힘입어 가능하다.

(2) 경제-문화의 시너지 효과

지역활성화는 경제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그런데 앞서 언급했듯이 그동안 경제의 발전이 문화의 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한 경우가 많다. 앞으로 지역 디자인은 그것을 양립시키는 전략을 모색하여야 한다. 이미 많은 지방에서 지역의 고유한 문화적 또는 자연 자원을 활용하여 이미지를 구축하면서 그것을 특산물이나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고 있다. 그런데 아직 문화적인 점에서 충분히 다듬어지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당장의 상리(商利)를 위해 성급하고 조야하게 디자인해서 내놓기 때문에 오히려 지역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경우도 많다. 앞으로는

그러한 자원을 좀더 깊이 있게 재해석하고 디자인하는 안목과 투자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특산물의 경우 그것이 생활에 결부되어 어떠한 의미를 지녀왔고 거기에 무슨 삶과 역사가 얽혀왔는지를 현대인들의 정서에 맞춰 풀어내고 더 나아가 그것을 응용한 체험 학습 프로그램을 만들어낸다면 좀더 많은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보의 디자인은 지역을 대상으로 한 토탈 디자인의 뼈대를 이룬다.

다른 한편 이렇다 할 만한 역사적 유산이나 자연 자원이 없는 도시의 경우 유통 공간을 지역 문화의 한 가지 모태로 삼아 볼 수 있다. 상점가는 지역의 중심이자 활기의 근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도시의 역사를 되돌아볼 때 시장은 단순히 경제적인 교환의 장소를 넘어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만나고 문화를 체험하는 공간이었다. 사회 구조와 사람들의 생활이 한편으로는 거대하고 치밀하게 조직된 공적 영역, 다른 한편으로는 낱낱이 분리된 사적 영역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현대 사회에서 쇼핑 센터, 번화가, 상점가는 제3의 공간으로서의 성격을 띠고 볼 수 있다.

그것은 도시의 역사 속에서 시장의 위상이나 기능을 살펴보면 그 의미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서구의 도시를 보면 예로부터 중앙에 광장이 있고 거기에 대성당이나 시청이 있다. 그 전체가 도시의 얼굴이고 시민들이 모여 문화를 만들어내는 장(場)이었다. 그에 비해 한국이나 일본의 경우 그러한 광장의 기능을 대신한 것은 시장이라고 볼 수 있다. 시장에서는 단지 물건의 거래만이 아니라 여러 동네 사람들이 만나 여러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혼담을 주고 받던 장소였다. 그러는 가운데 민속이 생성, 집결, 전파되고 사회 변동의 장이 되어왔다. 시장이 지닌 이러한 사회 문화적 의미는 현대 사회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미국의 도시 문화를 연구해온 사회학자 주킨(Zukin)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쇼핑 문화는 단지 개인적 취향이나 소비 관행의 수준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도시 공간을 만드는데 중요한 부분이고, 보고 보여지는 것의 중요성에 의해서 공공 문화를 만들어낸다. 그것을 통해 집단 아이덴티티가 표현될 수 있고, 그러한 아이덴티티는 도시의 더욱 커다란 공공 문화 속에 포섭될 수 있는 것이다."

(3) 자주적인 환경 학습의 장(場)

커뮤니티 디자인은 결과 보다 그 과정에 훨씬 의미가 있다. 따라서 답을 찾는 것 보다 질문 자체를 만들어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답을 찾는 작업에는 전문가의 역할이 꽤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그것에 선행되는 질문을 제기하는 것은 주로 주민들에 의해서 이뤄져야 한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자신이 살아가는 환경을 새롭게 보는 눈이 열려야 한다. 그러한 각성은 우연한 계기로 생길 수 있지만, 의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촉발될 수 있다. 마을 공간과 그것이 담고 있는 지역 생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도수의 렌즈를 들이대고 살펴보는 워크숍이 이미 다양하게 개발되고 실행되어 왔다.

어떤 소재나 주제를 가지고 관심있는 사람들끼리 그룹을 이뤄 지역의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것은 자주 활용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지역에 서식하는 새들을 관찰하여 그 종류와 분포를 지도 위에 기록한다든지, 교통량을 조사하고 사고 위험 지역들을 체크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그 외에도 지역의 가장 매력적인 포인트를 찾아내기, 어린 아이나 노인들이 즐겨 찾는 곳 조사하기 등 그 아이템은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은 단지 지적인 차원 뿐만 아니라 오감(五感)을 동원해 체험하면서 느끼는 감수성의 훈련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심화되고 확대된 지역 인식을 자유로운 상상력과 결합시키면서 창조적인 집단 활동을 이끌어내는 프로그램도 많이 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자주적인 학습의 장(場)을 확보하고 합의 형성의 사회 문화적 기반을 마련해가는 것이다.

(4) 미디어로서의 이벤트

지역의 미래상에 대한 꿈은 주민들 사이에 이야기하면서 공감대를 넓혀가야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 표현의 방식이다. 어려운 전문 용어와 복잡한 수자로 가득찬 도시 계획 도면(圖面)은 전달되고 이해되기가 너무 어렵다. 그리고 거기에는 물리적인 설계만 들어가 있을 뿐, 거기에서 영위되는 활동이나 그것이 자아내는 분위기 같은 것은 실려 있지 않다. 따라서 보다 쉬운 언어로서 그리고 구체적이고 삶에 대해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매체를 확보해야 한다.

그것은 아무래도 이성과 감성에 함께 호소하는 양식이어야 할 것이다. 축제는 그것을 담보하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본다. 한국에도 지방 자치가 시작된 이후 지역 마다 다양한 축제가 활성화되고 있지만, 대부분 이벤트 회사가 패키지로 제공하는 현란한 구경거리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어느 지역이나 거의千篇일률적인 메뉴로 짜여지고 있다. 특히 전통적인 문화유산이 없고 주민들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지역일수록 더욱 그러하다.

축제가말로 주민들이 나서서 발언하고 자기를 표출하는 마당일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 마당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주민들의 참여가 이뤄져야 하고 그 과정 자체가 이미 축제의 일부분이어야 한다. 축제가 시작되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지역내의 다양한 인적, 문화적 자원들을 발굴하고 계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면, 비용도 훨씬 절감될 것이다. 그리고 그 내용 면에서도 한층 더 농밀한 교감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볼 때 축제는 반드시 대형 이벤트일 필요가 없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놀이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미래상을 예시하고 시물레이션하는 장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소각장 굴뚝에 아름다운 색깔을 입히기 위해 시민들이 종이로 굴뚝 모양을 만들어 그 위에 여러 시안적 디자인을 해서 콤포를 벌인다든지, 동네에 비어있는 공유지를 미니 공원으로 만드는데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공동 작업을 벌이는 등의 사례는 커뮤니티 디자인의 새로운 차원을 암시한다.

(5) 교육과의 연계 가능성

그러한 시민 활동은 교육과 연계해서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한 예를 들어보자. 일본의 나가노(長野)현 이이다시(飯田市)에 가보면 중심 시가지의 큰 도로 한 가운데 녹지대에 사과 나무가 가득 심어져 있다. 거기에는 시민들이 공유하는 역사와 의미가 담겨 있다. 패전의 충격에서 미처 헤어나지 못하고 있던 1947년 한 동네에서 일어난 불이 강풍을 타고 시 전체를 태워버렸다. 그 비운을 딛고 도시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도로 중앙에 녹지대를 만들어 방화 도로로 하기로 했다. 그런데 그로부터 5년후 이이다히가시(飯田東)중학교 교장이 샷포로에 전국 중학교 교장 회의에 참석하러 갔다가 거기에서 훌륭한 가로수에 감탄하고 돌아왔다. 그 이야기는 학교내에 퍼져나갔고 학생회에서는 자기들이 가로수를 꾸미는데 나서겠다고 제안했다. 그것은 직원회의를 거쳐 다시 시에 제안되었고, 결국 시의 지원 속에서 전교생 1천5백명이 나서 3개월 동안 작업을 한 끝에 아름다운 시가지 풍경이 완성되었다.

그렇게 해서 심어진 사과 나무는 지금까지 50년 동안 그 학교 학생들의 손에 의해 계속 가꾸지고 있다. 더 나아가 학생들은 도시의 바람직한 장래상을 제안하기 위해 지역을 직접 답사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마을의 현황과 문제점을 조사하고 워크숍을 벌인다. 그 결과는 매년 그 시에서 열리는 인형극 페스티벌에 맞춰 '사과나무의 중얼거림' 등의 제목으로 연극화된다. 지역 공간을 디자인하는 작업에 중학생들이 어엿한 주역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대학이 지역 디자인의 주역으로 나서는 경우를 보자. 영국의 글래스고우는 1999년 전세계에서 오는 수많은 관광객들과 함께 1년 간의 축제를 벌이려 한다. 그 축제는 다름 아니라 글래스고우를 건축과 디자인의 최선단에 자리매김하는 것을 기리는 것이다. 아트 카운슬로부터 '1999년 영국의 건축과 디자인 도시' 라는 타이틀을 수여받으면서 준비되어온 이 축제에서 시민들은 글래스고우의 장래를 만들어가는데 목소리를 낼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 도시의 특유하고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기반으로 향후 장기적인 사회적 경제적 발전을 꾀하려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하나의 도시가 디자인의 모든 분야에서 어떻게 더욱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주체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한다.

이 축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글래스고우내의 디자인 계열 대학의 학생들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주민과 행정 그리고 산업을 만난다.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건축과 디자인을 함께 생각하고 실행하는 워크숍을 벌인다든지, 도시 비전의 마스터 플랜을 작성해 세미나를 벌이고 발표회를 갖는다. 그리고 영국 전역 그리고 유럽을 상대로 홍보하면서 패션 부문의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 과정에서 시민, 지역사회, 공공조직과 비즈니스 담당자들은 디자인 프로세스의 문화적, 경제적 중요성에 대해 새삼 인지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글래스고우 소재의 디자인 전공학도들은 자신의 능력을 행정 조직이나 기업 쪽에 강하게 인지시킬 수 있다.

글래스고우는 디자인 도시로서 이미지를 구축해감으로써 지역의 대학과 산업을 공동으로

활성화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그것은 결국 글래스고우 시민들의 도시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풍요로운 삶의 공간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힘으로도 비추되어 간다. "우리의 1999년 프로그램의 목표는 더욱 고도로 훈련되고 숙련된 노동력을 양성하고, 더욱 지적이고 비판적인 소비자, 그리고 자신의 삶과 환경을 더욱 잘 통제할 수 있는 시민들을 길러내는 데 있다."는 선언이 그것을 잘 드러내준다.

지역 사회에 대한 연구와 실천은 폐쇄적인 전문화로 치닫고 있는 학문의 타성을 극복하고 학제간의 만남이 이뤄질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될 수 있다. 구체적인 테마를 중심으로 여러 전공학도들이 토론하고 공동 작업하면서 통합적인 관점을 기를 수 있는 실험실이 바로 지역이다. 거기에서 배양되는 사고력과 창조성은 21세기가 요구하는 디자이너의 능력 그것이다.

6. 마무리

근대 산업사회의 전개 속에서 디자인 대상은 계속 확대되어왔다. 처음에는 제품 그 하나의 생산에만 머물러 있던 것이 마케팅(판매)으로 넓어졌고, 그 다음으로 시스템 (소비 생활)으로 영역을 넓혔으며 이제는 폐기 및 재생 과정(생태적 순환)까지 시야에 넣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그래서 소비재 중심에서 공공재 중심으로, 'flow'에서 'stock'로, '작가주의' 또는 '상업주의'에서 '환경주의'와 '시민주의'로 좌표축이 이동하고 있다.

커뮤니티 디자인은 그러한 디자인의 패러다임 전환 과정에서 떠오른 중대한 과제이다. 커뮤니티는 삶을 빚어내면서 그것을 담아내는 그릇이다. 거기에는 사람의 몸과 자연환경 사이의 순환적 공생 관계가 깃들여 있고, 도구 및 시설, 경제 및 사회 제도 그리고 지역 문화가 그 관계를 매개한다. 커뮤니티는 문화적 공동성을 담보하는 의미의 저장소로서 사람들의 아이덴티티를 생산하고 재생산하는 근거이기도 하다. 커뮤니티 디자인은 근대화화 도시화 과정에서 시간과 공간과 자아 사이의 유기적인 연결 고리가 끊어져버린 지역 공간 속에 다시금 '역사성'과 '장소성'을 심는 작업이다. 지역 사회를 조화로운 생명의 질서와 문화의 향기가 담기는 건실한 공공 영역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커뮤니티 디자인이다.

그것은 곧 지역의 사회적 구심력과 문화적 이미지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의 과제로 이어진다. 문화가 경제의 성패를 좌우하는 지식 정보사회에서 지역은 그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는 구체적인 장(場)으로 여겨진다.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참여와 상호작용 속에서 생성되는 특유의 지역문화는 기존의 표준화된 국민문화를 대체하면서 동시에 다양한 지구촌 문화를 더욱 풍부하게 구성하는 활력소가 될 것이다. 그렇듯 지역적 특수성과 세계적 보편성을 함께 담보하면서 경제와 생활을 윤택하게 가꾸는 지역문화의 건설, 커뮤니티 디자인의 소임은 바로 거기에 있다.

참가자와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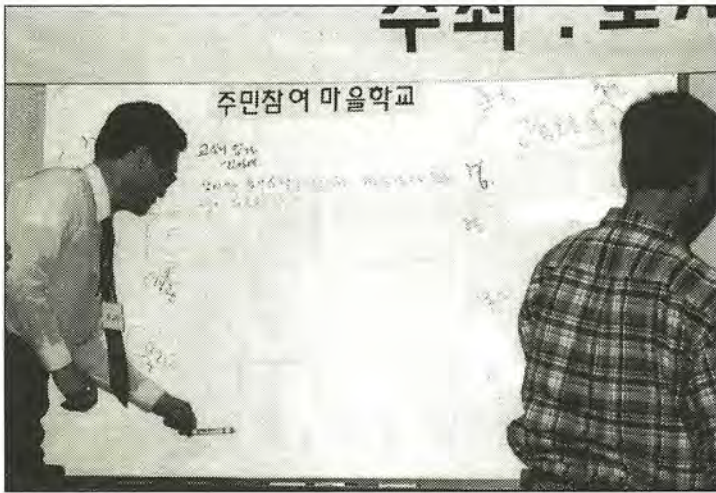
김찬호 박사님의 강의에 대한 질의·응답을 모았습니다.



- 참가자: 일본에서의 경우 시민들이 다가설 수 있는 마을만들기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 김찬호: 우리는 운동이라는 선입견이 있지만 일본에서는 일상화되어 있어요. 마을만들기는 보통사람도 자주 쓰는 친숙한 용어입니다. 그러나 일본에서 특이한 것도 있고 한국이 특이한 것도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큰 차이는 일본은 내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랫동안 한 곳에 살았던 사람이 많죠. 또 일종의 지신(地神)이라고 할 수 있는 신사가 많아 지역에서 구심점이 될만한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 참가자: 소득이 낮은 경우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까?
- 김찬호: 성공의 기준이 뭐냐가 중요할 것입니다.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주에 정석 박사님께서 많이 이야기해 줄 것입니다.
- 참가자: 서울시에서 새주소 부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과 마을만들기가 결합해서 시너지 효과를 얻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김찬호: 그 공간에 낯선 사람에게 통하는 것과 그 지역 사람, 즉 익숙한 사람에게 통하는 것이 다를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명하달식이 아닌 주민참여로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그러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인데 그렇게 하고 있나요?
- 참가자: 사실상 주민이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민중에서 참가의사가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회에서 논의해서 동네 이름을 붙였는데 옛날 지명을 살려내는 등 주민이 실제 참여해서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찬호: 주민이라는 범주는 어떻게 설정했나요?
- 참가자: 자연스럽게 대다수가 참여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면은 있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해



반갑습니다. 도시연대 <주민참여 마을학교>입니다.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습득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찬호: 성급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간이 걸려도 공개하고, 공모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새주소 부여사업을 한다는 것이 인지될 수 있고 한 명이라도 더 그 장소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셈이죠. 그런 과정을 통했을 때 이후 붙여지게 되는 이름에도 친숙해 질 것입니다.

참가자: 일본의 경우 주민자치회가 있고 우리의 경우 동단위로 아기사기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 행정에서도 일본처럼 이러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을 일본과 같은 개념으로 보는 것이 맞을까요?

김찬호: 근본적으로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일본도 그다지 잘 되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실제 행정이 주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한 가지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고 그것을 통해 서로 연결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민따로 행정따로 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점이 좀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알고 보면 일본도 잘한 것이 있고 못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나름의 특성을 살리는 것이겠죠.

참가자: 물리적인 시설과 관련하여 진행하는 도시계획적 공간계획을 하는 데에 있어 마을만들기가 투입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적 제도가 있습니까?

김찬호: 대구 삼덕동의 담장허물기 활동이 작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가자: 경기도 광탄리를 보고 마을이 생성되는 과정을 알게 됐는데요. 주민이 참여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현재 제도로서는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합병조건이 안 된다. 분할이 안 된다. 여러 제약조건이 많은 것이죠. 의식화 차원의 마을만들기가 아니라 제도도 함께 변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찬호: 조례, 헌장과 같은 주민들에 의한 약속을 통해 제약조건을 극복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가령 '우리 상점가는 간판을 어떻게 하자'는 식의 등등 조그만 약속을 정할 수 있습니다. 부차적으로 이것은 물리적 강제력을 발휘하는 요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구성원들의 강한 결속력을 키워주는 것이죠.

참가자: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었는데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치단체와 행정에서 끌어주고 육성해야 하는데 공무원으로서 해야 될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김찬호: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주민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주민안에서 리더가 나와야 합니다. 또 어떤 리더나에 따라 다른데 관변조직의 구성원일 수 있고 발이 넓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선거때가 되면 사람이 모이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전국노래자랑때도 많이 모이죠. 이렇게 많이 모이는 사람 중 포인트를 잘 잡아야 합니다. 또 행정과 주민이 함께 만나는 자리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행정과 주민의 접근이 매우 단일합니다. 민원처리나 반대무마 등과 같은 일에서만 만나죠. 일상적으로 교류하는 영역이 있어야 합니다. 그안에서 동사무소를 변화시킬 수 있겠죠.

주민참여 마을학교 2마당

우리나라의 마을만들기 활동

〈강의〉

한국의 마을만들기 사례와 시사점 - 정 석(시정개발연구원)

〈참가자와 함께〉

한국의 마을 만들기 사례와 시사점

정 석(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설계연구팀장, 고양시 문촌마을 주민)

I. 서론

민주화의 진전과 자치시대의 본격화를 맞으면서, 우리는 좀 더 민주적이고 자치적인 도시계획의 구현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행정이 주도하고 전문가 집단이 대신 세우던 이제까지의 도시계획과는 다른 주민주도, 시민본위의 참여형 도시계획의 실현을 모색하고 실천에 옮길 시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민참여든 시민참여든 이른바 참여형 도시계획은 공간적, 지리적 제약을 받는다. 도시전역을 대상으로 하고, 게다가 10년, 20년의 먼 미래를 염두에 두고 세우던 기존의 도시계획에 있어서, 일상에 바쁜 주민 개개인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만한 여지는 사실상 별로 없다.

따라서 실질적인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의 범위와 시간은 물론, 수립주체에 관한 지금까지의 관념을 뛰어넘는 새로운 접근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도시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계획에서 소단위 생활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계획으로, 먼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도시계획에서 눈앞에 닥친 문제들을 해결하고 개선해 나가는 도시계획으로, 그리고 행정과 전문가들이 세우는 도시계획에서 주민들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도시계획으로의 일대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이를테면 주민주도의 마을단위 도시계획으로의 전환이다.

선진 도시들은 오래 전부터 주민들의 참여와 주도 하에 마을계획을 먼저 세우고 이를 도시계획으로 종합해 나가고 있다.¹⁾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소단위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계획을 세우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제도의 부활 이후 용도지역 상향조정과 맞물려 폭증했던 도시설계구역 및 상세계획구역의 지정이 좋은 예로, 1995년부터 2000년 초까지 약 5년 동안 도시설계구역이 79개소, 상세계획구역이 71개소 등 모두 150개 구역이 지정되었다.

1) 시애틀시는 1995년에 마을계획실(NPO: Neighborhood Planning Office)을 신설한 뒤 마을 계획실의 주관하에 1998년까지 4년동안 총 38개 지역의 마을계획을 수립하였다. 계획의 수립과정은 주민조직(주민위원회)이 주도하고 행정(조정관)이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이렇게 수립된 마을 계획은 시애틀 도시기본계획의 기초가 되었다.(정 석, 1999, pp 126-127 참조)

반갑습니다. 도시연대 <주민참여 마을학교>입니다.

그러나 이들 지역에서 수립되고 있는 도시설계나 상세계획을 주민주도의 참여형 도시계획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비관적인 견해가 압도적이다. 주민들은 개발이익에 대한 맹목적 기대와 요구에 급급하고 있고, 행정기관 또한 계획 자체보다는 용도지역 상향조정에 연연하는 경향이 짙으며, 계획 수립을 맡은 용역기관도 행정과 주민을 설득하지 못한 채 획일적인 계획을 양산하고 있다 (윤혁경, 2000).

주민주도의 마을단위 도시계획이 본 궤도에 이르기 위해서는 주민과 행정, 그리고 전문가 집단 모두의 변화가 요구된다. 특히 그 중에서도 주민의 변화가 더욱 중요할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전국 곳곳에서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이 조금씩 확산되고 있다. 주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일상 생활환경의 문제들을 풀거나 개선해 나가는, 이른바 '마을 만들기' 활동이 눈에 띄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에서의 마을단위 도시계획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준비해 나가기 위해, 최근 전국 각지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마을 만들기 사례들을 폭넓게 조사, 분석함으로써 마을 만들기의 현 수준과 가능성을 파악하고, 마을 만들기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얻기 위한 것이다.

마을 만들기 사례조사는 두 단계로 나뉘어 실시되었다. 첫째는 마을 만들기가 현재 어느 곳에서, 어떤 양상으로, 누구에 의해서, 어느 정도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개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가능한 많은 사례들을 찾아보는 것이고, 둘째는 이들 사례 가운데 대표사례를 선정하여 심층 분석함으로써, 마을 만들기의 일반적 조건과 성공요인을 파악하고 마을 만들기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얻기 위한 것이다.

사례의 발굴은 주로 신문이나 잡지, 텔레비전 등의 언론매체나 문헌자료에 대한 검색을 통해 시작되었고, 세미나, 워크숍, PC통신, 인터넷을 통해 소개되는 진행형 사례들도 포함되었다. 마을 만들기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단체나 활동가들의 소개를 통해 발굴된 사례도 있고, 주민 개개인 또는 주민조직과의 접촉을 통해 새롭게 찾은 사례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사례의 소재를 파악한 뒤에는 전화 인터뷰나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필요할 경우 직접 면담을 통해 세세한 내용을 파악하였으며, 문헌이나 매체에 소개된 적이 있을 경우 이를 참조하였다.

II. 마을 만들기 사례들

사례조사를 통해 발굴된 국내 마을 만들기 사례는 아파트 단지 53개소, 일반주택가 29개소, 재개발·재건축 지역 8개소, 상점가 5개소, 기타지역 29개 사례 등 모두 120여개에 이를 만

큼 많으며, 각각의 사례가 진행되었던 지역의 특성, 마을 만들기의 동기, 활동의 성격 및 주체에 있어서도 제각기 달라, 매우 다양한 양상의 마을 만들기가 전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 사례들을 대상지역의 특성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 대표사례를 선정한 뒤 마을 만들기가 시작된 동기와 전개과정, 주민조직과 리더십, 외부의 지원여부, 행정의 대응방식 등을 심층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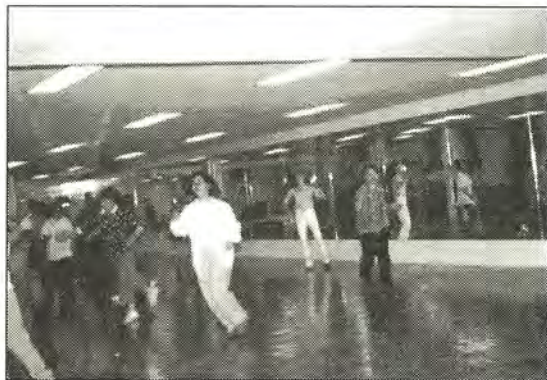
1. 아파트 단지에서의 마을 만들기 사례

흔히 '아파트 공동체 운동'으로 지칭되는 다양한 양상의 주민활동이 여러 아파트 단지에서 전개되고 있다. 특히 여가활동이나 운동, 사회교육 등에 대한 다양한 주민수요를 주민조직 차원에서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단지내 지하주차장이나 상가건물의 일부를 문화교실, 도서실, 에어로빅 교실과 같은 '주민 공용공간'으로 개조하여 사용하는 사례들이 크게 늘고 있다. 이 밖에도 아파트 단지 외부공간을 가꾸거나 음식물 퇴비화 같은 녹색아파트 만들기 활동을 실천하는 경우 또는 단오축제나 문학의 밤과 같은 단지내 주민행사를 정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곳도 적지 않다.

1) 올림픽선수촌아파트: 지하상가를 주민공간으로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의 A상가 지하에는 주민과 행정당국이 협력하여 만들어낸 주민문화센터가 있다. 1992년에 설치된 이곳 문화센터는 에어로빅과 차밍 디스크, 단전호흡과 같은 건강 프로그램과 가요교실 같이 주부들에게 인기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오고 있다.

문화센터가 설치되기 이전에 이 곳은 분양되지 않은 채 비어 있었는데, 주민조직인 '오륜동 새마을 부녀회'가 주도하여 상가 건물에서의 청소년 비행문제를 예방하고 단지내 스포츠센터의 공간부족 및 비싼 비용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비어있는 상가를 주민 문화공간으로 개조하여 사용할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천에 옮겼다.



문화센터에서의 체육활동

반갑습니다. 도시연대 <주민참여 마을학교>입니다.

그러나 문화공간으로 이용하던 것도 잠시, 서울시가 지하상가를 매각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문화공간이 없어질 위기에 처하게 된다. 그때까지 활발하게 이용해오던 문화공간을 계속 이용할 것인 주민들은 송파구청에 이 공간을 매입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송파구청에서는 주민들의 요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지금의 상가를 주민 복지차원에서 구입한 뒤 구청 문화센터로 활용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결과 현재 이 공간은 송파구청에서 소유하고 있지만 부녀회가 분기별로 구청에 임대료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위탁관리하고 있어 사실상 주민문화센터로 사용되고 있다.

구청의 문화센터로 전환된 이후 구청에서는 이 곳에 마루 바닥을 깔아주고 전기시설, 방음시설, 냉·온풍기 등을 설치하였으며 지금도 수시로 점검하고 관리해주고 있다. 부녀회에서는 문화센터 실내의 유지와 관리를 맡아 시설물이 깨끗하고 청결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당번을 정해 청소와 각종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주민들은 이곳 문화센터에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다. 문화센터가 있기 때문에 이사를 못 가겠다는 주민이 있을 정도라고 한다.

비어있는 지하상가를 주민문화센터로 만들어낸 부녀회의 활동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아파트 단지 전체의 환경 가꾸기로 확대되고 있다. 봄과 여름엔 팬지나 베고니아를, 가을에는 국화꽃을 아파트 단지와 주변 가로에 심고 관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동사무소 앞에 시계탑을 건립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돕고 만남의 장소로 애용되는 데에도 기여했다. 또한 단지 앞 버스 정류소에서 오래 기다려야 하는 노인들을 배려하여 정류소에 벤치를 설치하였으며, 깨끗한 우유팩을 수거하여 휴지로 보상해주는 알뜰시장을 정기적으로 열고 있다.

2) 중계동 주공아파트: 녹색 아파트 만들기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 주공 4단지에서 진행되었던 녹색아파트 만들기는 시민단체인 서울동북여성민우회가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시정참여사업에 공모하여 그 지원을 받아 추진된 경우로, 주민조직보다는 시민단체에서부터 시작된 마을 만들기 활동이라 할 수 있다.

동북여성민우회는 지역에 들어가 주민들과 직접 접촉하면서 환경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녹색아파트 만들기 운동을 구상하게 되었고, 1998년 녹색아파트 만들기 운동을 위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 단체에 소속된 회원이 살고 있는 주공 4단지를 대상지로 결정하게 되었다.

녹색아파트 만들기의 주요 활동으로 녹색아파트 강좌 개설,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농장 견학,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사업, 어린이 환경학교 개설 등이 진행되었다. 녹색아파트 강좌는 노인정에서 7회에 걸쳐 열렸는데 총 20여명의 주민이 참석하였으나 고정적으로 참여하는 인원은 5명 정도에 불과했다. 이러한 결과는 단지내 주민과 시민단체간의 사전교감이나 유대가 크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녹색아파트 강좌와 함께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과정을 직접 체험하는 농장견학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는데, 여기에는 15명의 주민이 참석하여 경기도 파주에 있는 한 농장을 방문하였다. 이후 주민들의 참여 하에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사업을 직접 실천에 옮기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시민단체가 추천한 농장에 대해 주민들이 신뢰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사업은 진통을 겪기도 했다.

단지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했던 환경 프로그램인 어린이 환경학교는 '아파트에서 환경친화적으로 놀아보기', '우리 아파트는 내가 지켜요', '우리 마을 생태탐사'를 주제로 3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중계동 주공4단지의 녹색아파트 만들기는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의지가 미약하고, 주민조직의 뒷받침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 시민단체의 주도로 시작된 마을 만들기 활동이 지속되지 못하고 일회성 행사에 그친 경우라 할 수 있다.

3) 부산 금샘마을: 아파트 울타리를 너머선 마을 만들기

금샘마을이란 부산시 금정구 구서동 선경3차 아파트 800세대, 우성 아파트 1,200세대, 럭키 아파트 500세대 등이 이웃해 있는 5,000세대 규모의 전형적인 중산층 아파트 단지 지역을 지칭하는 말로, 행정구역 명칭이나 건설업체의 이름보다는 금정산 자락에 살고 있음에 더욱 긍지를 느끼는 이 지역 사람들이 스스로 부르기 시작한 마을 이름이다.

금샘마을에서 마을 만들기가 시작된 것은 1993년 1월의 일로, 마을 뒷산을 오가며 인사를 나누던 10가구 19명이 모여 마을 사람 스스로 더불어 함께 사는 생활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가자는 취지에 따라 '금샘 사랑방 문화클럽'을 창립하면서부터이다.

금샘 사랑방 문화클럽에서 추진했던 주요활동으로는 단오잔치와 문학의 밤을 비롯해 각종 문화강좌 등이 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행사는 단오잔치로, 1993년부터 시작된 이래 매년 6월에 꼬박꼬박 실시되어 1999년에는 7회째 행사를 열었다. 선경3차 아파트의 넓은 광장에서 열렸던 첫 해 행사에는 400명의 주민이 참석했고, 두 번째 행사에는 700명, 세 번째 잔치에서는 2000여명이 참석하여, 점차 지역적 차원의 축제로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문학의 밤 행사 역시 1993년 이후 매년 11월에 빠짐 없이 개최되고 있다. 초창기 문학의 밤 행사에는 김지하 시인을 비롯하여 이해인 시인, 도종환 시인 등 유명인사들이 참여하였으나, 최근에는 일반 주민들의 창작품을 발표하는 횟수가 늘고 있다. 이 밖에도 다양한 교양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왔다. 매주 두 번씩 열리는 민속춤 교실을 비롯해 노래 교실, 국악 교실, 연극교실, 사진교실, 청소년 교육 등이 개최되어 주민들의 교양을 높이고 문화적 욕구를 채워주고 있다.

금샘마을에서 전개되고 있는 다양한 문화활동은 주민들에게 정서적인 만족감을 줄 뿐만 아니라 지역의 경제적 가치 상승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한다. 금샘마을 마을 만들기를 이끌

반갑습니다. 도시연대 <주민참여 마을학교>입니다.

고 있는 부산대학교 황한식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복덕방에서 말하기를, 제가 사는 선경 3차 아파트는 값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문화행사를 통해 주민들은 자기가 사는 마을에 긍지를 갖게 되고, 문화 덕분인지 아파트 값이 떨어질 때는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덜 떨어지고, 오를 때는 더 올라가는 현상이 실제로 생깁니다. 공동체도 이루고, 돈도 벌고 좋은 일이지요.”

금샘 사랑방 문화클럽은 1997년 5월부터 부산광역시와 금정구의 위탁을 받아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6년전 10가구 주민들로부터 시작된 ‘금샘 사랑방 문화클럽’이 현재는 지역단위의 마을 서비스센터로서의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을 만들기의 힘과 성과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런 점에서 금샘마을 사례는 더욱 깊이 음미해볼 만한 사례다.

2. 일반주택지에서의 마을 만들기 사례

단독주택지에서의 마을 만들기는 주로 집 앞 골목이나 장소에 대한 주민들의 특별한 관심과 애착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화초 가꾸기를 좋아하는 한 주민이 집 앞에 화분을 내놓은 것이 계기가 되어 온 골목이 꽃길로 꾸며진 경우라든가, 주민 한 사람의 담 허물기에서 시작된 골목 가꾸기가 이웃으로, 동네로, 전 도시로 확산되어간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골목길을 되돌려주기 위해 ‘차 없는 골목’을 운영하거나, 통학로의 개선을 모색하는 경우도 일반주택지에서 종종 볼 수 있는 마을 만들기 사례중의 하나다.

1) 대구 삼덕동: 골목 가꾸기 실험

대구시 중구 삼덕동3가에는 평범해 보이지만 여느 골목길과는 사뭇 다른 골목이 한 곳 있



담을 허물고 새롭게 조성된 골목공원

다. 골목에는 작지만 사람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며, 그곳에서 아이들은 마음껏 뛰어 논다. 이 곳이 바로 1999년 한 해 동안 마을 만들기 와 관련해 세간의 많은 관심을 받았던 골목 가꾸기 실험의 현장이고, 단독주택의 담을 허문 뒤에 새롭게 태어난 ‘골목공원’이다. 극히 평범한 주택 한 채가 이러한 명소가 되었던 것은 이 일에 헌신적으로 매달린 사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시민운동가

인 대구 YMCA의 김경민 국장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는 1996년 10월에 대지 100평 규모에 30평 정도의 마당과 점포가 딸린 2층 단독주택에 세를 들어왔다. 장인 소유의 주택을 통째로 빌려 살던 친구가 김천으로 귀농하자 그 집에 전세를 들어간 것이다. 이 곳으로 이사와 살면서 김경민 국장은 단독주택에서 사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해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담을 확 트면 정원도 넓게 보이고 햇볕도 많이 들어와서 참 좋을 터인데… 더구나 어차피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밖에서 지내는 것을 생각하면 이 공간을 우리 부부만 즐긴다는 것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었다. 점차 이러한 생각은 구체화되어 1998년 11월초에 드디어 담을 허물게 된다. 담을 헐면서 그가 가졌던 생각은 골목공원이 있으면 동네 주민들, 특히 주부들이 자연스럽게 모여서 대화도 나누고 아이들이 와서 놀 수도 있어 삭막한 골목이 나름대로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였다.

담을 허무는 작업은 단순히 담을 없애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았다. 담을 허문 뒤에도 개인공간이었던 마당을 골목공원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공원의 진입구와 동선 및 배치시설 등을 이용자 중심으로 조성해야 했기 때문이다.

또한 그는 담을 허물어 공원을 가꾸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그곳에 여러 가지 내용을 채워 넣고자 했다. 주민이 공감하고 함께 즐기며, 서로의 느낌을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했던 것이다. 꾸러기 환경그림대회, 담장 벽화 그리기, 녹색가게 및 초록화실, 인형극 공연 등이 바로 그것이었다.

꾸러기 환경그림대회는 1998년 11월 초부터 15일간 동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환경그림을 접수받아, 11월 21일부터 28일까지 골목에서 전시하고, 시상식도 이곳에서 이루어졌다. 김경민 국장에 따르면, 꾸러기 환경그림대회를 계기로 주민들은 이웃과 자녀의 친구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골목의 존재에 대해서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실제로 전시 기간 동안만큼은 골목길의 주차문제가 저절로 해결되었다고 한다.

골목 이곳 저곳에 벽화가 그려지기도 했다. 골목공원 바로 앞의 청소년 쉼터 담장에 스톤 스프레이를 사용한 암각화가 그려졌고, 동네 아이들이 주워온 병 뚜껑으로 녹색가게의 벽면에 병 뚜껑 벽화가 그려졌으며, 골목 반대쪽 입구의 유기농산물 매장 벽면에는 녹두, 참깨, 밥풀 등으로 제작한 벽화 ‘밥은 하늘입니다’가 모습을 드러냈다. 이 밖에도 톱밥에 본드와 물감을 섞어 제작한 ‘해와 달이 된 오누이’와 동네 꼬마들이 그린 마을지도벽화를 골목 구석구석에서 볼 수 있으며, 계속해서 마을 주민의 동의를 얻어 벽화 그리기 작업이 확대되고 있다.

반갑습니다. 도시연대 <주민참여 마을학교>입니다.

녹색가게와 초록화실도 꾸며졌다. 그동안 방치되어 있던 5평 정도의 점포를 수리해서 물물 교환 형식의 재활용 가게로 만들어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접촉 통로로 활용하였고, 주택의 지하층에 개설한 초록화실 또한 아이들과의 접촉을 통해 주민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었다. 이 밖에도 골목공원에서 인형극이나 연극을 공연하여 골목공원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기도 했다.

골목공원에 대한 관심과 파장은 점차 확대되어 대구시민들과 언론으로부터 주목을 받게 되었으며, 마침내 대구지역내 시민사회단체와 대구시가 공동으로 전개하는 '대구사랑운동 시민회의'의 주요사업으로 담 허물기가 채택되기에 이르렀다. 담을 허물겠다고 신청하면 담을 허무는 과정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대구시에서 처리해 주고, 허물고 난 뒤의 조경을 위해 조경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 자문위원회도 구성되었다. 조경에 필요한 나무는 대구시 임업연구소에서 일부 제공한다는 원칙도 세워졌고 담을 허무는 데 필요한 인력은 공공근로요원을 투입해서 해결하고 있다.

대구시의 이러한 대응은 대형 건물, 공공건물, 개인주택에 이르기까지 많은 곳에서 담 허물기 운동을 더욱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삼덕동3가 동사무소가 담을 허물어 주민들이 언제나 이용할 수 있는 편안한 휴식공간을 갖추게 되었고, 골목공원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남창수씨 소유 주택도 담을 허문 뒤 또 다른 골목공원을 조성하였다.

1999년 12월초까지 '대구사랑운동 시민회의'의 사무국인 대구시 내무국이 각 구청을 통해서 담 허물기를 원하는 공공건물이나 기관, 개인의 신청을 받은 곳은 모두 105곳에 이른다. 담을 허문 곳은 서구청, 남구청을 비롯해 12개 동사무소, 경상감영공원, 국채보상기념공원, 경상여상, 경북대병원, 계명대 동산의료원 등 21곳에 이르며, 담을 허물겠다고 밝힌 곳도 동구청 등 행정기관 37곳, 경북대 치대병원 등 공공기관 5곳이며, 개인소유의 건물도 모두 47곳에 이르고 있다.

2) 사당동 양지공원: 주민의 손으로 만든 공원

서울시 동작구 사당3동 220-6번지 일대에는 다른 마을공원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좁고 기다란 모양의 공원이 하나 있다. 그러나 이곳은 여느 공원과는 다르다. 주민들의 땀과 애정이 스며들기 때문이다. 이곳이 바로 양지공원으로, 주민과 행정과 전문가가 서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함께 계획하고 시공하였으며, 조성이 완료된 후에는 행정과 주민이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는 곳이다.

원래 이곳은 1,870㎡(567평)의 도로부지로 구획되어 있던 곳으로, 도로가 다른 곳으로 개설되면서 공공용지로 10년 이상 방치되어 있었다. 방치된 공지를 주민들은 마을공원으로 이용하고 있었으나 시설이 불량하고 관리가 소홀할 뿐만 아니라 쓰레기 무단투기 및 청소년 우

범지대로 인식되어 동작구청에서는 이곳을 정비하여 공용 주차장으로 조성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주민들은 주차장을 만들 경우 골목길에 빈번하게 드나들게 될 차량통행으로 인해 어린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매연, 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여 주차장의 설치를 적극 반대하고 나선다. 인근 주민 약 200여명이 참여한 '주차장 설치 반대위원회'가



주민들의 손바닥 도장 제작

조직된 것도 이 무렵이다. 주차장 설치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동작구청에서는 대안으로 대상지의 일부를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나머지를 마을 마당으로 조성하는 대안을 제시했으나 주민들은 이에 대해서도 반대하였고 결국 대상지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되었다.

공원계획을 담당하게 된 서울대 농업개발연구소의 김성균 교수는 공원의 설계과정에 주된 이용자인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보자는 의견을 서울시에 제안하였으며, 이러한 제안이 받아들여져 양지공원부지가 시범지역으로 선정되기에 이르렀다. 동작구청과 김성균 교수는 사당3동사무소를 통해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대표를 모집하였으며, 이 결과 주민 12명이 참여의지를 표명했다. 주로 주차장 설치 반대운동을 주도했던 주민들이었다.

공원계획은 1998년 2월부터 1999년 7월까지 약 17개월 동안 기본구상단계에서 실시설계 단계까지 4단계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계획이 마련되기까지 총 6회에 걸쳐 워크숍이 진행되었으며 주민이 의견을 제출하면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한 대안을 마련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계획과정에서 전문가와 동작구청은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려는 자세를 보였으며, 주민들이 제안했던 정자, 어린이 놀이터, 꽃밭 조성 등이 모두 계획에 반영되었다.

주민참여는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계속되었다. 주민들은 특히 워크숍을 통해 제기했던 자신들의 의견이 공사에 반영되는 지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주민과 시공업체가 자연스럽게 만나 서로간의 이해를 거쳐 마을마당의 착공에서 준공까지 주민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었고, 시공현장에는 '주민감독관' 배치로 이어지게 되었다.

시공과정에서도 양지공원에 대한 주민들의 애착심을 높이기 위한 갖가지 아이디어가 도출되었다. 다목적 운동공간의 계단에는 주민들 30여명이 참여하여 찍어낸 손바닥 도장 문양이 새겨졌으며, 청소년 공간 주변에는 사당중학교 학생 20여명이 참여하여 그린 그림을 도자기 판으로 만들어 게시하였다.

때로는 시공과정에서 주민들이 계획변경을 요구하기도 했는데, 행정과 전문가는 이러한 요

반갑습니다. 도시연대 <주민참여 마을학교>입니다.

구에 대해 매우 유연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대표적인 예로 이미 공사가 끝난 마을마다 진입계단을 주민들 요구로 위치를 옮겨 다시 공사한 일이 있었다. 자기 집 앞에 바로 계단이 있어 번잡해지고, 주차하는 데도 불편하다는 주민의 의견 때문이었다. 담당 공무원은 고민 끝에 계단을 옮겨 공사해주도록 건설업체를 설득하였으나 공사를 다시 할 경우 추가 공사비가 소요된다는 이유로 건설업체는 난색을 표했다. 그러나 주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구청의 성의를 배려하여 결국에는 공사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완공된 공원은 현재 주차장 설치 반대운동을 벌였던 주민들 20여명으로 구성된 '공원자율관리위원회'에서 조직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일상적인 관리나 방법활동을 하고 있으며, 공원의 훼손에 따른 보수 등은 구청에서 실시하고, 공원의 청소 등의 업무는 동사무소에서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 '공원자율관리위원회'가 일상적인 관리나 방법활동을 위해 필요한 방법초소 설치, 전기료 등의 비용은 공원주변의 30여 가구 주민들로부터 회비를 모아 충당하고 있다.

3) 전농동: 차 없는 골목 만들기

골목길은 원래 아이들 차지였다. 친구들과 어울려 공놀이를 하고, 술래잡기를 하는 곳도 골목길이었고, 집안에서 머물던 시간보다도 훨씬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도 또한 골목길에서였다.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골목길은 더 이상 아이들이 놀지 못하는 곳, 놀아서는 안 되는 곳으로 바뀌고 말았다. 아이들 대신 자동차들이 골목길을 온통 차지해버렸기 때문이다. 골목길에서 맘껏 뛰노는 아이들을 바라보는 것은 어쩌면 아득한 기억 속에서나, 아니면 꿈속에서나 가능한 일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런 꿈같은 일이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1동에서 벌어졌다.

1996년 3월 15일 전농동의 한 골목길이 온통 아이들 차지가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즐거움은 1998년 가을까지 매월 15일에 계속 반복되었다. 전농1동의 '차 없는 골목 만들기'가 바로 그것이다.

전농동의 차 없는 골목 만들기의 시작은 1996년부터 전농1동사무소에서 근무하기 시작했던 최세욱 동장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최동장은 평소부터 주택가 골목길의 주차로 인해 아이들



차없는 골목에서 노는 아이들

이 마음껏 놀 수 있는 공간이 없음을 아쉬워했고, 잠시만이라도 아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보자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꿈을 실현해보고자 했던 최동장에게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던 것은, 동장의 뜻에 공감하고 자신 소유의 공터를 주차공간으로 선뜻 내놓은 이 동네 토박이 오충환씨였다. 별도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게 되자 1996년 3월부터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모두 옮기고 차량을 통제 한 뒤 매달 15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아이들의 놀이공간으로 내주게 되었다.

정해진 시간이 되면 동장과 4명의 직원들이 각종 놀이기구와 장비들을 차에 싣고 왔다. 차량통제시설을 설치한 뒤 팽이, 제기, 훌라후프, 굴렁쇠 등의 놀이기구를 아이들에게 나누어주고 골목 어귀에는 작은 농구대도 설치해 주었다. 처음에는 나와서 놀라고 해도 아이들이 익숙하지 않아서인지 잘 모이지도 않고, 놀지도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동장과 직원들이 직접 놀이 방법을 가르쳐주고 함께 놀아주며 아이들이 재미를 붙이도록 유도했는데, 처음에는 어색해 하던 아이들도 제기차기, 팽이치기, 굴렁쇠 굴리기, 비석치기, 자치기, 고무줄놀이, 줄넘기와 같은 전래 민속놀이에 점차 재미를 붙였고 참여율과 호응이 갈수록 높아갔다.

주민들의 반응이 처음부터 호의적이지는 않았다. 행사 하루 전에, 아이들 노는 날이니 차를 빼달라는 공고문에 따라 차를 다른 곳으로 옮기기는 하였으나 자신의 집 앞에 주차하지 못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고, 아이들이 모여 노는 소리를 소란스럽다고 하며 싫어하는 주민도 있었다. 어떤 주민은 “아이 학원 가는 시간에 이런 걸 만들어 놓아 애들이 학원을 안가고 거기서 놀고 있다”며 불평하기도 했다고 한다.

그러나, 부정적인 시각을 가졌던 주민들의 마음이 서서히 바뀌게 된 것은 막상 자신의 아이들이 즐겁게 노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부터였던 것 같다고 최동장은 회상하고 있다. “자기 자식이 자신들이 했던 어린 시절의 놀이를 하며 재미있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렸을 적 놀던 추억에 잠기기도 하고 동네 아주머니와 할머니들끼리 옛날 이야기를 나누는 훈훈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한다. 이렇게 주민들의 호응이 높아지면서 활발히 진행되던 전농동 ‘차 없는 골목’ 행사는 1998년 최세욱 동장이 다른 동으로 진출되고, 겨울이 다가오면서 중단되고 말았다.

3. 기타지역에서의 마을 만들기 사례

기타지역에서의 마을 만들기 사례로 상점가 마을 만들기 사례와 재건축 지역에서의 마을 만들기 사례를 들 수 있다. 상점가에서의 마을 만들기는 쇠퇴하거나 침체되어 가는 지역상권을 상인들이 힘을 모아 되살리기 위한 자구 노력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고, 활동의 내용도 상가 거리를 특색 있게 꾸리는 거리 가꾸기 형태로 모아진다. 재건축지역에서 마을 만들기 사례는 많지 않으나, 세대수를 늘려 개인부담을 줄이는 대신 쾌적한 주거환경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상인들이 설치한 분수대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고층, 고밀화로 치닫는 기존의 재건축사업들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희망을 느끼게 해준다.

1) 인천 부평시장: 문화의 거리 만들기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199번지 일대의 부평 재래시장에는 길이 270미터, 폭 16미터의 문화의 거리가 조성되어 있다. 이곳에 조성된 문화의 거리는 쇠퇴해 가는 지역상권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했던 지역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끈질긴 요구가 얻어낸 값진 결실이다.

이곳에 문화의 거리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을 보면, 1990년대 들어 증가하기 시작한 대규모 백화점과 대형 할인매장의 입지와, 부평역 지하상가의 대형화로 야기된 부평 재래시장의 쇠퇴에 자극을 받은 상인들의 위기감 확산에서부터 비롯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가번영회의 인태연 사무국장을 중심으로 지역내 젊은 상인들이 모여 '부평시장 문화의 거리 발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문화의 거리 만들기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지역상권의 회복을 위한 방안으로 '문화의 거리' 조성에 뜻을 모은 상인들은 1996년 7월에 부평시장 중앙로를 '문화의 거리'로 지정해줄 것을 구청에 탄원하였다. 그러나 당시 부평구청은 이에 대해 아주 모호한 내용의 회신을 보내왔는데, 100여개소에 이르는 노점상의 처리문제 때문이었다. 부평은 일찍부터 노점상의 천국으로 알려져 좌판의 권리금만 해도 수천만원을 넘었고, 이들의 세력 또한 무시하지 못할 정도였기 때문이었다.

문화의 거리 발전추진위는 1996년 9월까지 7번에 걸쳐 부평구를 비롯한,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등에 계속해서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그 결과 그 해 10월에 부평구에서는 상인들의 문화의 거리 조성 요구를 수용하게 되고, 11월에 들어서서 부평구청장과 상인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다음해인 1997년 2월부터 부평시장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이 본격화되기 시작했으며, 3월에는 사업일정이 확정되었다. 1997년 9월에 부평구청에서 번영회가 참석한 가운데 문화의 거리 조성계획안에 관한 설명회가 열렸고, 10월에는 공사가 시작되어 6개월에 걸친 공사 끝에 1998년 3월에 문화의 거리 조성이 마무리되었다. 문화의 거리 공사가 시작되자 상권이동

대한 불안감을 느낀 인접지역 상인들로부터 항의 소동이 빚어지기도 하였다. 문화거리 조성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은 대부분 구청예산으로 실시되었으나 상인들도 6천만원의 비용을 들여 상점가에 분수대를 설치하는 등 직접 참여하는 활동을 보였다.

부평 문화의 거리가 조성된 후에도 노점상과 상인과의 갈등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1999년 1월과 3월 2차에 걸쳐 상인과 노점상, 행정이 참여하는 '문화의 거리 발전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이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2) 한강 복지아파트: 주거환경을 생각하는 재건축

서울시 용산구 동부 이촌동 제1한강교 바로 근처, 한강을 내려다보고 있는 지역에서 한강 복지아파트 재건축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이 아파트 단지의 조감도에서 비춰지는 재건축후의 단지 모습은 지금까지 다른 지역에서 보았던 모습과는 많은 면에서 달라 보인다. 넓고 시원한 외부공간과 주동의 중간부를 필로티로 개방하여 설치한 공중공원 등이 보기에도 시원한 느낌을 준다. 이 단지가 이러한 모습을 지닐 수 있었던 것은 재건축조합을 결성한 단지주민들이 좋은 외부공간과 쾌적한 실내공간을 갖기 위해 주민합의를 거쳐 개발밀도를 낮추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처음 재건축 움직임이 일기 시작한 것은 1996년이었다. 당시 복지아파트는 건설된 지 20년 이상 경과되어 매우 낡았고, 설비 또한 노후되어 생활하기에 불편한 점이 많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지내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재건축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만들어진 초기안은 용적률이 400%에 가까운 고밀개발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이러한 초기안에 대해 재건축조합장은 기존 세대수에 추가해서 250가구 이상을 일반 분양해도 얻게되는 수익이 크지 않은 반면, 주민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토지지분이 적어진다는 점을 인식하고, 밀도를 높이지 않는 재건축 방식을 주민들에게 제안하게 되었다.

조합장의 의견에 많은 주민들이 공감하게 되어 아파트 단지 주민대표회의에서는 용적률 398%에 30층의 고층 아파트를 계획했던 최초의 재건축 계획을 변경하여 밀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재건축을 추진할 것을 결의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조정된 계획안을 보면 세대수는 재건축 이전보다 13세대 증가한 309세대로 결정되었고, 용적률도 초기안에 비해 100% 가까이 감소한 295%로 낮아졌다. 주동의 수도 20층 내외 건물 4동으로 감소하여 결과적으로 건축면적이 줄어들고 외부공간은 넓어졌다.

한강 복지아파트 재건축주택조합의 전상수 총무는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 한 세대에서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1억원 이상이었지만, 외부공간이 좋은 것으로 알려지면서부터 공사가 시작된 후에 실제로 평당 1,000만원 이상의 가격상승 효과를 거두었다"고 말하고 있어, 밀도를 높이지 않는 재건축이 주민들이 생각하는 재산가치에도 만족스러운 성과를 거두었음

반갑습니다. 도시연대 <주민참여 마을학교>입니다.

을 알 수 있다.

한강 복지아파트의 경우 주민들이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를 지닌 계층이었다는 점에서 조금은 특수한 사례로 볼 수도 있겠으나, 주거환경의 질을 우선시하는 것이 재산가치 상승에도 직결됨을 보여주고 있어, 향후 재건축과 관련된 마을 만들기의 가능성을 밝게 해주는 의미 있는 사례라 할 수 있다.

4. 사례조사의 종합 분석

마을 만들기 사례를 연구하는 데 있어 가장 궁금한 점은 어떤 상황에서, 누가, 무엇을 목적으로 마을 만들기를 시작했는지를 알아내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마을 만들기의 구체적인 동기가 무엇이었고, 마을 만들기의 시작과 전개과정에서 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마을 만들기는 다양한 상황에서 서로 다른 이유로 시작되고, 각 사례마다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주체들도 조금씩 다르다. 마을 만들기를 더욱 확산시키고, 성공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마을 만들기의 동기와 주체를 정리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1) 마을 만들기의 동기

마을 만들기를 시작하게 되는 이유와 목적, 동기는 사례마다 조금씩 다르다. 사례조사를 통해 분석해본 마을 만들기의 동기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시작된 경우로 마을 만들기 사례 가운데 가장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여러 지역에서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문화공간이나 체육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 주민 공용공간 만들기가 많은 아파트 단지에서 전개되고 있고, 사당2동의 양지공원 사례처럼 동네 골목길이나 장소를 활용하여 주민공간으로 가꾸어 가는 많은 사례들이 주택가에서 벌어지고 있다. 용적률을 크게 낮추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한강 복지아파트 사례도 궁극적으로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염두에 둔 생활환경 개선 목적의 마을 만들기 사례로 볼 수 있다.

둘째는, 공동체적 삶의 회복을 위해 시작된 마을 만들기의 경우다. 철저히 개인화되고 개별화되어 살아가는 황량한 도시삶의 방식에서 벗어나,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공동체적인 삶을 구현하기 위한 시도로서 개인이나 몇몇 주민들에 의해 마을 만들기가 시작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대구시 삼덕동3가 골목 가꾸기 사례와 부산 금샘마을 사례가 가장 대표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 삼덕동 사례는 골목 공동체 회복을 위해 개인주택의 담을 헐었던 한 시민

운동가의 모험적인 행동에서 시작된 마을 만들기가 1년 만에 도시 차원의 담 허물기 운동으로 확산되었고, 부산 금샘마을 사례 역시 생활공동체 문화를 꿈꾸던 몇몇 주민들이 1993년 초에 '금샘 사랑방 문화클럽'을 창립한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7년 동안 지속되어 왔다. 시민단체의 주도로 시작되었던 중계동의 녹색 아파트 만들기 사례도 공동체적 삶의 회복을 목적으로 시작된 마을 만들기로 볼 수 있으나, 주민들의 소극적인 참여로 인해 지속되지 못한 경우다.

셋째는,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시작된 마을 만들기의 경우로 부평 재래시장의 문화의 거리 조성 사례를 비롯한 상점가 거리 가꾸기 사례가 최근 늘고 있다. 이들 지역들은 대부분 상대적으로 시설이 낙후된 곳으로, 주변에 각종 대규모 백화점이나 할인점과 같은 현대식 상가들이 들어서면서 점차 쇠퇴과정을 겪게 되는 지역들이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한 시장 상인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어, 고객을 끌어들이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하거나 지역환경 개선사업을 펼치는 등의 상권회복 차원의 마을 만들기 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넷째는, 어린이들에 대한 배려에서 시작된 마을 만들기의 경우로 어린이들의 안전 문제나 놀이공간 확보가 계기가 되어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전농동 차 없는 골목 만들기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주택가 골목길이 점차 자동차에게 점령당하면서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고 있는 현실을 안타깝게 여긴 주민들이 골목길에서의 차량통제를 목적으로 마을 만들기를 시작하는 경우가 점차 늘고 있다. 이 밖에도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통학로 정비에 주민들이 나서는 경우도 적지 않다.

2) 마을 만들기의 주체

마을 만들기를 시작하고 이끌어 갈 가장 핵심적인 주체는 당연히 주민이다. 주민과 함께 마을 만들기에 참여하는 시민단체나 외부 전문가, 또는 행정기관은 마을 만들기의 주체라기보다는 주민을 도와주고, 방향을 제시해주며, 필요한 정보나 기술을 제공해주고, 관계를 조정해주는 것과 같은 조역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때로는 주민이 아닌 외부 지원그룹이나 행정이 주도하여 마을 만들기가 시작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시민단체의 주도로 시작되었던 사례들은 주로 지역운동이나 주민운동 차원에서 시민단체가 주민조직과 함께 마을 만들기 활동을 시작한 경우이고, 외부 전문가나 행정기관이 주도했던 경우는 대부분 계획을 세우거나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깨어있는 의식을 지닌 전문가나 전향적인 자세의 행정기관이 주민들의 참여와 역할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유도했던 경우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마을 만들기 사례들을 시작 주체에 따라 구분하고, 그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주민으로부터 시작된 마을 만들기의 경우다. 주민으로부터 시작된 마을 만들기는

대부분, 일상 생활환경의 문제를 개선하거나 공동체적 삶을 추구하기 위한 시도로서, 주민 개인이나 주민조직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풀어나가는 과정으로 마을 만들기가 진행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대부분 시작 동기가 분명하고, 주민들이 비교적 마을 만들기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참여가 능동적으로 이루어지고, 마을 만들기의 진행과정 또한 활발하게 전개된다.

주민으로부터 시작된 마을 만들기 사례들 가운데에는 부산 금샘마을, 대구 삼덕동 및 한강 복지아파트 사례처럼 처음부터 외부의 지원 없이 주민 스스로의 힘으로 진행된 경우도 있고,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나 부평 문화의 거리 사례처럼 행정기관과의 관계 속에서 마을 만들기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둘째는, 시민단체나 외부 전문가로부터 시작된 마을 만들기의 경우다. 시민단체로부터 시작된 마을 만들기는 주민들의 자발적 의지보다는 시민단체의 사회적 이슈 제기나 활동의 일환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예로 중계동 주공 아파트의 녹색 아파트 만들기 사례를 들 수 있다. 이렇게 시작된 마을 만들기 사례 중에는 주민들의 요구나 참여 의지가 무르익지 않은 상황에서 시민단체의 일방적인 주도로 마을 만들기가 전개되어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일시적 활동에 그치는 경우도 있다.

외부 전문가의 발의나 적극적인 역할이 계기가 되어 마을 만들기가 시작되는 사례들은 대부분 행정기관의 계획이나 설계용역을 맡아 수행하는 전문가가 주민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주민들이 실제로 계획이나 설계과정에 깊이 참여했던 경우다. 대표적인 예로 동작구 사당3동 양지공원 사례를 들 수 있다. 양지공원 사례는 주차장 설치 반대운동을 겪으면서 결속된 주민조직의 의지와 참여욕구가 특별히 두드러지기도 하지만, 철저한 주민참여 과정을 거치면서 공원을 계획하려 했고 실제로 행정과 주민 사이에서 충실한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던 전문가의 역할이 특히 부각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셋째는, 행정으로부터 시작된 마을 만들기의 경우다. 행정으로부터 시작되는 마을 만들기는 행정기관이 계획수립이나 사업 추진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거나, 마을 만들기 관련된 활동을 주민에게 제안하고 함께 추진하는 경우로, 전농동의 차 없는 골목 만들기가 여기에 해당한다. 전농동 사례는 동장의 적극적인 의지와 제안에 대한 주민들의 동조로 시작되었으나, 대다수의 주민들이 수동적인 자세에 머물렀던 탓에 동장의 전출 이후 지속되지 못하고 중단되기에 이른다.

3) 마을 만들기의 성공요인

다양한 지역에서 서로 다른 계기나 목적으로 시작되어, 다채로운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마을 만들기 활동의 일반적인 조건이나 성공요인을 명확히 밝혀내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마

을 만들기 활동에 참여했던 각 주체들의 역할과 상호관계 분석을 통해 마을 만들기의 성공요인을 어느 정도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사례를 통해서 본 마을 만들기 활동의 참여주체는 주민과 행정, 그리고 외부 전문가 또는 시민단체 등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들 세 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민과 행정 또는 주민과 외부 지원세력 등 두 주체간의 관계를 통해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외부의 지원 없이 주민들만의 힘으로 이루어진 사례들도 적지 않다. 마을 만들기를 성공으로 이끄는 전제가 될만한 각 주체별 역할 및 상호관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주민 개개인이나 주민조직 특히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다. 마을 만들기는 주민 개개인의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되기도 하고, 부녀회나 번영회와 같은 주민조직 차원의 공동체적 활동을 통해 전개되기도 하며, 때로는 역량 있는 리더의 헌신적인 역할에 힘입어 결실을 맺기도 한다. 대구시 삼덕동 '골목 가꾸기' 사례는 개인차원에서 시작된 작은 행동이 이웃과의 교감을 통해 동네와 도시로 확산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사례는 부녀회를 중심으로 결속된 주민조직 차원의 노력이 결실을 거두게 된 좋은 예다. 부산 금샘마을의 경우 뜻을 같이하는 소수의 주민들로부터 시작된 마을 만들기가 단지차원을 넘어 지역으로 확산되기까지는 리더의 헌신적인 역할이 특히 중요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반면, 전농동 '차 없는 골목 만들기' 사례는 주민조직 차원의 뒷받침이 없는 상태에서의 리더 개인 역할이 갖는 한계를 잘 드러내는 경우라 할 수 있다.

둘째, 주민들과 함께 마을 만들기 활동에 참여하거나 도와주는 시민단체나 외부 전문가의 역할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계동 주공아파트의 경우처럼 주민들의 동기부여나 자생적인 역량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의 역할이 지나치게 앞서거나 강조될 경우, 마을 만들기가 지속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주민과 행정 사이의 중재자로서의 역할도 외부 시민단체나 전문가가 담당할 몫이라 할 수 있다. '양지공원' 사례는 주민들의 결속력과 참여가 특히 부각되는 사례이지만, 공원 만들기의 전 과정을 주민참여를 통해 진행하면서 주민과 행정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성실히 수행했던 전문가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경우라 할 수 있다.

셋째, 행정의 대응방식 및 지원 역할 또한 마을 만들기의 성공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마을 만들기에 필요한 재정 지원과 같은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행정도 필요하겠지만²⁾, 작게는 주민들과 직접 접촉하는 일선 실무자들의 유연하고 능동적인 대응방식이나 태도가 중

2) 미국의 경우 많은 도시들이 마을 만들기 지원업무를 전담하는 행정조직으로 마을과(Dept. of Neighborhood)를 두고 있고, 마을 만들기 지원기금(Neighborhood Matching Fund)을 설치하여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일본 역시 전담 행정조직(まちづくり센터, まちづくり지원실 등)과 조례(まちづくり條例) 제정을 통해 마을 만들기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반갑습니다. 도시연대 <주민참여 마을학교>입니다.

요한 관건이 되기도 한다.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의 경우 주민들의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했던 구청의 대응방식이 돋보이며, 대구시 삼덕동의 '골목 가꾸기' 운동이 확산되는 데에는 동사무소와 시청의 전향적인 대응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반대로 부평 '문화의 거리' 사례처럼 행정의 소극적인 자세나 유연하지 못한 대응방식으로 인해 마을 만들기가 난관에 처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마을 만들기 지원행정이 뿌리내리지 못한 우리의 현실을 감안할 때, 행정의 대응방식 여하에 따라 마을 만들기의 확산과 성패가 크게 좌우될 수 있다는 점에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이다.

Ⅲ. 마을 만들기 사례가 주는 시사점

최근 우리나라에서 다채롭게 전개되고, 확산되어 가는 수많은 마을 만들기 사례들은 마을 만들기의 전망을 밝게 해준은 물론,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단위 도시계획의 가능성을 밝게 해주고 있다. 30년 이상 계속되어온 압축성장시대를 살면서 대다수 주민, 시민들은 개인공간에는 과도하게 집착하는 반면 마을이나 도시공간과 같은 공유공간에 대해서는 지나칠 만큼 무관심한 일종의 집단 병리현상에 빠져 있었다³⁾. 마을 만들기는 우리들이 앓고 있는 이러한 중증 질병을 치유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마을과 도시를 스스로 만들어 가는, 이른바 삶터자치, 삶터 민주화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아직 낙관하기엔 이르다. 비록 그 숫자는 늘고 있지만 마을 만들기는 아직 특수한 곳에서,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이례적인 일로 여겨질 만큼 보편화, 대중화되지 못하고 있다. 마을 만들기를 주도하는 주민들은 물론, 이들을 돕는 시민단체나 외부전문가 그리고 행정기관 역시 아직은 미흡한 수준임을 성공에 이르지 못한 많은 마을 만들기 사례들이 잘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마을 만들기를 더욱 확산시키고, 활성화하며, 성공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주민과 행정 및 외부지원세력들이 각각, 그리고 함께 해야 할 일들이 있을 것이다.

우선은, 좀 더 많은 곳에서 마을 만들기가 시작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야 할 것이다. 무관심한 주민들에게는 성공적인 사례들을 홍보함으로써 자극을 주고, 심각한 문제를 앓고 있거나 마을 만들기의 움직임이 있는 곳에는 행정과 외부의 지원이 적절히 더해져야 할 것이다. 이미 활동중인 다양한 주민조직에게도 마을 만들기의 동기부여가 필요할 것이고, 특

3) 아이들이 학교길에서 교통사고를 당하면, 차를 태워 보내는 부모는 많아도 통학로를 안전하게 바꾸려고 나서서 부모는 찾기 어렵다. 집안 인테리어를 바꾸는 데에는 수천만원씩을 투자하면서 공유공간과 시설에는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는다.(정석, 2000, pp. 208-209 및 1999B, pp. 8-9 참조)

히 마을 만들기를 이끌어 갈 리더를 양성하는 데에도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⁴⁾.

다음으로는, 주민들과 함께 현장에서 마을 만들기를 전개하고 지원하는 전문가와 시민단체의 역할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마을 만들기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부딪히게 되는 주민의 조직화나 주민간의 갈등조정 문제를 비롯해 복잡한 법규나 제도,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주민들에게 이들의 도움이 매우 유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많은 시민단체들이 마을 만들기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지역으로 파고 들어가 주민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어 매우 고무적이다. 전문가들도 전문가 이전에 한 사람의 주민,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각성하고 현장에서 이를 실천에 옮기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⁵⁾. 시민단체나 전문가들이 주민들의 활동을 측면에서 돕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자기가 사는 곳에서 '동네사람'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이고, 이런 변화야말로 마을 만들기의 확산과 성공에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행정의 자세 변화와 적극적인 지원역할이 다각도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자치시대를 맞으면서 이미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민참여 및 시민본위 행정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고, 성공적인 사례들이 적지 않게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자치행정의 경험이 풍부하지 않고, 구시대적 행정조직이나 제도 및 관행으로 인해 마을 만들기 지원행정이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다. 사례연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마을 만들기의 성패는 상당 부분 행정의 역할에 달려있고, 특히 마을 만들기의 초기 단계에서 주민들의 요구나 제안에 대한 행정의 전향적인 대응과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공무원 교육, 시민홍보 및 상담, 마을 만들기 지원 프로그램 개발, 시범사업 추진, 조직 정비, 제도적 장치 마련과 같은 마을 만들기 지원행정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실천에 옮겨야 할 것이다.

4) 안양, 수원, 산본, 대구 등 각 지역 YMCA를 비롯해, 견고싶은 도시 만들기 시민연대가 '마을학교'를 개최하여 마을 만들기에 대한 동기부여 및 리더를 양성하고 있고, 참여연대와 열린사회시민연합 등의 시민단체에서도 마을 만들기 지도자 워크숍을 열고 있다. 부산대학교 사회교육원에서 1999년 봄부터 개설하고 있는 '21세기 주민자치·시민운동 지도자 전문과정'도 마을 만들기 리더를 육성하고 있는 좋은 예다.

5) 좋은 예로 2000년 9월 18일 발표된 일산을 사랑하는 시민 100인의 "일산 가꾸기 선언"을 들 수 있다. 리브호텔과 유흥업소 난립 저지운동을 비롯해 초고층 주상복합 건설 반대운동 등 일산 신도시의 여러 현안문제들에 대해 일산에 거주하는 교수, 문화예술인, 언론인, 종교인, 전문가 등 각계 분야 인사 100인이 그 동안의 방관자적 자세에 대해 깊이 참회하며 앞으로는 주민의 입장에서 일산을 지키고 가꾸어 나갈 것임을 선언하였다. (중앙일보, 2000년 9월 19일자 사회면 기사 참조)

반갑습니다. 도시연대 <주민참여 마을학교>입니다.

〈참고문헌〉

견고싶은 도시 만들기 시민연대, 1999, 『문화의 거리 조성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에 대하여: 부평 문화의 거리를 사례로』

김경민, 1999, "나의 조그만 실험: 골목 가꾸기", 『문화도시 문화복지』8: 13-16

동작구청, 1998, 『주민참여형 마을마당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윤혁경, 2000, "도시설계와 상세계획의 반성,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에의 기대", 『지구단위계획의 이해와 활용』, 제1회 한국도시설계학회 세미나 자료집

인태연, 1999, "새로운 삶의 터전, 부평 문화의 거리", 『견고싶은 도시 만들기와 주민참여에 대하여(제1회 워크숍 자료집)』, 견고싶은 도시 만들기 시민연대

정석, 1999A, 『마을단위 도시계획 실현 기본방향(1): 주민참여형 마을 만들기 사례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정석, 1999B, "삶터와 사람을 함께 치유하는 마을 만들기", 『문화도시 문화복지』12: 8-9

정석, 2000, "새천년, 삶터 재구축 운동의 대안: 마을 만들기", 『21세기 환경과 도시』, 서울: 민음사

참가자와 함께

정석 박사님의 강의 후 이루어진 질의·응답을 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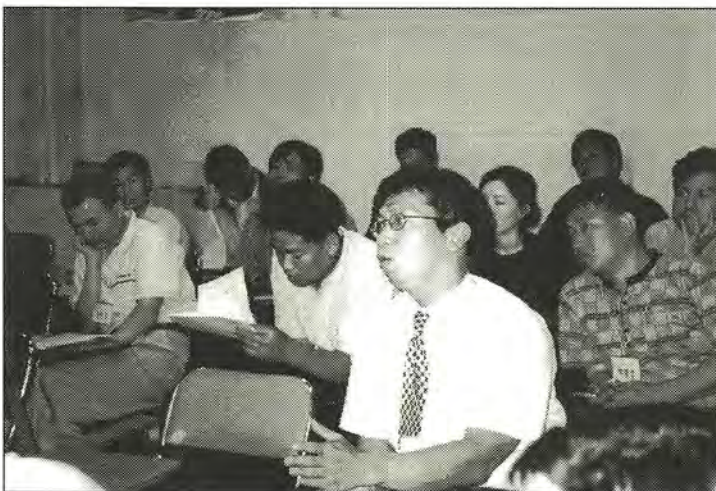


반갑습니다. 도시연대 <주민참여 마을학교>입니다.

정 석: 제가 사는 일산에는 보행자 도로가 잘 되어 있어서 자전거나 킥보드, 롤러 브레이드를 안심하고 탈 수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롤러 브레이드를 타면서 동네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거지로서의 동네는 출근하는 곳, 퇴근해서 잠자는 곳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시간은 직장에서 보내지요. 이러면서 내가 사는 마을을 많이 잊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한번쯤 내가 사는 마을에서 그 마을에 대한 꿈을 꾸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 시간을 계기로 '우리 동네는 어떠했으면 좋겠다' 는 꿈을 꾸어 봅시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행정가의 힘을 기대하지 말고 스스로 도전해 봅시다.

참가자: 사례들을 보면 대체로 의식주 문제와 같은 경제적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이후 갖는 문화적 욕구를 실현하기 위한 마을만들기 활동들인데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동네에 사는 몇몇 집이 뜻이 맞으면 할 수 있는 낮은 단계의 활동 아닌가요?

정 석: 마을만들기에 대한 평가는 좀 더 시간이 흐른 다음 찬찬히 했으면 합니다. 마을만들기가 다양해지고 늘기까지는 엄밀한 시선보다 다양한 시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본의 마치즈쿠리를 환상적일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을만들기는 공동체 회복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동체 회복이라는 데에 너무 기계적으로 포커스를 맞추면 지금 일어나는 움직임마저 쇠퇴할 것입니다. 촌락사회에 대한향수도 있지만 부정적 시각도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현재 도시는 매우 편리합니다. 익명성이 보장되기에 개인적 취향에 따라 행동해도 별 침해를 받지 않죠. 이런 상황에서 마을만들기는 부담스럽고 귀찮은 것이지요. 또 신경써야 할 것도 많고... 그러니 "너나 해라"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직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볼 때 아직은 우리의 마을





만들기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재단하기 보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봤으면 합니다.

참가자: 이동이 심한 도시의 경우 마을만들기 활동을 하기가 어려운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 석: 저도 10년동안 4번 이사했습니다. 우리는 이사를 참 자주하는 편이지요. 전세금 때문에 이리저리 밀려 다니는 것이겠지요. 제가 근무하는 시정개발연구원은 남산에 있습니다. 저희 집은 일산인데 출퇴근하는데 3시간에 가까운 시간을 할애합니다. 그런데도 저는 일산에 살고 싶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쌓아 온 이웃과의 관계를 쉽게 버리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물리적 조건때문에 삶을 옮겨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도 자신을 둘러싼 이웃, 삶터와의 끈끈한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키워나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참가자: 저는 하남시에 살고 있는데 하남시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노후생활 환경에 적합하겠다 라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오늘 강의 무척 잘 들었고요. 이러한 마을만들기에 대한 특별지원법이나 각종 법규, 그리고 재정적 지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체계가 있습니까?

정 석: 아직은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마을만들기 활동이 계속해서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제도화되고 지원을 위한 체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참가자: 박사님의 강의를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를 질문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용어에 대한 질문인데요. 마을만들기 관련해서 표현하는 용어들이 각자 매우 다양한 것



같습니다. 마을가꾸기, 동네만들기, 혹은 동네가꾸기 등. 지금 도시적인 정서가 보편적인 상황에서 '마을'이라는 단어보다 '동네'라는 단어가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드릴 질문은 행정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방식에 있어 기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도시도 좋지만 농촌의 경우에 샬터와 일터가 비교적 같은 범위에 있고 사람들도 도시보다는 덜 이질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을만들기를 농촌쪽에서 활성화시켜도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경제적 지원을 늘려서 "제2의 새마을 운동"으로 펼쳐보는 것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정 석: 우선 두번째 질문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고건 시장도 일전에 마을만들기를 하고자 하는 곳에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제가 아주 반대를 했습니다. 즉, 돈이 없어서 마을만들기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돈이 개입되면 오히려 그 뜻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쌓이지 않는 상태에서 '돈'을 지원하면 건물을 새로 다듬고 번듯한 시설을 만들어서 환경을 변화시키기는 하겠지만 그 속에서의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될 지, 주체가 되어야 할 주민은 얼마나 성숙해 질 수 있을 지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재정적 지원은 이후 추이를 보면서 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용어에 대한 제 의견은 예전에도 말씀 드린 바가 있는데 저도 '만들기'와 '가꾸기'를 놓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가꾸기'라는 말은 좋기는 하지만 뭔가 치장한다는 느낌이 커서 의미가 축소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틀을 벗어나서 공동체를 만들고 사람을 만들자는 뜻에서 '만들기'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네'

라는 표현과 '마을'이라는 표현을 생각해 보면 '동네'는 그 지역의 하드웨어적 측면에 국한되어 생각되어 지는 측면이 강합니다. 반면 '마을'은 정주의 영역, 물리적 동네뿐만 아니라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의 역사, 문화, 분위기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을'이라는 표현이 더 적합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편 '마을만들기'라는 단어가 '가꾸기'나 '동네'라는 표현보다 대중적으로 친근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참가자: 사례를 보니 개별화된 생활과 관계를 공동체 관계로 전환하는 인식이 중요하게 작용한 것 같은데요. 이런 공동체적 인식으로 전환 될 수 있는 계기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정 석: 출발은 동네 사람으로서 어슬렁거리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마을과 연애를 시작하는 것이지요. 앉아보고 어슬렁거리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동네를 지켜보는 것이지요. 그러다 동네 아이들도 만나게 되고 한 사람의 주민으로 동네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사귀기 시작되면 알고 지내는 불편함도 있지만 친근감이 시작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움직임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정형화된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답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요.

참가자: 제가 있는 하남시는 생태도시로 가꾸어 가려는 노력이 진행 중인데요. 여기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정 석: 많이 있죠. 동네 꼬마들과 함께 나무에 이름표 달아주기도 할 수 있고요. 아파트 단지에서 생태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캠페인도 할 수 있지요. 요즘 아파트 단지 마당이 주차공간으로만 사용되고 있는데 발상을 전환하면 감수성을 자극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아파트 단지 마당에서 영화상영도 할 수 있고요.

참가자: 서울시 차원에서 마을만들기의 추후 과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정 석: 최근 서울시에서는 북촌 마을을 살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마을만들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행정이 어떻게 풀어가야 할 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마을만들기를 정착하기 위한 방향 제시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민참여 마을학교 3마당

마을만들기 활동 지역탐방 I

대구 삼덕동 골목가꾸기 사례

1998년 담장 허물기로부터 시작하여 꾸러기 그림대회, 골목공원과 마을 미술관 조성 등의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웃과의 교류를 열어가는 장을 제공한 담장 허물기는 대구시 전역으로 퍼져 각 구청, 경북대학교 병원, 학교, 공원을 둘러싸고 있던 담까지도 무너뜨리게 했습니다. 현재 대구 삼덕동은 사라질 위기에 놓인 한옥 한 채를 보수하여 마을 국악관으로 활용할 계획을 하고 실 현에 옮기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 YMCA 녹색가게와 가출 청소년 쉼터, 대구 녹색소비자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힘을 모아 삼덕동 마을만들기를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1998년부터 시작된 대구 삼덕동 지역의 마을만들기!! 그 시작과 현재를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삼덕동 사례소개〉

내 집 마당에서 골목으로, 동네로, 지역으로

〈김경민씨와 함께〉

이 사람의 마을만들기 하는 방법- '그냥 하는 거지요'

〈삼덕동 어귀를 둘러보고 나서〉

내 집 마당에서 골목으로, 동네로, 지역으로⁶⁾

대구 삼덕동 골목 공동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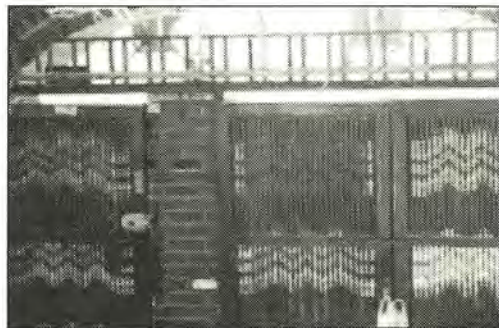
도시연대 주민참여 마을학교 기획팀

대구광역시 중구 삼덕동은 중심지에 위치하면서도 아직 주택가로서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또 이 곳에는 일제시대 당시 교장이 묵던 관사를 비롯하여 오래 된 건물과 한옥들이 남아 있다. 비교적 자본의 흐름에 쉬 동하지 않는 조용한 주택가인 이곳에 1998년, 재미있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내 집 담을 허물다.

대구 YMCA 시민사업국장인 김경민씨는 1996년 10월 경 대지 100평에 점포 1개가 있는 2층집에 세 들어 살게 된다. 장인의 집을 통 채로 빌려 살던 친구가 김천으로 귀농하자 그 집에 전세로 들어간 것이었는데, 정원이 약 30여평이 되었다. 김경민씨 부부는 모두 사회활동을 한다. 아침 일찍 출근하여 퇴근하기 때문에 이 넓은 집과 정원은 하루종일 세상과 단절되어 있을 뿐 아니라 버려진 공간이 되어 버린다. 이런 일상의 반복을 깨고 김경민씨는 본인 집의 마당을 동네 전체의 마당으로 열어 놓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동네 아이, 주부들이 자연스럽게 모여 쉴 수 있는 공원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1998년 11월 초 친구 장인의 허락을 받아 내고 담을 허물었다. 주변에 여러가지 우려와 충고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담이 있더라도



담을 허물기 전의 담

6) 대구 삼덕동의 골목 공동체 활동은 이미 여러 군데에서 소개된 바 있다. 직접 활동한 당사자가 아니기에 삼덕동 주민들에게 누가 되거나 않을까 우려된다. 그러나 이 활동을 소개함으로써 한 사람이라도 더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에 애착을 갖게 되기를 바란다. 그동안 대구 YMCA 김경민 국장님으로 부터 들은 얘기와 작년 삼덕동을 방문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해 본다.

반갑습니다. 도시연대 <주민참여 마을학교>입니다.



담은 허무는 대신 대문만은 남겨달라는 집 주인의 부탁에 대문을 남겨 놓는 대신 예쁘게 다시 꾸몄다.

도둑을 막는데는 효율적이지 않다는 점과 담을 헐면 시야가 트여서 일단 보기에 좋을 것이라는 기대로 과감하게 담을 헐었다. 대신 친구 장인의 대문만은 그대로 남겨 달라는 간곡한 부탁에 대문은 그 위치에 그대로 남겨 놓고서, 담을 허무는 김경민씨를 보며 동네 사람들은 “이 집 식당할라카나? 담 헐었네”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다.

담이 없어진 정원, 문화가 있는 동네 공원으로

모든 집은 담이 있는데 유독 한 집만이 담이 없어졌다. 당연히 다른 집들과 어울리지 않았다. 그리고 그 전에는 아담하게 느껴진 정원이 이제는 영성하고 쓸렁하게 느껴졌다. 담을 허문 이후 자연스럽게 이어진 작업은 공원을 가꾸는 일이었다. 벽에 그림도 그리고 나무도 다시 심고 꽃들도 가꾸고 의자도 두어개 가져다 놓고 기술적으로 짜여진 설계와 조경은 아니지만 사람들은 자기 집 앞마당 마냥 하나 둘 드나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변화는 담 앞에 주차하는 차가 없어졌다는 것과 대문 앞에 항상 놓여 있던 쓰레기도 없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처음에는 담을 허문 것 자체가 신기해 사람들이 하나 둘 드나들었지만 그것도 익숙해지면 발길이 뜸해 진다. 담을 허물면서까지 만든 골목공원에서 그냥 앉아 휴식만 취한다는 것은 별로 재미없기 때문이다. 무언가 계속되는 사건이 있어야 공원은 계속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생각한 것이 ‘꾸러기 그림대회’였다. 1998년 11월 초부터 15일간 유아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환경 그림을 접수받아 11월 21일부터 28일까지 골목에 전시하고 28일 시상식을 하였다. 동네 아이들과 자기 아이의 그림이 액자에 넣어져 이젤에 놓여 있는 것이 부모들뿐만 아니라 주민들, 지나가는 사람에게도 흥미를 끌었다. 물론 아이들도 친구들을 데리고 와 자기가 출품한 작품과 다른 출품작들을 눈여겨보고 재미있어 했다. 이 때 대상은



꾸러기 그림대회에 참가한 아이들과 그림.



꾸러기 그림대회 후 마당 앞에서 전시회를 하고 있다.



마당에서의 인형극 상연.



자원봉사제로 운영되고 재활용을 교환하는 녹색가게. 이 녹색가게의 벽은 아이들이 주워 온 병 뚜껑으로 장식되어 있다.



참깨, 누룽지, 쌀, 좁쌀 등으로 만든 벽화. 유기농산물 가게의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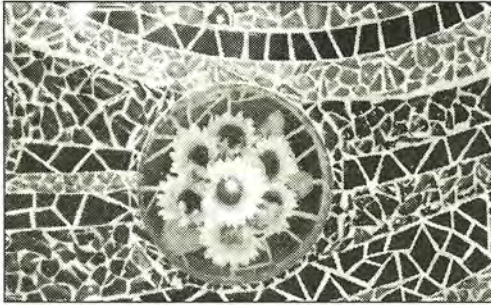
6세 유아의 '행복은 자전거를 타고'가 선정되었다. 꾸러기 그림대회 말고도 골목 벽면을 활용하여 골목 영화제를 열고 집 안의 창틀을 무대로 하여 인형극도 상연하였다.

내 집 마당에서 골목으로, 동네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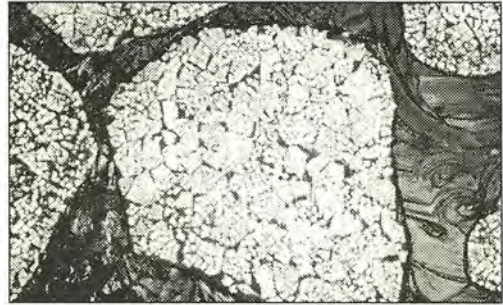
김경민씨는 자신의 집 앞에서만 벌어지는 활동에 그치지 않고 동네 구석구석에 포석을 두었다. 첫 번 째로 대구 YMCA녹색가게를 삼덕동 골목에 열었다. 녹색가게는 완전 자원 봉사제로 운영되는 물물교환 형식의 재활용가게로 앞으로 환경친화적 생활양식과 운동을 펼쳐 나가기 위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희망을 담고 있다. 또한 동네 아주머니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들 수 있는 곳이기도 하여 마을을 운영하는 사람들을 창출할 수 있는 곳이라는 희망도 있었다. 녹색가게를 만들고 동네 아주머니를 대상으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그리고 또 하나의 일을 벌인다. 바로 병뚜껑 벽화 만들기!! 동네 아이들을 대상으로 병뚜껑 하나 가지고 오면 10원을 준다는 약속을 내걸자 삼시간에 벽화 재료가 모였다. 시각 디자인을 전공한 YMCA 자원봉사자의 제안으로 시작된 병뚜껑 벽화는 삼덕동의 명물이 되었다.

녹색가게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자 또 새로운 일이 고개를 들었다. 김경민씨는 시골에 있는 후배를 대구로 오게 해서 유기농산물 가게를 운영하게 하였다. 우리 몸에는 우리 농산물이 최고라는 모두가 아는 상식을 생활 속에서 실현해 보고자 한 것이다. 그리고 유기농산물 매장도 예쁘게 꾸몄다. 이번에는 참깨,

반갑습니다. 도시연대 <주민참여 마을학교>입니다.



가출 청소년 쉼터 벽을 장식하고 있는 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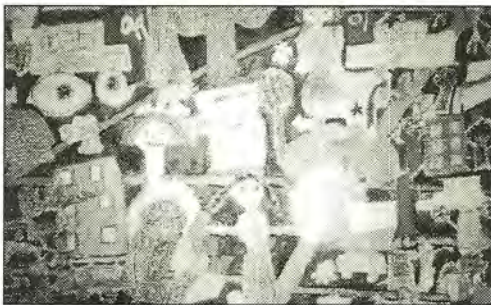
계란껍질을 이용하여 만든 벽화



녹색거리를 표현하는 그림이 담장을 따라 그려져 있다.



전통거리를 표현하는 벽화가 띠를 이루고 있다.



아이들이 크레파스로 그린 우리 마을 지도. 역시 벽화이다.

누룽지, 쌀, 좁쌀 등이 재료였다.

동네가 하나 둘 변하면서 동네 벽도 변화해 갔다. 녹색가게 맞은 편에 1997년부터 있던 대구 YMCA 가출 청소년 쉼터의 벽도 그대로 있을 수는 없었다. 스톤 스프레이를 사용한 암각화가 쉼터의 벽을 장식하고 있다. 이처럼 김경민씨의 집을 주변으로 하여 위치한 서너 곳 벽에 벽화가 그려지면서 동네는 온통 벽화로 채워졌다. 몇 군데의 벽만 벽화로 채워졌

던 것이 이제는 벽화가 끊이지 않고 이어져 있다. 한 칸에는 아이들이 크레파스로 그린 우리 마을 지도가, 또 한 칸에는 녹색거리를 표현하는 그림이, 또 전통거리를 표현하는 그림이 띠를 잇고 있다.

계속되는 골목공동체

삼덕동에는 오래된 일본식 건물이 있었다. 구 삼덕 초등학교 교장관사였던 곳으로 당시에는



마을 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삼덕동 초록마을 축제.



마을 미술관앞에 전시된 아이들의 그림.



마을 미술관앞의 돌 의자.



마을 미술관 내부 모습.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채 버려진 곳이나 다름 없었다. 이곳을 임대하여 마을 미술관으로 꾸며 2000년 4월에 개관하였다. 집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보수만 한 채 집 안은 전시 공간으로 꾸몄고 마당은 아이들이 흠장난하는 놀이터로 만들었다. 이곳은 앞으로 마을문화 센터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에 있다.

골목공동체에 장애물이 나타나다.

1998년부터 꿈틀대며 만들어 온 골목공동체에 2000년 올해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삼덕동 주변에 원룸이 하나 둘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는 눈치를 채지 못했는데 주민들이 “이상하다. 원룸이 자꾸 생기네” 하는 말에 다시 보니 서너 채의 원룸이 자리잡고 있었다. 김경민씨 바로 옆집도 원룸을 만들고자 했다. 어떻게 대응할까 생각하다 건물주인에게 그 동안의 일어난 일들과 이 동네의 의미를 얘



원룸주택 건설을 반대하는 플래카드가 마을 미술관앞에 걸려 있다.



기하여 설득을 하고 또 한편으로 허물 집 앞에 차를 여러 대 주차하여 포크레인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기도 하였다. 그리고 또 한 곳은 김경민씨가 돈을 모아 아예 사 버렸다. 이렇게 해서 원룸의 소용돌이를 비껴갈 수 있었다. 김경민씨가 산 건물 역시 일본식 건물인데 지금 수리 중에 있으며 이 곳은 앞으로 마을 국악원으로 꾸밀 것이라 한다.

담 허물기, 김경민씨 집에서 삼덕동으로, 그리고 대구시 전역으로

김경민씨가 담을 허무는 것을 보고 인근 주민이 담을 허물기 시작하고 삼덕동 동사무소가 담을 허물고 급기야 경북대 병원, 치대 병원, 남구청, 서구청, 경상감영공원, 경상여상, 계명대 동산의료원까지 줄줄이 담을 허물기 시작했다.

이러한 과정은 점차 확대되어 대구시민들과 언론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으며 마침내 대구 지역내 시민사회단체와 대구시가 공동으로 전개하는 '대구사랑운동 시민회의'의 주요사업으로 담장 허물기가 채택되기에 이르렀다. 담을 허물겠다고 신청하면 담장을 허무는 과정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대구시에서 처리해 주고 허물고 난 뒤의 조경을 위해 조경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 자문위원회도 구성되었다. 여기에 필요한 나무는 대구시 임업연구소에서 일부 제공한다는 원칙도 세워졌고 담장을 허무는 데 필요한 인력은 공공근로요원을 투입해서 해결하기도 한다.

조금씩 변해 가는 주민들

초기 한 사람의 이상아릇한 활동에 대해 주민들의 반응은 냉랭했으나, 골목공원을 이용한 여러 가지 행사에 참여하면서 주민들의 관심이 증가했으며, 자신의 집을 개조해서 골목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주민이 증가하고 있다. 또 원룸이 들어섰을 때에도 주민 스스로 우려를 나타냈는데 이는 곧 사람들의 마음에 우리마을이라는 생각과 마을의 이미지와 특징을 훼손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자리잡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난 활동들

대구 삼덕동의 이러한 일련의 활동은 담 허물기라는 하나의 이벤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네의 사람과 자원을 활용하여 골목공원을 만들어 나가는 등 끊임없이 활동을 이어냈기에 지속될 수 있었다. 이처럼 마을만들기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요즘 사람들은 웬만해서는 오랫동안 관심을 갖지 않는다.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했다는 것도 자식이 부모를 학대하다 못해 살인을 했다는 것도 아니면 어느 노인이 노상으로 30년간 번 돈을 찢어지게 가난한 소년소녀 가장에게 줬다는 것도 오랫동안 우리를 놀래거나 흐뭇하게 하지는 않는다. 이런 우리네 삶에서 제 아무리 담을 허물었다고 해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 줄까? 무언가 계속해서 하나 둘 이어질 때 그때서야 사람들의 시선은 고정되고 이를 통해 자기 가 사는 동네에 관심을 갖게 된다.

재미있게 진행된 활동들

‘담을 허물어 버린다. 먹는 것으로만 생각한 쌀과 보리, 깨지면 아무 쓸모 없는 향아리 조각으로 벽화를 그린다. 병 뚜껑을 모으기 위해 돈 10원으로 아이들을 유혹한다.’ 대구 삼덕동 주민들은 마을환경을 개선하고 소원한 이웃관계를 회복한다는 아주 무거운 주제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냄으로써 어린이뿐 아니라 어른들도 웃음을 짓게 한다. 그러나 이런 담 허물기와 먹는 것으로만 생각한 쌀과 보리로, 깨지면 아무 쓸모없는 향아리 조각으로 벽화를 만드는 일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벌어질 수는 없다. 아이들처럼, 공상가처럼 황당무괴한 상상을 해 보고 아무도 눈 여겨보지 않는 것에 시선을 고정해 보자. 상상력을 동원한 발상의 전환은 내 몸 가까이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주민 혼자가 아닌 공무원과 전문가들도 함께 한 활동들

골목공동체를 회복하고자 하는 한 시민운동가의 자발적인 행위는 자신의 집과 이웃뿐만 아니라 관공서 담장 허물기로부터 이어졌다. 이러한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담장을 허물려는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허무는 방법(!)에 대해 자문을 해 주고 돈이 모자라면 재정적인 지원까지 담당하고 나섰다.

경제성장속에서 황폐해 질대로 황폐해 진 이 도시를 살리기 위해서는 실제 살고 있는 주민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관련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과 해박한 정보와 지식을 가진 전문가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나도 모르게 쌓여 가는 마을에 대한, 도시에 대한 애착

2000년 여름 원룸 건설 바람이 삼덕동에 불었을 때 주민들은 큰 갈등없이 삼덕동 고유의 주거환경을 지켜낼 수 있었다. 이미 형성된 정주의식과 골목공동체의 활동을 통해 이루어진 마을에 대한 애착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통계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검증된 것은

반갑습니다. 도시연대 <주민참여 아을학교>입니다.

아니지만 아무런 활동이 없었던 상태에서 원룸 건설 바람이 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볼 때 이러한 추측은 가능하지 않을까? 우리는 맑고 푸른 물이 흐르는 개울이 있는 곳, 코흘리게 아이들이 여기저기 뛰어 다니는 곳, 1000원어치 물건 사면 100원짜리 껌 하나 덤으로 주는 가게가 있는 곳, 김장김치 한 그릇 주면 굴 한봉지 되돌려 주는 이웃이 있는 곳을 꿈꾼다. 삼덕동과 같은 활동이 조금씩 일어 난다면 우리의 꿈이 눈에 보이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아니면 적어도 아침마다 차 빼라는 소리로 시끄러운 곳, 자동차 눈치보며 이슬이슬하게 걸어야 하는 곳, 5년을 넘게 살아도 인사 한 번 하지 않는 곳은 면하게 되지 않을까?

대구 삼덕동 골목가꾸기 일꾼 ‘김경민’ 씨와 함께

이 사람의 마을만들기 하는 방법 “그냥 하는 거지요”



7) 대구 삼덕동에 도착 후 김경민씨와 참가자들은 함께 점심을 먹고 동네를 둘러 보기 전 삼덕동 마을만들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마을만들기의 주체인 김경민씨의 마을만들기 방식(!)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반갑습니다. 도시연대 <주민참여 마을학교>입니다.

대구 삼덕동에 도착 후 김경민씨와 참가자들은 함께 점심을 먹고 동네를 둘러 보기 전 삼덕동 마을만들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마을만들기의 주체인 김경민씨의 마을만들기 방식(!)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처음 담장을 허물고 정원을 다듬었는데 찾아와서 노는 아이들의 동선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잘 가꾸어진 정원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때로 꽃들을 밟기도 하고 나무에 기대기도 하면서 놀더라고요. 그러면 못 건디는 꽃과 나무는 시들어 가는데 그러면 그런대로 놔두고 그 다음에 다시 맞춰서 가꾸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공간을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섬세한 배려를 해주어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바로 이점에서 그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여기 미술관도 정원을 꾸미다가 치웠습니다. 그냥 돌 같은 것을 놔 두는 것으로 그만 두었죠. 아이들이 돌위에 뛰어 다니는걸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바닥도 그냥 놔두는 게 잡초도 자라고 메뚜기도 뛰어 놀지 않을까해서 그랬습니다. 보기에 좋다고 해서, 어른들이 기준에 좋다고 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누가 쓰느냐에 따라 맞춰서 생각을 해야지요.



마을 미술관

마을만들기를 해보면 프로그램이 옛날에 생각한 거랑 많이 틀립니다.

마을축제를 많이 해봤는데 조명도 갖다놓고 무대로 만들고 했는데 그것이 마을사람들 모두를 다 포함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축제보다 잔치가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수도 말고 닭도 잡고 노래할 사람은 하고, 그런 게 아닌가 합니다.



마을 미술관 앞 평상.

원래 함께 놀아야 재미있겠는데 커뮤니케이션이 없으니까 각자 놀게 되더라고요.

여기에 몇 번 닭 사서 지나가는 사람들 꼬셔 봤는데요. 닭 10마리면 됩시다. 돼지도 잡아 봤어요. 동네에서 꼭 구워 먹어야 되요. 그래야 지나가는 사람들이 소주 한 병 들고 찾아오게 되지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술은 안 떨어지더

라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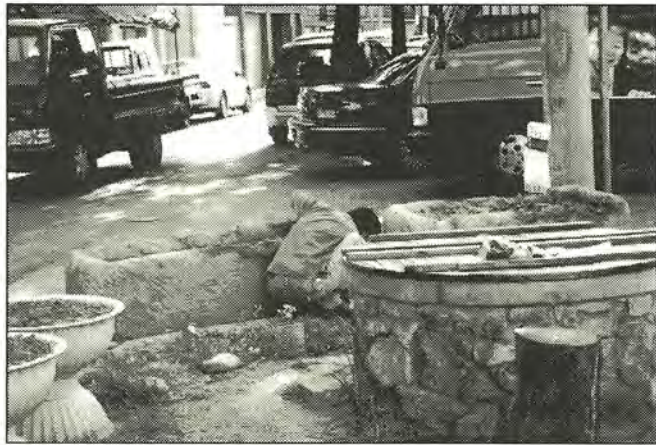
사람들이 편하게 쉬는 공간은 정자나무 같은 것이 있는 곳이 좋지요.

이 동네는 슈퍼마켓 밑에 평상에서 다 만들어집니다. 저기에 텔레비전도 있거든요.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여론을 만들고 어떻게 모여서 쉬는가. 뭐 이런 문화와 공간들을 생각하고 만들면 그게 마을만들기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

런 면에서 잘 생긴 나무에 주목하는게 중요합니다. 잘 생긴 나무에 정자를 만들고, 그런데 그 집의 동의를 얻어야겠지요. 그 게 해서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여론을 만드는 것이지요.

근래에는 텃밭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네 자투리 공간이 주차공간으로 다 뺏기고 있어서... 그래서 놓고 있는 옥상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여기 미술관 앞에 토담을 만들었는데 저기에 꽃이나 채소를 심어서 분양하려고 합니다. 도시 내에서 공간이 있으면 텃밭으로 쓰는게 굉장히 재미있을것 같아요.



토담- 동네 사람들에게 분양해서 가꾸도록 할 예정이다.

동네 어른들은 제가 여기서 하는 게 별나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삼덕동에서 하는 마을만들기 방법은 매우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어쨌든, 도시라는 공간에서 도시와 어울리지 않는 것은 뭐든지 하자라는 주의이지요. 어떻게 보면 신선하고, 어떻게 보면 별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발상을 그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 토종닭 키우는 것이 좋겠다 하면 그냥 풀어 놔 보는 거예요. 동네 사람이 진짜 8마리를 풀어 놨는데 2마리가 살았다 합니다. 나머지는 개와 고양이에게 물려 죽고, 그렇게 그냥 해 보는 거죠.

지금 여기 벽화그리기 한 친구는 대구 YMCA 네트워크로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 친구는 제가 대학 다니면서 YMCA 자원봉사 할 때 고등학생이었죠. 예술고등학교 나와서 산업 디자인을 하는데 그 친구로부터 시작해서 친구의 친구의 친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문화적 자원을 활용해서 문화적 요소를 활용해 보려고 해요. 말로 하면 심각해지잖아요. 의미는 각자 알아서 공부하는 거니까, 말로 하면 복잡해 지는 것 아닙니까.

벽화같은 것도 눈에는 안 보이지만 원칙이 있습니다. '페인트로 무작정 그림을 그리는 것은

만감습니다. 도시연대 <주민참여 아을학교>입니다.



삼덕동의 벽화들.

하지 않는다' 에서 시작해서 5가지 정도의 원칙을 정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별로 튀지 않게 했습니다. 어떤 것은 너무 잘 나서 튀고 어떤 것은 너무 촌스럽고 어울리지 않아서 튀는데 가능하면 여기의 공간성과 어울리게 사람들을 편하게 쉬게 해 주는 것을 하려고 했죠. 이곳 골목 안에 있는 벽화들이 별로 자기 주장을 안 하잖아요. 없는듯이 그냥 상가건물에는 각 공간들이 아우성 치잖아요. 나를 봐달라고. 이쪽의 벽화는 가능하면 별로 자기주장을 안 하는 방식으로 할려고 했죠.

벽화하는 친구는, 그 친구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만났으니까, 워낙 오래 전부터 알고 여러가지 작업을 도와주다 보니 서로 이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벽화작업을 하려면 어쨌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전문가가 자기 개념이나 방식으로 제작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저 같은 경우는 같이 작업하면서 개념과 감성을 공유하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환경운동연합에서 시민축제를 한다고 하면 가수 부르고 대충 하잖아요. 시민운동이 지향하는 이념이나 방식으로 진행되기 보다 대중이 익숙한 방식으로 접근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슈들을 표현하는 수단이나 도구를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실험들을 해 봐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 다른 영역의 사람들이 서로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하기 전에 이것저것 걱정하는 것 보다 먼저 같이 해 보는 게 중요하죠. 싸우기도 하고 이해하기도 하면서. 그렇다고 참가시켜야 한다라는 당위성에 목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이 동네에 이사온 지 5년정도 되는데요. 동네를 헤집고 다니는 게 마을만들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냥 동네 여기저기 다니면서 참견하고 이상한 짓 하면 말이 많잖아요. 그리고 제가 관심을 두는 것은 공유공간입니다. 공유공간은 아무도 관심을 안 갖기 때문에 그곳을 이용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관심도 끌고 의심을 덜 갖게 만들죠. 어쨌든 마을만들기 하려면 지도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럴 때 공적공간을 이용하는게 중요한 전술이 되겠더라

고요. 관심을 많이 갖지 않는 공간이고 자기가 주인이 아니니까 맞서는 사람도 적고, 하니깐 지도력이 조금만 있어도 되는 거지요. 그런데 중요한 게 완성도가 떨어지면 반응이 안 좋지요. 공적공간에 대한 재연출이라고 했는데 마을사람들이 보기에 흉물이면 괜히 말만 들지요.

저는 기본적으로 집도 안 치우는 사람인데 이제 동네에서 청소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마을만들기 할 때 절대 싸우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싸워서 이기면 지는 겁니다. 여기 삼덕동 청소년 가출쉼터에서 일하다 보면 많은 일이 있고 말도 많습나다. 그런데 거기서 '나 잘 났소' 하고 이기면 안 되더라고요. 마을만들기 할 때는 무조건 져야 합니다.

어쨌든 마을만들기라는 게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건데 그런 점에서 당장 눈 앞에서 이기는 것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지요. 선거할 때도 '아, 저사람 잘 났어. 똑똑 한데' 하면 무조건 떨어진다요. '아, 저 사람 제대로 뻘어' 하면 당선된대요. 시골마을도 똑같은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 되면 안되고 된 놈이 돼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거죠.

벽화 그릴 때 빌딩마다 보면 다 고래를 그리더라고요. 울산 같으면 바다니깐 고래소리를 녹음해서 스피커 좋은 거 사용해서 소리를 들려줄 수 있을텐데 생각들을 안 하고 다 고래만 그리더라고요. 유치하잖아요. 도시공간 내에서 가지고 있는 변수들을 어떤 식으로든 반영해야 합니다. 시간과 공간이 가지고 있는 변수, 옆에 있는 빌딩이 가지고 있는 조건... 이런 것이 도시라는 공간에 들어가는 순간에 종속변수가 달라지거든요. 실제 우리 마을에 제일 처음 한 벽화 작업이 병뚜경 벽화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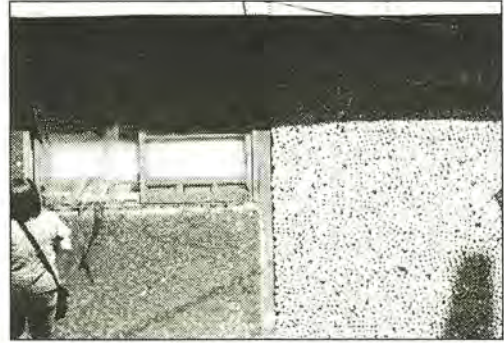
처음 그 벽은 타일이었는데 굉장히 차가운 느낌이 들잖아요. 처음 벽화작업을 하기 위해서 디자인 해보는데 어떤 소재로 할 수 있는까 생각하고 디자인해서 작업 들어가는데 2개월 걸렸어요. 삶의 공간안에 공적 디자인을 하는데 감히 시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업 구상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온갖 생각을 다 하겠죠.

그러다 병뚜경 벽화가 탄생했죠. 가면서 속도가 붙더라고요. 그다음에 구상도 편해지고, 우리 마을에 벽화 작업하는 친구는 주어진 공간에 대해 조금씩 자유로워지고.



삼덕동의 병뚜경 벽화 벽에 붙여져있는 것이 바로 병뚜경.

반갑습니다. 도시연대 <주민참여 마을학교>입니다.



동전을 붙여 만든 벽화.



화분으로 장식한 벽화

예를 들면 남창수씨 집 벽화를 보면 굉장히 안타까워요. 대구시 예총 관계사람들이 그랬는데 거기에 와이키키 해변같은 그림이 있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 그림이 있어야 하나, 소재는 왜 페인팅으로 했는가.

저것이 겨울에는 어떻겠는가, 겨울에 굉장히 춥게 느껴 지겠죠. 그리고 나중에 보수는 어떻게 할까 등 변수들을 다 따져봐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벽화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

거죠. 저는 가능하면 창작하는 사람의 생각을 살려주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어쨌든 자기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동전 붙인 벽화가 있는데 저는 처음에 하지 말자고 몇 번 얘기했어요. 좋은 의견인데 여론은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동전이라는 디자인을 꼭 해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마지막에는 저야죠. 하니까 좋긴 좋았는데 어려움이 많았죠. 예를 들면 법적자문까지 다 받고 화폐훼손에 걸리지 않는지도 알아보고, 한국은행에 물어보니까 걸리지는 않는데 그래도 '가급적이면 하지 마십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작가는 저렇게 도발적인걸 해 보고 싶은 거예요. 항상 생활언어와 삶의 공간의 논리에 얽매일 수만은 없잖아요.

작가의 생각도 고려를 해 줘야지요.

대신에 그 다음 작업이 생태 디자인이에요. 다음 작업을 기대해 주세요. 잡초들이나 그냥 벽에 흙이 있으면 자라는 풀을 이용해서 하려고 합니다. 생태적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게 풀이 라네요. 나무로 가기 전에 풀로 가야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 공간에 풀을 깔아놓을까 합니

다. 그렇게 해 놓으면 우리동네에 어떤 잡초가 있는가도 알게 되고 그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꾸미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어도 사는 생물들이 어떤 놈들이 있는지, 공간을 비워 놓으면 와서 사는 놈들이 있을 테고, 물 주고 씨 뿌리지 않아도 알아서 사는 놈들도 있을 테고. 그러다 그런 놈들을 중심으로 디자인하고 하면 생태디자인 아닐까요.

반갑습니다. 도시연대 <주민참여 마을학교>입니다.

삼덕동 어귀를 둘러보고 나서

김경민씨의 이야기를 들은 후 본격적으로 삼덕동 탐방에 나섰다. 탐방 모습은 비디오에 담아 두었다. 탐방 후 다시 마을미술관을 돌아와 참가자와 김경민씨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기록해 보았다.





참가자: 삼덕동이라는 자그마한 동네에서 시작해서 대구시에 있는 병원, 구청, 공원까지 담장 허물기가 퍼졌는데 대단합니다. 그리고 삼덕동도 보니까 담장허물기 뿐이 아니라 벽화도 그리고 마을미술관 같은 것도 만들고 하셨는데 시작하시기 전에 혹시 계획을 세우고 그것에 따라 진행하신 겁니까?

김경민: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을만들기, 뭐 한 10년하지 뭐' 하면 한 10년 해보고 그런 거 같아요. 정해진 프로그램이 아니고 그냥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안 할 때도 있고. 여기 미술관 앞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현수막 좀 떼라' 이런 말도 하는데 저게 1월 20일날 붙인 건데 아직 안 떼고 있어요. '미술관 뒤에 쓰레기 쌓아 놓은 것 좀 치워라' 그리고 그냥 지나가고 뭐 많아요. 그래도 하기 싫으면 안 해요. 그래도 그냥 사는 거예요. 그리고 살다가 어느 날 보니까 느낌이 새롭게 오는 거죠. 처음에 벽화 그릴 때 '저걸 언제 다 그려' 했는데 근래에 보니까 그래도 보여줄게 많이 있더라고요. 한 10년 하면 최소한 벽화가 100개 정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또 10년후에 어떤 벽화가 돼 있을까 궁금해요. 저런 벽화에 마을만들기 운동에 대한 이념이 있으니깐 그 이념이 마을만들기랑 자연스럽게 만나져요. 우리 벽화 그리는 친구가 마을만들기랑 이렇게 만나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10년정도 그리면 처음 병뚜껑부터 10년 후의 그림까지 공간을 다루는 다양한 컨셉들이 보이겠죠. 하면서 조금씩 자기 작업이 성숙되어지고, 공간은 거기에 실험적인 공간이 되는 거고, 그러면서 그냥 하는 거죠. 담장 허물면 또 허물어지고, 근데 안타깝기는 안타깝죠.

참가자: 동네사람들이랑 만나고 얘기하다 보면 애초에 계획했던 것이 빨리 달성이 안 될 수도

반갑습니다. 도시연대 <주민참여 마을학교>입니다.



있고 어떨 때는 오리무중으로 빠질 수도 있는데 빠질 수도 있는데 그 때마다 어떻게 하셨어요?

김경민: 저는 말이 별로 없었어요. 예를 들어 “됐나? 됐다” 이런 식이죠. 말이 너무 많아지면 그러면 주요한 의미가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뭐냐하면 마을만들기 여기에 저도 관심은 하나지요. 사실은 삶터 생활공간 안에서 사람하고 만나서 이야기할 때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소의미 언어체계라고 할 수 있는데 삶터에서 할머니나 주부를 만났을 때는 그런 논리적인 의미체계로서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죠. 만나면 “술 한잔 합시다” 그런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생활공간안에 도시공동체 운동을 한다고 할 때 사람을 만나게 하고 인간을 성장하게 하는 데 있어 언어의 방식이 뭐냐하는 건 중요한데 최소한 시민운동방식에서 쓰는 언어를 적용하는 것은 아닌 거 같아요. 그런 건 그냥 전제로, 배후로 다 숨겨야 되는 것들이죠. 우리는 그것을 직접적으로 나타내지 않고 벽화를 통해서 나타낸 거예요. 예를 들어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소극적인 그림을 그리는데 암각화를 한 번 그려보자는 거죠.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보고 지나가지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하고싶은 말이 있어서 한 것이거든요. 삶이라는 공간안에서 의미로만 이루어진 언어를 가지고 주민을 참여시키고 조직하는 것은 쉽지 않죠. 각자가 가진 기존의 자기 삶의 방식을 해체하면서 새로운 방식을 성립시키는 게 바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걸 성립시키는 것은 말로 하는게 아니라 소위 말해서 문화적 도구, 우리 입장에서 미디어잖아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싶는데 그 말을 직접 하면 ‘잘났소’ 하고 등 돌리죠. 또 그렇게 되면 우리 삼덕동이라는 마을에서 다



른 사람과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비디오 가게 주인하고 잘 만납니다. 비디오 가게 주인은 속사정을 다 알거든요. 그리고 만화방까지 진출하려고 해요. 또 상인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참가자: 예전에 우리가 생활하는 삶터는 많은 흔적에 의해서, 때로는 자그마한 필요에 의해서 길이 나고 공간들이 만들어졌는데 지금 우리의 도시공간은 아주 큰 범위의 정치, 경제 논리에 따라서 때로는 과도하게 불필요하게 그리고 비환경적으로 변해가는 모습이 많은데요. 그런 지금의 도시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런 공간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 나름의 생각을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김경민: 이웃국가의 닭 우는 소리가 들리고 개 짖는 소리가 들리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노자는 마을국가론 아닙니까? 제가 해놓은 건 아무 것도 없는데 이렇게 말하는 게 웃기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공간이 너무 많이 일방적으로 그리고 비인간적으로 규정이 되더라고요. 그건 우리 삶을 왜곡시키고 그 공간에 규정을 받고 사는 것이 당연히 기여해지는 세상이 되어 버립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냥 '그래도 해 봐야지 하면' 그때부터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이라는 것은 문제의식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죠. 어떤 공간에 가더라도 다 그럴거예요. 핑장히 나름대로 각자의 삶이 원자화 되어있고 개인공간 외에 관심을 안 가지고 공동체라는 것은 없고 그런 공간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일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느냐 한번 해 볼만하다고 받아들이냐 그 문제인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이 동네 이사오기 전까지는 생활공간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습니다. 학교의 친구가 중요하고 직장의 일과 친구가 중요하지 삶터라는 것에 대해 생

반갑습니다. 도시연대 <주민참여 마을학교> 입니다.



각하지를 앓았죠. 그런데 삶터 중심으로 해 보니까 전혀 다른 세계가 있더라고요. 조금이라도 자기 마음의 여유를 삶터에 열어 두면 전혀 다른 세계가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가자: 하면서 힘들었거나 그만두고 싶을 때는 없었습니까?

김경민: 정말은 무척 재미있었어요. 마을만들기 하면서는 한번도 안 지쳤던 것 같아요. 무척 재미있어요. 벽화가 그려지니까 마음이 푸근해지고, 이것만 하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을만들기 하면서 만난 사람도 다 좋아요.

참가자: 지금 삼덕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김경민 선생님이 중심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말고 같이 하고 있는 주민들은 어떤 분이 있으세요? 한편 김경민 선생님이 빠지면 지금의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주민들이 얼마나 있을 지 우려가 되거든요.

김경민: 모르겠어요. 주체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각자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다른 마을에서는 다른 방법의 마을만들기가 있는거고, 제가 보니까 한국사회에서 공간에 대한 인식이 50대에서 70대 분들이 가장 떨어지는 것 같아요.

참가자: 뭐 50-70대가 어떻게 됐다고요? (이 분이 50-70대에 해당되는 분이었음)

김경민: 그러니까 정말 무지막지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이가 많이 들면 들수록 가만 보니까 저같은 세대같으면 80년대 학번 같은 경우는 전통에 대한 향수가 많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뉴 키즈 온 더 블락은 아니잖아요. 넘어가기 바로 전 세대잖아요. 저는 한국의 민중예술과 민중문화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집인것 것 같아요. 그 집들

보고 감동받았어요. 우리 문화안에, 전통적 흐름안에 굉장히 섬세한, 어떤 면에서 민중적 가치에 기반한 감성이 있다고 봐요. 제가 볼 때 그것을 다루어나가면 그것을 현실화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소위 건축법과 같은 전문개념은 잘 모르는데 근대화되면서 나온 건축에 대한 맹목적 신뢰를 가진 세대들이 가진 공간에 대한 생각이 무지막지하더라고요. 그래도 그 중에서 새로운 감성이나 전통적 감성을 가진 사람을 만나는데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해 나가야지요.

주민참여 마을학교 4마당

마을만들기 활동 지역탐방 Ⅱ

사당동 양지공원 조성 사례

동두천 봉암리 마을만들기 사례

〈사당동 양지공원 사례 소개

〈사당동 양지공원 조성 그 뒷 얘기〉

양지공원 조성 참여 주민 홍성달씨와 함께

〈동두천 봉암리 마을 만들기 사례 소개〉

사당동 양지공원 조성 사례

주민의 손으로 만들고 가꾸는 공원

사례지역

서울시 사당3동 220-6번지 일대

지역 현황 및 특성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 3동은 북서방향으로 사당중학교 남동방향으로 고층아파트단지가 위치해 있다. 양쪽으로는 단독주택과 공동 주택이 일렬로 배치되어 있고 주변은 일반 주거지역으로 비디오 가게 등 간단한 상업시설이 분포하고 있다. 그리고 관통하는 도로로 인해 공원이 두 부분으로 분할되어 있다. 한편 주변 간선도로의 교통체증을 피해 우회하는 차량으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한다.

주체

주차장 설치를 반대하는 사당 3동의 주민 10여명, 공원의 설계를 담당한 김성균 교수, 동작구청이 함께 참여하였다. 주민대표는 주차장 반대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로 8~12명이 고정적으로 참여하였다. 초기부터 주차장 반대라는 현안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주민의 관심이 높았다. 설계 과정에 의견을 제시했으며 시공과정에서는 감독관으로 참여하여 공사현장에 나가 벽돌, 수목, 자연석 등의 자재를 점검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이의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실제로 작품제작에 참여하였다.

동작구청 공원 녹지과는 재정지원, 워크숍 준비, 회의 주도 등의 실무를 주로 담당하였다. 뿐만 아니라 유연한 태도로 주민간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주민간의 갈등, 전문가와 주민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전문가인 김성균 교수팀은 설계과정에 있어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주민 의사 반영 절차를 마련하고 시종일관 주민의견이 반영된 설계안을 작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한편 행정과 주민사이의 의견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활동취지 및 배경

567평에 이르는 사당 3동 양지공원은 원래 도로부지로 구획된 곳이었으나 10년째 방치되



양지공원 전경(팔각정)

어 있었다.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주민들이 별로 이용하지 않았고 불법 쓰레기 투기장이 되어 있었다.

1997년 행정이 방치되어 있던 공지를 주차장으로 이용하려 하였으나 주민들은 안전, 소음과 매연 등의 이유로 반대하였고 그 결과 행정은 공원을 조성하기로 계획을 수정하였다. 당시 서울시는 마을마다 조성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사당동은 3개의 시범지역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공

원의 설계를 담당한 김성균 교수(서울대)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자고 서울시에 제안하였고 사당 3동 동사무소를 통해서 주민대표를 모집하였다. 그 결과 주로 주차장 반대 운동을 주도하였던 12명이 참여의지를 표명하면서 1997년 하반기부터 역사가 시작된다.



공원 전경(우물)

전개과정 및 주요활동

주민중심의 설계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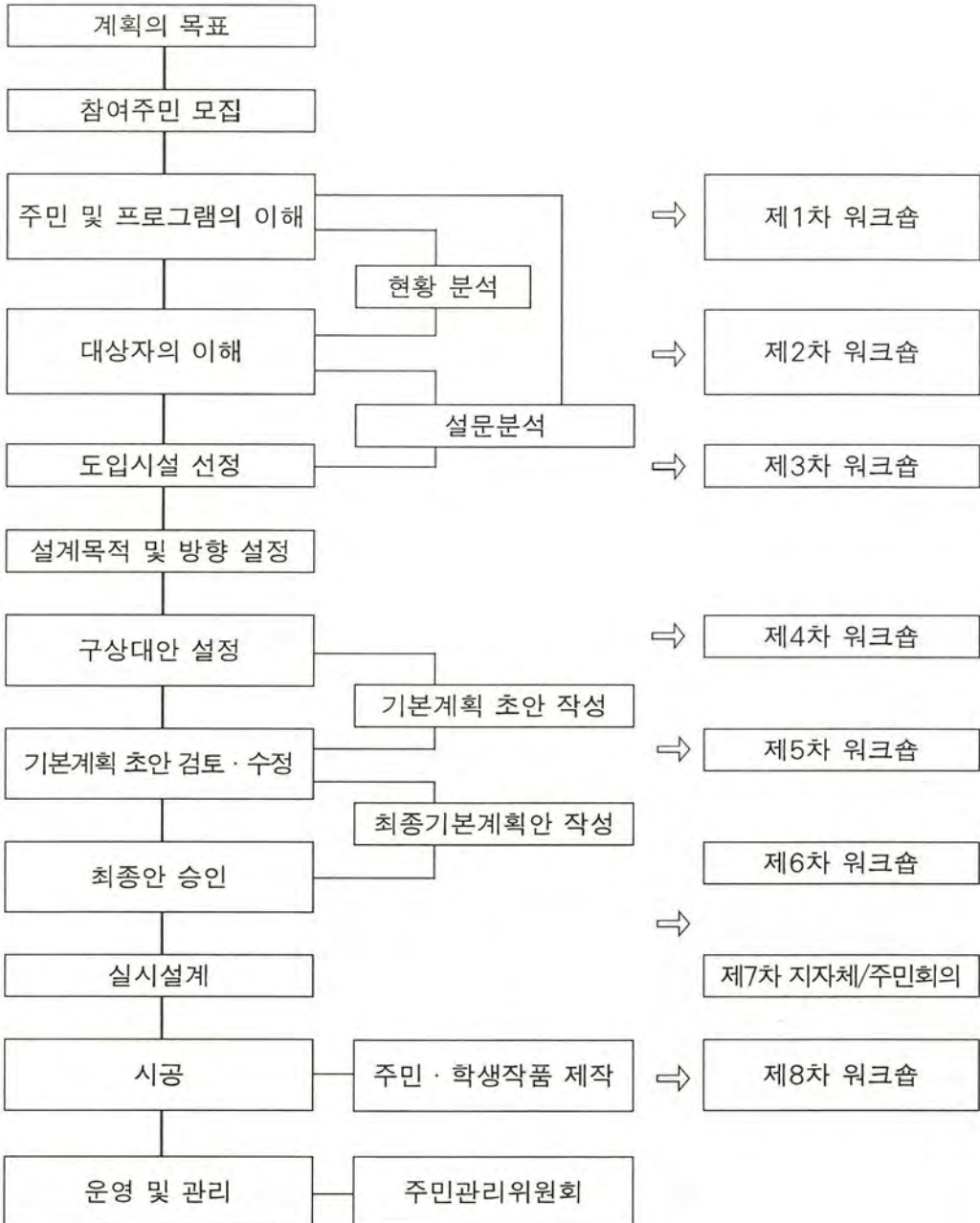
공원 조성과정은 1998년 2월부터 1999년 7월까지 약 17개월 동안 기본 구상단계에서 실시설계 단계까지 4단계로 나누어 이루어졌다. 주민들은 설계과정에 주민토론회 형식으로 참여하였다. 총 6차에 걸친 워크숍을 통해 주민의사가 반영된 최종안이 결정되었고, 공사 중에는 주민감독관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작은 갈등들

주차장 반대운동을 통해 형성된 강한 결속감으로 비교적 활발한 주민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지속적으로 참여한 사람은 두 세 명에 불과했다. 지속적인 동기부여와 참여유도가 미흡했던 것이 주원인인 듯 하다.

진행과정에서 주민들간의 대립이나 갈등이 격렬하기도 하였다. 주차장 건설을 원했던 주민과 공원 조성을 원했던 주민간의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공원 조성을 찬성하는 주민 중심으로 진행됨에 따라 종종 잠재된 갈등이 표출되었다. 이 과정에서 행정과 전문가가 적절한 대응을 함으로써 갈등이 해소되곤 했다. 가령 어린이 놀이터를 유치할 장소를 결정하는데

주민참여형 공원설계 진행과정



반갑습니다. 도시연대 <주민참여 아울학교>입니다.

주변 주민들이 소음의 이유로 반대하였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가 차폐시설을 설치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조치를 취한다고 함으로써 마무리되었다. 행정이 유연하고 객관적인 태도로 주민의 의견을 조율하였고 전문가는 주민이 제안하는 의견이 실현 가능한 것인지를 사전에 파악하여 제시함으로써 합리적인 결정을 하게끔 유도했다.

때로는 주민들이 전문적 지식이 부족한 관계로 예산을 엄두에 두지 못하고 무리한 요구를 하기도 하였다. 이 때에는 예산상 주민의 요구를 들어주지 못하는 상황을 행정이 차분히 설명했다. 다른 갈등에 대해서도 행정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면서 주민들의 양해를 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자 주민들도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았다 한다.

행정과 현실과의 괴리에서 오는 진행상의 어려움

마을마당 조성 사업에 대한 예산이 지역 상황에 상관없이 1개소당 시비와 구비 각각 1억 5천만원씩으로 한정되어 있었던 관계로 주민의 요구를 십분 수용하지 못했다. 또 서울시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터라 행정의 사업기간에 맞추어 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다. 주민참여를 통해 하나의 공간을 만들어 내기에는 부족한 설계 기간이었다.

공간과 구성원의 특성이 반영된 디자인

주민 애착심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적용되었다. 운동공간에 주민의 손바닥 도장 문양이 게시되고, 사당중학생의 그림을 도자기 판으로 만들어 설치하기도 하였다.

지금 현재

공원 자율 관리 위원회를 통해 공원을 자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려고 하였으나, 현재에 있어



사당중학교 학생의 그림을 옮겨 만든 도자기판과 주민들 30여명의 손바닥 문양

공원 자율 관리 위원회는 거의 활동을 중단한 상태에 있다. 그 이유는 우선 자율 관리 위원회의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아무런 재원을 가지고 있지 못한데서 비롯되었는데, 이는 행정에서 의도한 바가 크다. 초기에 자율관리위원회는 공원 주변 주차장관리권을 인수받아서 운영비와 공원 관리비로 지출하고자 행정에 탄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당했던 것이다. 더욱이 공원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공공근로 요원을 파견하기로 행정이 결정함에 따라 더 이상 공원 자율관리 위원회는 존재이유를 상실하게 되었다. 이처럼 공원을 매개로 더 활발한 마을 만들기 가능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의 가능성을 막아버렸다는 안타까움을 지울 수 없다.

관리 외에도 주민들의 휴식공간과 아이들의 놀이터로 이용되고 있으나 마을단위의 행사가 유치된 적은 없다. 행사까지는 아니더라도 함께 모여이야기하는 자리라도 있으면 공원에 활기를 더할텐데 하는 아쉬움이 든다.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들어진 공간을 어떻게 이용 하느냐도 중요하다. 거창한 행사가 아닌 소박한 사랑방이라 할지라도 그런 움직임은 필요하다. 나무와 꽃만 심는 것이 아니라 사당동 사람들의 생활과 관계도 심음으로써 양지공원의 외형과 내면이 함께 공존해야 할 것이다.

시사점

철저한 주민중심의 설계과정이 필요하다.

설계를 한다는 것은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러나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대상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욕구와 상황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 온전한 하나의 건물이나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설계자와 이용 당사자의 공동작업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 팔각정 주변의 쓰레기들

◀ 공원옆 주차모습

반갑습니다. 도시연대 <주민참여 마을학교>입니다.

그 관계가 공급자-수요자로서만 한정되어져 왔다. 사당동 양지공원 조성 진행과정은 그 관계를 과감히 떨쳐 냈다.

만드는 사람과 이용하는 사람이 하나가 되었던 과정이다. 이 과정이 있었기에 양지공원은 여느 공원과 다른 것이다.

주민이 참여함으로써 그 마을이 가지고 있는 향토성, 역사성, 문화가 드러나는 공원을 만들 수 있었다.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아름다움을 넘어 사당동 사람들의 냄새와 자취가 어우러져 깊은 맛을 내는 공간이 만들어 진 것이다. 아무리 능숙한 행정이나 전문가라도 이 부분만큼은 완벽하게 소화해 내지 못할 것이다.

행정과 전문가의 적절한 역할이 중요하다.

행정과 전문가가 전문성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주민보다 앞에 서서 주도해 나간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결정한 내용을 그대로 설계안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주민참여에 대한 아무런 경험이 없는 주민들에게 알아서 논의하고 결정해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야기가 진행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드는 역할도 하였다. 때로 주민들끼리 내부갈등이 있을 때에도 전면에 나서서 푸는 것이 아닌 타협 가능한 안을 제시함으로써 합리적인 해결이 가능하도록 유도해 나갔다. 이처럼 행정과 전문가가 같이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어떤 위치를 갖고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공원설계를 진행하면서 때때로 주민간 갈등이 있었다. 놀이터를 만드는데 시끄러워서 반대하는 사람, 차량통행이 자유롭지 못하여 반대하는 사람 등. 이럴 때마다 행정과 주민이 서로 중재하고 주민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해결되기는 하였지만 그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못하였다. 공원이 만들어지고 1년이 지난 현재도 서로 서먹서먹한 관계가 되고 있다. 갈등을 풀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서로 진정시키는 타인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 열쇠는 당사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마을만들기에 있어 주민, 행정, 전문가 모두의 역할이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결국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주민이다. 이러한 면에서 마을만들기의 가장 중요한 주체는 주민임을 알 수 있다.

도시계획과정의 새로운 모델을 창출하기는 하였지만 조성 후 지속적인 관리와 운영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현재까지 이어지지 않고 단절된 점이 아쉽다. 여기에서 주민의 지속적인 참여가 중요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고 이것이 주민들만의 책임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참여의 경험이 부족한 주민들에게 학습의 장과 같은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주민 인터뷰〉 **홍성달** (당시 양지마을 공원조성 대책위원장)

공원조성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이 있었을 텐데?

어린이놀이터 유치과정에서밖에 없었다.

이번 일을 통해서 느낀 점은?

주민과 부딪혔다. 그런데 서울대 교수들과 대학원생들이 나서 중재를 해 주었다. 이런 주민끼리 갈등이 생길 때가 어렵다.

주민의 참여와 관심은 어떻게 모아 나갔나?

참여하는 사람은 자주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수 차례 찾아가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방법은 계속해서 얘기해 주는 것이다. 우리주민들이 아무리 좋은 의견을 가지고 구청에 얘기해도 들어주지 않으면 못하는 것인데 이번에 하면서 보니까 결국은 받아주는 것을 느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되면 진행에 무리도 작아지고 결과도 좋지 않을까 한다.

유지·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조성이전에는 쓰레기가 있어도 신경을 안 썼는데 조성되고 나서는 쓰레기가 옥의 티처럼 여겨져서 함부로 버리지 않더라. 조성에 참여했기 때문인지 관리까지는 아니지만 함부로 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구청에 요청을 해서 지금은 공공근로자가 나와서 정기적으로 관리를 한다.

마을에 일어난 변화는?

(웃음) 아무래도 공동체의식이 생겼을 것이다. 겉으로 확연히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만 각자 마음속에는 자리잡고 있을 것이다.

앞으로 계획은?

전체 주민이 만남의 장을 이루지 못했고 몇몇 활동하는 사람들과 유지들만 모이는 정도인데 앞으로 마을집회나 계 같은 것을 꾸려서 모일 수 있는 장을 계획하고 있다.

다른 지역에서 이런 일을 하고자 한다면 어떤 말을 해 주고 싶은가?

특성에 따라 다르겠지만 진행자는 격한 발언과 행동을 피하고 끊임없는 대화와 설득으로 나가야 한다.

<공무원 인터뷰> 송행국 (당시 동작구청 공원 녹지과 주임)

초기 주민들은 어떻게 모았나?

공원조성에 대한 동기부여가 최우선 과제였다. 그래서 공원 주변 거주 주민뿐 아니라 포괄적으로 구성하기 위해서 사당 3동 동사무소에 제안했다.

주민참여방식은 처음인데 어떻게 진행했나?

관이 먼저 제시하고 유도하는 기존의 방식과는 달리 전문가 측에서 먼저 계획과 내용을 제시하고 주민이 직접 논의, 결정하는 방식을 취했다.

행정은 어떤 역할을?

행정은 위크숍 준비, 회의주도, 예산분야 등과 같은 실무를 전담했다. 전반적으로 객관적인 자세로 관망하는 자세를 취했고, 문제가 생겼을 때 중재하는 역할을 했다.

서로의 입장이 상충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했나?

서로의 입장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행정적인 측면, 기술적 측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면서 주민의 양해를 구하는 방식을 취했다. 그랬을 때 주민도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았다.

아쉬웠던 점과 어려웠던 점은?

처음 열정이 끝까지 이어지지 못한 점이다. 이후 자체관리하고 가꾸는 모습이 없는 것이 아쉽다. 그리고 예산이 한정된 상태에서 주민들이 고가의 재료를 요구할 때와 주민 갈등이 있을 때 가장 어려웠다.

주민참여를 해서 좋은 것이 있다면?

주민참여가 없이 행정의 주도로 했다면 보기 좋고, 튼튼한 것, 유지 관리가 쉬운 것, 실용적인 것, 미관상 좋은 것만 고려했을 텐데 주민이 참여함으로써 그 마을의 역사성과 향토성을 돌아볼 수 있었고 또 그것을 연계하여 보다 실질적이고 마을의 정취가 녹아나는 방향으로 접근할 수 있었다.

사당 양지공원 조성 그 뒷 얘기

양지공원 조성 참여 주민 홍성달씨와 함께



공원을 조성하게 된 배경과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참가자와 홍성달씨와 오간 이야기들을 기록하였다. 참가자들은 공간을 이루고 있는 팔각정, 우물형태를 띤 모형, 손발바닥 도장, 아이들 그림 등에 대해 궁금해하였다. 한편 조성당시 참여했던 주민의 손길이 지금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모습에 대해 실망감을 가진 이도 있었다.

주민참여형 도시설계라는 새로운 과정을 창출한 사당동 양지공원 사례는 조성 이후 주민참여 과정까지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또 다른 숙제를 안겨다 주었다.

지속적인 주민참여는 우리에게 영원한 숙제일 수밖에 없을까? 주민참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주민들에게만 책임을 지을 수 있을까?



참가자 : 공원을 좀 더 자연적으로 친근감있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바닥이 그냥 콘크리트로 된 것이 아쉬운데요. 처음부터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까?

홍성달 : 주민들의 의사도 그랬고 전문가의 의사도 그랬고 시멘트 콘크리트를 하지 않고 흙을 밟도록 조성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지형이 경사져 있습니다. 비가 오고 눈이 오면 자연적으로 관리가 어렵다 싶어 시멘트 콘크리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또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계단식으로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방식이 없더라고요. 그중 하나의 생각이 계단을 자연적으로 만들자는 것이었는데 예산상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멘트 콘크리트를 하게 되었고 계단식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너무 삭막하니까 중간중간에 아이들 손, 발바닥 도장을 새겨 넣은 것입니다.

참가자 : 조성할 때부터 주민이 참여해서 했기에 많은 이견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실제 만들고 놓고 보면 실제 생각한 것과는 달라 불편이 있을 것 같은데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사항은 없습니까?

홍성달 : 조성 이후 주민들이 불편사항은 별로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단, 하나 있다면 늦은 시간에 불량청소년이 와서 고성방가하는 것이 있는데 외부의 아이들이 놀러와서 주변사람들 입장을 생각지 않고 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 외 디자인에 대한 불만은 크게 없는 듯 합니다.

참가자 : 주민뿐 아니라 구청, 전문가가 한 팀이 되어 했는데 함께 진행한 과정과 그속에서 각자의 역할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우물모양을 본 따 만든 모형과 팔각정

홍성달 :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 전문가 행정 3인이 합쳐서 만들어낸 작품 아닙니까? 행정 기관에서도 하는 이야기가 주민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주민들의 이익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관건이었지요. 우리 주민도 우리 요구를 충분히 받아 주기를 바라면서 의사를 많이 개진했습니다. 그런데 행정기관에서 받아 줄 수 있는 것도 있고 받아줄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삭제되는 것도 있었습니다. 또 우리는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서울대 김성균 교수에게 기술적인 부분과 관련하여 전화하고 찾아가고 해서 지문을 많이 얻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그림이 여러 번 바졌습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합치시키는 것도 상당히 어려웠어요. 예를 들어 정자를 유치하거나 베드민튼장이나 어린이 놀이터를 유치할 때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결정하는데 합의점을 만들기까지 너무나 많고 다양한 의견때문에 힘들었습니다. 합의가 잘 안될 때는 술 한잔씩 하면서, 애교도 부러가면서 이야기를 했지요. 이런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 좋은 그림이 나오건, 그렇지 않건 나중에 탈은 없으니까요. 이렇게 해도 가끔 별거 아닌 것을 크게 부풀려서 진정서를 내고 고소하고 그랬는데 서로 얘기하는 과정이 없었으면 더했겠죠. 개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능하면 대화와 합의를 통해 일을 풀어갔으면 하는 생각을 생각했습니다. 어쨌건 지난 과정에서 행정이 우리 주민의 의사를 무한히 받아들여려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참가자 : 이 우물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홍성달 : 이곳이 원래 물이 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주택가가 들어서고 하면서 그 흔적이 없어

반갑습니다. 도시연대 <주민참여 마을학교>입니다.



졌는데 그것을 다시 살리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쌈을 파달라고 했었는데 그것까지는 팔 수 없고 그 모습만 되살려 보자고 해서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참가자 : 이 초소는 어떻게 생겼고 무엇을 하죠?

홍성달 : 공원을 다 완성하고 난 다음 관리를 우리 주민이 스스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방법도 서고 아이들 지도도 할 겸해서 저걸 갖다놨죠. 처음에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저녁에 밥 먹고 와서 놀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어른이 있으면 위험하거나 공원을 손상시키는 일이 덜 할테니까요. 그런데 이것도 늘상 하기가 힘들어서 파출소에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초소를 마련했으니 인원을 배치해 달라고요. 처음에는 몇 번 나오더니 나중에는 인원이 모자란다고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에는 구청 차원에서 공공근로 하는 사람들을 배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가자 : 관리도 하고 청소도 해주고 그러니까

홍성달 : 예.

참가자 : 청소도구같은 것은 어디에 놔두고 씩니까?

홍성달 : 저기 앞에 비디오 가게가 있는데 저 집 주인이 총무로 계신 분입니다. 저기에 장비를 다 맡겼습니다. 필요할 때 거기서 가져다 쓰고 합니다.

참가자 : 이 공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 선생님 말고 또 많이 계십니까?

홍성달 : 아무래도 적극적인 참여했던 사람들이 관심이 있죠. 처음에 지켜보던 분들하고 심혈을 기울여 일을 했던 분하고 차이가 있더라고요. 아침에 나갈 때도 둘러보고.

참가자 : 공원에 대한 발전대책이리라던가 하는 것은 없습니까?



홍성달 :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더 발랄 것은 없어요.

참가자 : 사실 기대를 많이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생각했던 거와는 달리 살아있다는 느낌이나 생동감이 별로 느껴지지 않네요. 나무에 명찰이라도 있으면 애들이 보고 배울텐데.

홍성달 : 좋은 지적해주셨네요.

참가자 : 조성 이후 공원을 가꾸고 관리하는 건 꼭 돈이 들어가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율적인 참여와 관심이 있으면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점을 볼 수 없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홍성달 : 조성하면서 시작된 관심이 계속 이어져야 하는데 한편으로 주민들이 자기 생활도 바쁘고, 도시 습성상 구성원들이 바뀌고 하면서 잘 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사당동의 문제라기 보다 우리 사회 전체의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의 체계와 문제가 맞물리지 않을까 합니다.

참가자 : 화장실이나 물을 쓸 수 있는 시설은 없네요.

홍성달 : 공원에는 음수대가 있어야 하다는 것이 제 주장이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예산입니다. 우물을 파기는 어렵고, 또 공동화장실도 있어야 한다고 얘기했죠. 놀러 나왔다가 다시 집에도 갈 수 없고, 목 마를 때 물도 먹고, 손도 씻고,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관리도 어렵고, 예산도 부족하고 해서 결국 만들지 못했죠.

참가자 : 그런데 공공공원에는 공중화장실을 반드시 놓게 되어 있어요.

홍성달 : 그런데도 행정에서 예산상 할 수 없다고 해서 불만을 많이 가졌어요.

반갑습니다. 도시연대 <주민참여 마을학교>입니다.

참가자 : 주말농장을 만들어서 심고, 가꾸고 하다 보면 하나의 자연친화 운동으로 이어지고, 또 주민들이 자기 꽃밭을 만들며 자연스럽게 가꾸러 나오고 조성할 텐데... 텃밭이라고 만들면 좋았을 텐데요.

홍성달 :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주말농장식으로 만들어서 서로 만날 수 있는 공간적 여지를 만들어 놓았다면 관리도 참여도 자연스럽게 잘 되고... 예, 참고하겠습니다.

참가자 : 관에는 소독약을 쳐달라, 나무나 꽃을 좀 심어달라는 식의 요구를 하지만 또 주민도 주민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면, 관공서나 학교 학생들과 협약을 맺어 격주제로 관리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시민단체 100개 만들어 지는 것 보다 주민들이 그렇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인 것 같은데 고려를 좀 해 보시죠.

홍성달 :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시네요.

참가자 : 팔각정은 어떻게 만들게 되었습니까?

홍성달 : 시골 동네에 가면 모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만들려고 했었죠. 그런데 생각보다 크기가 너무 작아서 "여기다 넷이 다섯이 앉아 고스톱 치면 딱 맞겠다" 라고 심한 말을 했죠.

참가자 : 저는 주민참여라고 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왔습니다. 아기자기 하고 주민참여가 실제 눈에 보이는 현장을 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냥 주민이 참여해서 했다는 것 외에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홍성달 : 차이는 분명히 있지요. 옛날에는 관주도로 했던 것을 민의를 많이 반영해서 일방적인 계획을 삼가하려 했는데 그 자체만으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 과정이 계속해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저도 안타깝습니다.

참가자 : 조성에 있어 주민참여를 통해 한만큼 관리에 있어서도 조성과정에서 했던 것처럼 참여가 이어졌다면 좋았을 텐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한편으로 행정차원에서는 관리를 위해 어떻게 해주었으면 하는지요?

홍성달 : 주민으로서 현재 관리에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쉬움을 많이 느낍니다. 공원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단결해서 매사 동네일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아쉬워요. 공원을 조성할 당시에는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조성되고 나니까 이제는 관심을 가져야 할 꺼리도 없고 자기 일도 바쁘고 해서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몇몇이서 만나서 구상을 다시 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에 대해서는 주민들이나 나나 크게 불만이나 바라는 점은 없습니다. 아무튼 변변치 못한 저희 동네를 찾아주셔서 고맙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을 해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동두천 봉암리 마을만들기 조성 사례

마을문고 이야기

1975년 조용순씨 집에서 안방문고로 시작했다. 당시 계몽사 전집을 월부로 사서 놓았더니 딸이 읽고 글짓기에 당선되었다 한다. 이에 농촌이라도 어린이들이 꿈을 가지면 뭐든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갖고 문고를 열었다. 처음에는 120권 정도로 시작했는데 공동으로 농사를 짓고 일일차집을 해서 한푼 두푼 모아 책을 늘여갔다. 그런데 1993년 사정이 여의치 않아 잠시 중단되었다가 1999년 다시 부활했다. 여기에는 도서관 추진위원회의 힘이 컸다. 도서관 추진 위원회는 이전에 몇몇 뜻있는 사람끼리 대학을 가는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장학회를 구성했었는데 90년대들어 다들 형편이 좋아 굳이 지원할 필요가 없어져 장학회를 도서관추진위원회로 개칭하면서 구성되었다. 이 도서관추진위원회에서 모은 2천만원중 1천 5백만원으로 책을 구입하였으나 정작 책을 읽을 공간이 여의치 않았다. 행정의 힘을 빌려보기로 하였다. 그래서 면장과 구의원 등을 불러 놓고 봉암리 주민이 그동안 마을문고활동을 해 온 애기와 공간과 시설이 없어 안타까운 점을 피력하였다. 이에 행정에서 뜻을 좋게 받아들여 1억원을 지원해주게 된다. 이 지원으로 번듯한 마을문고 건물을 갖게 되었다. 이때가 1999년이다.



조용순씨 집에서 시작된 안방문고. 1975년 2월부터 1978년 7월까지 운영. 책을 빌려주는 꼬미는 조용순씨 넷째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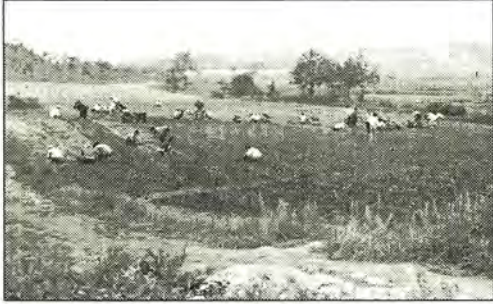


조용순씨 넷째 딸이 글짓기 대회에 나가 상을 받는 모습. 가난한 농촌의 아이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마을문고를 시작하는 계기를 가져다 준다.



1975년 당시 꼬마들이 책을 사려고 고물을 수집하고 파는 장면

반갑습니다. 도시연대 <주민참여 마을학교> 입니다.



1978년 당시 마을문고 책 구입 기금을 만들기 위해 뽕뿌리양묘 공동 작업 장면



책을 구입하기 위하여 부인회와 같이 일일차집을 운영



도서관 추진위원회 구성원들



안방문고 이후 최초로 마련된 마을문고 건물



1999년 새롭게 단장된 마을도서관



마을도서관의 독서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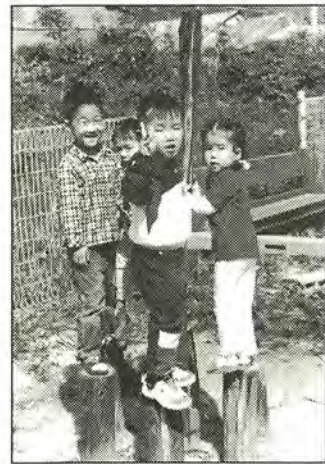


마을도서관의 책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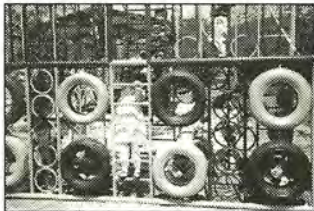
놀이기구 이야기

조용순씨는 어린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았다. 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터에 서울에서 어린이 도서 전시회가 열린다고 직접 참여하게 된다. 그 중『아이는 이렇게 키워라』라는 책이 있었고 그 안에 모험의 놀이터가 소개되고 있었다. 요즘은 아이를 하나, 둘만 낳아 키우다 보니 과잉보호를 함에 따라 아이들이 자립심이 없어 지는데 마침 모험의 놀이터로 자립심을 보충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책을 쓴 사람에게 찾아가 직접 물어보고 놀이기구를 하나 하나 손수 제작하게 된다.

놀이기구라 해서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결코 아니었다. 조용순씨의 말에 따르면 기계톱 하나면 충분하다고 한다. 톱 하나면 어느 마을이고 돈 안 들고 쉽게 만들 수 있다고 한다. 또 사용되는 재료는 인근 야산이나 공사장에서 쓰고 남은 나무와 폐타이어를 이용하였는데 이는



반갑습니다. 도시연대 <주민참여 마을학교>입니다.



주위의 나무와 폐타이어를 이용하여 만든 어린이 놀이기구들



놀이기구를 만드는 데 필요한 유일한 도구, 전기톱. 조용순씨는 이것 하나만 있으면 못할 게 없다고 한다.

시중에서 구입하는 반듯한 기계덩이 보다 오히려 아이들에게 정서적으로 더 친근감을 줄 수 있다. 이 놀이시설들은 10년이 넘었음에도 아직 튼튼하게 남아 있다.

자연학습장 이야기

90년대 초 어린이 집에 앵두나무가 한 그루 있었다. 앵두가 익었을 때 아이들을 데리고 와 “앵두를 따 가서 가족들과 먹어라” 하고 따 가게 하였다. 어린마음에 자기가 따서 누군가에게 가져다 준다는 것에 아이들은 감동했다 한다. 어린이 집을 졸업하고 학교를 다닐 때 지나가면 서도 “저기 우리 앵두나무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앵두를 따러 온다. 이렇게 되자 앵두나무가 많이 모자라게 되어 2천평 농장에 앵두나무를 심게 되었다. 조용순씨는 “이제는 앵두가 먹고 도 남는다” 라며 웃으신다.



〈어린이 자연학습장〉

어린이 교통 안전 교육 이야기

어린이 집의 선생님이나 학교 선생님이나 아이들이 교통사고로 다칠까봐 교육활동에 장애를 많이 겪는 것을 봤다. 한참 뛰어 놀아야 할 나이에 안전이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 어린이 교통안전 연구소에 청년회, 부녀회 회원들에게 교육을 시켜 달라고 요청하였다.

교육을 받은 후에 횡단보도와 신호등을 직접 만들어 양주군, 동두천시 어린이 집 아이들 300여명을 모두 불러 1차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법을 주되게 교육을 하고 횡단보도를 제대로 건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기 위해 사고가 나는 모습을 가상으로 꾸며 보여주기도 했다. 이 때 앰블런스가 마침 동네에 있어 사고가 나면 빨간불을 키고 소리를 내며 앰블런스가 달려오게 설정을 하였다. 그것을 보던 한 아이가 실제 벌어진 사실인 줄 알고 막 울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처럼 가상으로 한 번 보여주고 실제 교육을 하는 것이 아이들에게는 효과가 크다는 것을 알았다 한다. 지금도



길을 건널 땐 오른손을 들고 좌우를 살피며 걸어야 한다는 내용을 교육. 이렇게 매년 한번씩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길을 잘 못 건너면 위험하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 마을어른들이 가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 이 모습을 보고 한 어린이는 실제 상황인줄 알고 울음을 터뜨렸다 한다.

반갑습니다. 도시연대 <주민참여 마을학교>입니다.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교통안전 교육 역시 어느 마을이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어린이 집

1970년도 말경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마을 근처 군부대 안에 필승유치원이라고 있었다. 군인 자녀들은 아침마다 제복을 입고 미니버스타고 유치원에 가곤 했었다. 그러나 마을의 아이들은 이 모습을 부러운 눈으로 쳐다만 볼 수밖에 없었다. 마침 신문에서 장난감 도서관을 운영한다는 기사를 읽고 봉암리 아이들에게 유치원은 아니지만 아이들이 어울릴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줘야겠다는 생각에 장난감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는 부산을 직접 방문하였다.

그곳에서 얻은 정보와 지식으로 봉암리에도 비슷한 것을 만들자고 생각하고 서울의 방산 시장에 가서 장난감을 싸게 구입하였다. 처음에는 마을회관에 문을 열었다. 아이들은 말할 것도 없이 무척 좋아하였다. 그러나 처음 운영하니깐 관리가 잘 안 되어 바로 문을 닫을 수밖에



1993년 어린이집 건립을 위한 첫 작업



마침내 완성된 어린이집 개관식



어린이집 87년도 졸업식



2차로 지어진 어린이집



어린이집 안에 있는 수영장

없었다.

그러던 차에 이전부터 운영하고 있던 봉암 마을문고가 전국의 우수문고 마을로 뽑혀 성공사례를 발표하는 기회가 주어졌다. 사례를 발표하고 난 뒤 그 자리에 참석한 경기도의 어느 국장에게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선뜻 뜻을 받아 들인 군청은 재원을 지원하여 1983년에 건물이 완성되고 개관식을 하게 되었다.

새마을금고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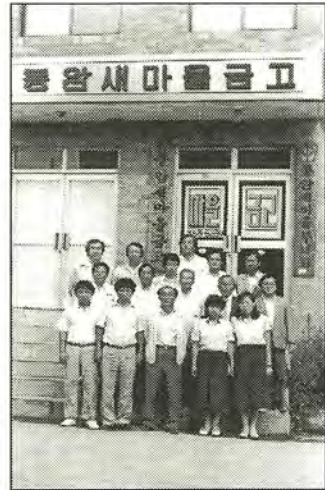
마을문고를 시작할 당시 35명의 주민들이 모여 조금씩 돈을 모으기 시작했다. 당시 1975년 경 가난하지만 돈은 써야 하겠고 그래서 고리채를 쓰는 사람이 많았다 한다. 이에 저축을 해서 고리채부터 정리하자는 취지에서 시작했던 것이다. 처음에 모은 돈이 7만원이었다 한다. 몇 년 지나니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이자가 많이 생겼는데 이를 나누어 줄 방법을 몰라 신용금고에서 교육을 받기도 하였다. 지금 현재는 재산이 90억이 넘는다 한다.



이익배당 방법을 배우고 있는 모습



그동안 우리가 얼마를 모았을까?



처음으로 가져본 금고 건물과 그 주인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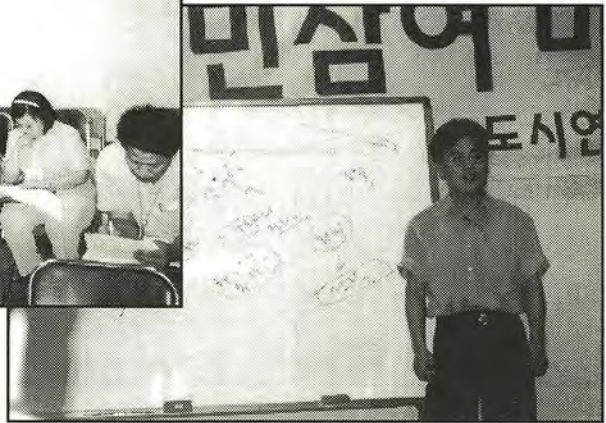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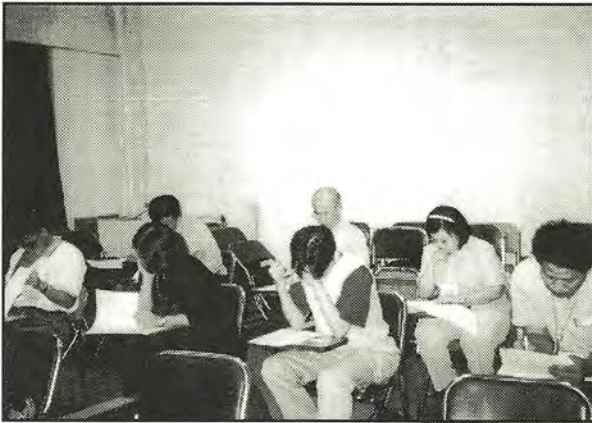
최근 지어진 금고건물



금고 내부 모습

주민참여 마을학교 5마당

내가 원하는 마을만들기



〈강의〉

마을만들기와 주민참여 - 최종덕 (한국주민운동정보교육원)

〈마을만들기 워크시트 작성 및 발표, 코멘트〉

〈워크시트작성과 발표를 마치고〉

최종덕 (한국주민운동정보교육원)

〈마을만들기 길라잡이〉

마을만들기와 주민참여

최종덕 (한국주민운동정보교육원)

실제 마을만들기를 하기 위해서 주어진 워크시트의 빈 칸을 채워보는 시간이었다. 각자가 워크시트를 작성하고 발표하기 이전 최종덕님의 설명이 있었다. 주어진 강의자료가 없기에 강의내용을 전부를 옮긴다.

저는 98년도부터 지역현장에 대한 관심을 구체적으로 갖기 시작했습니다. 지역현장이라는 것이 그렇다고 서초구나 강남구 같은 지역이 아니라 빈민계층의 주민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의 공간을 삶의 공간으로 만들어 가는 모습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지역현장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주민 지도자, 지역의 활동가를 위해서 훈련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많이 알고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30년동안 사회내 잠재되어 있던 주민참여 운동을 소개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삶의 공간, 마을의 공간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인가를 소개하려 합니다.

사실은 우리 스스로 하지 않으면 '잘 살아 보세' 라는 새마을운동이 되죠. 우리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주민참여를 통한 마을만들기를 하자는 것이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찾자 합니다. 중요한 것은 주민참여인데 그것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 갈까 합니다. 주민참여는 어떤 측면에서 진행될 수 있는 지, 무턱대고 참여시키자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도 서울에서 대규모 재개발지구 중 하나가 난곡 지역, 행정상 얘기하면 신림 7동인가요, 그 지역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몇 백 세대가 살고 있고 동네 아랫부분에 동사무소가 있고, 우체국이 있고, 공중전화박스가 아래에 있었죠. 이 지역에는 독거노인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당시 많았어요. 그 사람들은 전

반갑습니다. 도시연대 <주민참여 마을학교>입니다.

화하러 내려오기가 힘들잖아요. 동사무소 근처 낙골교회라는 곳에 한 전도사가 있었는데 지금 소위 말하는 마을만들기를 하기 위한 활동가였죠. 이 사람이 전화기 위치 때문에 불편해 하는 것을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저기 연락하면 사람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면 주민참여 마을만들기가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전도사가 주민들하고 밤마다 술을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 주민들이 하나, 둘 이야기합니다. “인간을 왜 무시하는 거야. 동사무소 근처에 만들어 놓고 답답한 놈들이 내려와 하라는 것 아니야” 전도사가 또 한 마디 하지요. “그러면 왜 얘기 안 했습니까?” 주민들은 할 생각을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전도사가 “한번 해 보십시오” 라고 하고 나이 든 사람 몇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한국통신과 동사무소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만들어 보자는 얘기가 나왔어요. 여기서 회의가 시작되고 해결방안들이 마련이 되고 했습니다. 그러면 보통 길에 있는 공중전화는 술 먹고 발로 차게 되지만 이 공중전화는 주민들에게는 아주 귀중한 것이 되지요. 만약 전도사 혼자 만들었다면 “어 좋네” 하고 넘어갔을 거예요. 주민참여 마을만들기도 이런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전도사가 또 물어요 “이거 다음에 뭐할까요?” 절대 뭐 하자고 직접적으로는 얘기 안해요. 상황이 어떻다고 얘기하고 주민들이 말을 꺼내게 하지요. 이런 과정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가 숙제죠.

사당동, 삼덕동 갔다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두 곳 다 다녀오신 분 계십니까? 차이가 뭐던가요?

사당동 양지공원 경우는 자기들이 주차장 건립 반대 대책위도 만들고 싸워 가면서 같이 했잖아요. 그리고 조성 후에도 방범소 차린다, 돈도 낸다, 그런데 대구는 만약 문제가 생기면 주민들이 책임을 안 질걸요. 다 김경민씨에게 갈거예요. 같이 책임을 지고 공동이 참여한다는 것이 중요하지요.

물론 이게 좋다 나쁘다 보다 사당동 같이 주민참여를 통한 마을만들기를 중시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주민참여를 통한 운동을 역사적으로 소위 주민자치운동, 지역운동 등 여러가지 표현이 있는데 마을만들기는 당연히 마을안에 있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좋은 마을을 만들자는 것이잖아요.

이제 워크숍 방식으로 진행을 해 볼까요.

마을만들기를 할 때 우선 현안찾기, 즉 주제를 발굴하겠죠. 그리고 실행합니다. 그 다음에 마을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죠. 여기까지는 시작하는 입장에서 지역을 철저히 조사하고, 분석하고, 종합하고, 문제를 파악합니다. 우리가 관심을 두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

분은 이러한 계획에 따라 활동하면서 주민을 어떻게 참여시키고 조직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주민을 참여시키는 과정이 없으면 바로 혼자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주민참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한 번 마을만들기 구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 복사물을 나누어 드릴게요.

마을 만들기 전략 세우기 Worksheet

OOO 마을 만들기 주제명 :

A. 기획 주제 지역의 개략적인 상황과 특징은 무엇입니까?

1. 상황 - 1)
2)
3)
2. 특징 - 1)
2)
3)

B. 주제를 선택한 중요한 동기는?

- 1.
- 2.

C. 전략 세우기 주제의 목적(Goal)은 무엇입니까?

- 1.
- 2.
- 3.

D. 전략 세우기 주제의 목표(Objective)는 무엇입니까?

- 1.
- 2.
- 3.

E. 대상과 범위를 설정해 보십시오?

1. 대상(어떤 주민, 어떤 누구)
2. 범위(어떤 지역, 얼마의 규모)

F. 기회요소 / 위협요소 파악하기

| 긍정적요인 | 기회요소 | 활용방안 |
|-------|------|------|
| | | |

| 부정적요인 | 위협요소 | 극복방안 |
|-------|------|------|
| | | |

G. G. 단계별 세부 계획을 세워보세요.

| 단계와 시기 | 단계별 목표 | 내용 | 비고 |
|----------------------------|--------|----|----|
| <제1단계>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 <제2단계>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 <제3단계>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H.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서 참여주민을 어떻게 조직하겠습니까?

1. 추진 그룹
2. 조직방법

I. 이 전략이 실행되면서 주민 또는 지역사회에 어떤 파급효과가 있습니까?

1. 주민
2. 지역 사회

J. 이 전략을 실행하는 단계별 평가 또는 종합 평가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 단계별 평가
2. 종합 평가

※ 참고로 할 항목

내부 추진 구조나 의사소통체계는 어떻게 구성하시겠습니까?

1. 구조
2. 의사소통체계

이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획자는 지역의 누구 또는 어떤 결정 구조와 상의해서 추진하시겠습니까?

1. 누구 (최초 발의)
2. 결정 구조(어떤 회의를 통해서)
3. 구성원과의 동의과정

이 전략에 반드시 필요한 내부, 외부의 인적 또는 전문자원을 어떻게 동원(활용)하시겠습니까?
(Network) (타지역 사례 경험)

1. 지역사회 내부 자원
2. 외부 전문자원

이 전략의 필요 재정 자원 또는 시설 자원은 얼마이며 무엇인가? 이것을 어떻게 마련하시겠습니까? (필요재정과 시설)

1. 재정 규모
2. 재정 확보 방법
3. 시설 규모
4. 시설 확보 방법

일단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 아파트든 주택가든 상관없고요. 구 단위의 범위를 생각해서도 좋습니다. 주제내용을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꽃향기로 피어나는 마을만들기, 아이들이 뛰어노는 골목만들기, 서로 하나되어 어울리는 마을만들기 이런 것도 좋고요. 제목을 한 번 정해 보시고요.

그 다음 과정에서 제가 가이드를 제시해 놓았는데요. 첫번째 지역의 개략적 상황과 특징은 무엇인가? 그 다음 주제를 선택한 동기, 주제의 목적과 목표는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목적과 목표는 구별을 해야 하는데 목적은 왜 할 것인가에 대한 답입니다. 목표에 대해서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지역에서 사람들과 일을 하다 보면 애초의 방향과 취지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 때 목표가 구체적으로 세워져 있으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데 용이합니다. 목표설정방법에 대해 제가 소개를 할게요. 목표를 설정할 때는 구체적이어야 하고, 수치로 측정가능해야 하고, 전체 프로그램과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시간이 설정되어야 합니다. 이 4가지를 다 고려해서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단계로 '마을만들기 주민위원회 구성을 6개월간 하겠다' 라고 목표를 잡을 수 있겠죠. '하나되는 마을만들기' 면 금방 하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6개월안에 10명으로 구성된 하나되는 주민위원회를 구성하겠다' 이런 식으로 목표가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예를 들어 '더불어 살기 위해서' 라고 목적을 설정하고 목표를 '우리 서로 하나된다' 라고 설정했다고 하면 하나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하나될 것인지를 정해줘야겠죠.

그리고 일주일에 만나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또 잡아야 하죠. 그게 바로 사업계획이 되고 프로그램이 되겠죠. 이것이 갖추어 져야 실현가능해 지겠죠. 또 일주일에 열 번 만난다는 달성가능하지 않은 목표를 정해서도 안되겠죠. 그 다음에 만나는 것과 하나된다는 것이 서로 일관성이 있어야 하죠.

다음 항목인 대상과 범위에서 대상은 주민, 범위는 해당지역이 되겠고요.

다음 항목인 전략의 기회요소와 위협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회요소는 긍정적 요소이고, 위협요소는 부정적 요소입니다. 우리가 이 주제를 가지고 풀어갈려고 하는데 기회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는 무엇인지,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요소는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 실제 진행해야 할 일들을 실행하기 위해서 단계별로 정해봅니다.

이제 한 번 해 볼까요. 일년은 기니까 6개월짜리 프로그램을 한 번 해 볼까요. 그냥 6개월 동

반갑습니다. 도시연대 <주민참여 마을학교> 입니다.

안 할 수 있는 것으로 짜 볼까요? 1년 기획으로 해 볼까요? 반응이 없네요. 1년 기간으로 해 볼까요.

아마 보통 이런 단계가 되겠죠. 준비 - 실행 - 평가. 이 평가는 그 다음에 다른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 나뉘드린 워크시트 H번을 보면 '이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서 참여주민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에 대해서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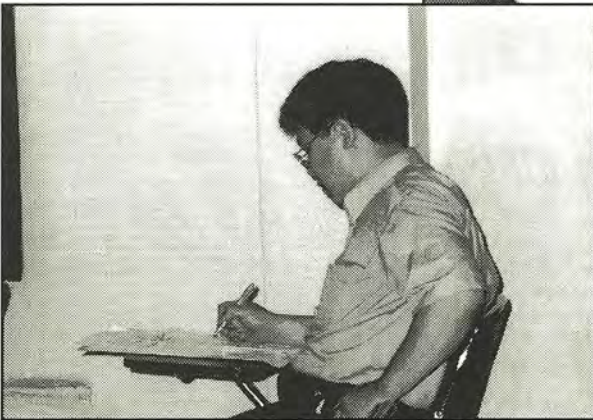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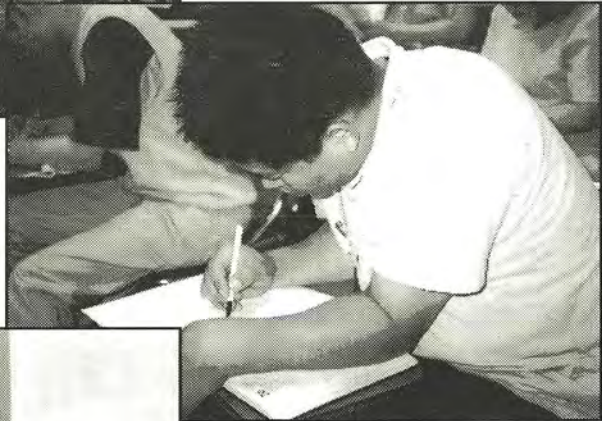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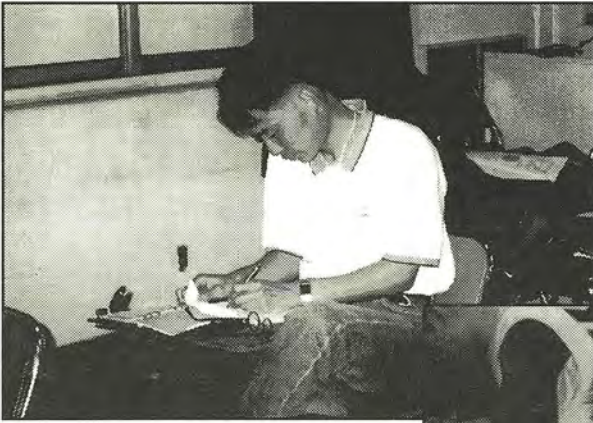
참여주민은 어떤 주민인데 어떻게 모을 건지를 계획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한 명씩 만난다. 하루에 열 명씩 전화한다. 반상회같은 것을 조직한다.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 추진 주체그룹, 주민지도 그룹을 어떻게 발굴, 조직하고 만날 건가, 어떤 주민들이 주민지도그룹이 되었으면 좋겠는지를 계획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마을만들기에 관심있는 주민 중에 어떤 주민을 추진주체로 해야 될 것인지 여러분과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조직했으면 좋을 지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 워크시트 I번 '이 전략이 실행되는 동안 지역사회에 어떤 파급효과가 있겠습니까?' 항목입니다. 주민에게 어떤 영향이 미치고 지역의 환경은 어떤 변화를 가져오도록 하겠느냐는 질문이지요. 예를 들면 아파트 두 동의 주민들이 서로 만나 웃고 하는 변화를 생각할 수 있겠죠.

다음 J번은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항목입니다.

자, 이제 한 번 상상력을 발휘해서 기획을 해 보십시오. 지금 하시는데 다 안 채워도 되고요. 아는 만큼 하실 수 있는 만큼만 해 보십시오. H번은 꼭 하셔야 됩니다.

워크시트 작성과 발표, 그리고 코멘트



원래 계획은 모든 참가자가 발표를 하고 서로 코멘트를 하고자 하였으나 시간상 한 명의 참가자만이 발표를 하였다.

반갑습니다. 도시연대 <주민참여 마을학교>입니다.

발표

저는 주제를 '주차분쟁이 없는 마을만들기'라고 정해봤습니다. 요즘 주차문제가 많이 심각하기 때문이죠. 제가 만일 계획을 제대로 세웠다면 파급효과가 크겠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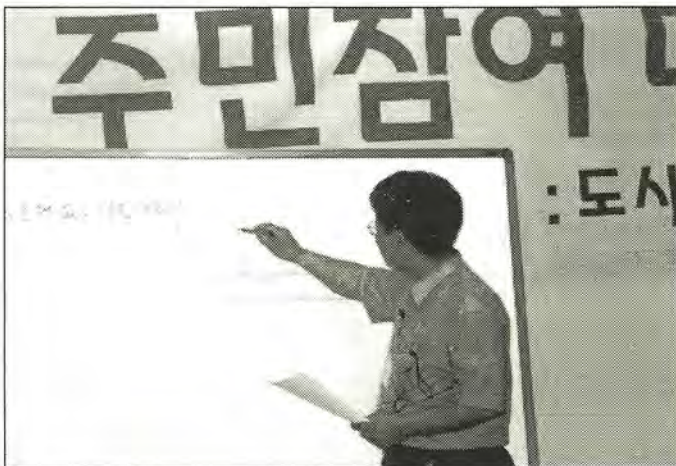
잠시 설명을 돕기 위해 저희 아파트 형태를 좀 알려 드릴게요. 저는 집이 인천입니다. 여기 초등학교가 하나 있고 도시계획도로가 단지 내에 있습니다. 아파트가 다섯 동이고, 600세대가 입주해 있고, 뒤에는 산동네이고 그 앞에 막다른 골목이 있고,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10년 전에 지어진 아파트이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합니다. 현재는 2층 3층 주차로 인해 불만이 가중되고 있고요. 주차예절 결핍으로 인한 주민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징은 아파트내에 초등학교가 있고 협소하지만 지하주차장이 있습니다.

목적은 '하루 일과의 시작과 끝이 즐거운 하루를 맞기 위해서 주차 분쟁 요소를 제거한다'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목표는 '주차공간확보 및 효율적인 활용방안 강구'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목표는 '주차예절 지키기'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대상주민은 차량소유주민, 대상지역은 아파트 단지 600세대입니다.

기획요소는 초등학교가 있다는 것과 단지내 도시계획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계별 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준비기간으로 잡아서



차량현황, 주차공간용량, 주민설문조사를 통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까지 잡았습니다. 2001년 10월 1일부터 2002년 3월 30일까지 실행단계로서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공간을 설계하고, 다른 지역의 공간활용사례를 분석하고, 초등학교에서의 야간주차방안을 모색하고, 홍보물을 제작 배포해서 예절 지키기를 확대하고, 또 자유실천방안 토의 및 워크숍 실시, 승용차 함께 타기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3단계로 2002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평가단계로서 주차질서 상태점검을 하고,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결과로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 참여주민은 차량소유주민이 되겠고요.

조직방법은 동별로 추천을 받아 모으기로 했습니다. 추진주체로서는 현 동대표 및 자발적 참여주민을 대상으로 잡았고 조직방법은 현재 구성되어 있는 주민대표 자치기구를 최대한 활용해서 산하 추진위 또는 비상대책위를 구성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

코멘트

지금 주차 분쟁 요소 제거 문제로 목표를 '주차공간 확보 및 효율적 활용방안 강구, 주차예절 지키기' 로 잡으셨습니다.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사례는 아직 조사는 안 하셨죠?

그런데 어차피 주민을 만나기 전에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하니까 개인적으로 정보를 취합해서 많이 가지고 있다면 목표는 달라 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표에서 '활용방안 강구'가 아니고 '학교라는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학교의 교장이나 운영위를 어떻게 섭외하고 이야기를 풀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더 구체적으로 잡히겠죠.

그리고 워크숍같은 것도 내부에서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면 어떤 것을 위한 워크숍인지 더 구체적으로 잡힐 수 있겠죠. 지금은 이제 생각하시는 것이니까 그렇고.

추진위원회 부분은 굉장히 바람직한 부분입니다. 추진위원회를 기본적으로 구성할 때 기존에 있는 주민대표를 적절히 활용하는 하는 방안들은 바람직하요. 아파트 단지내에 동대표가 다 있으니까 굉장히 잘 선택하신 것 같고 또 현실적이기도 하네요. 이렇게 하지 않고 만약에 뜻 맞는 사람들 몇 명이 하기 시작하면 기존의 아파트 대표기구와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추가한다면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를 꼽을 때 동대표 기구에 소속된 동대표들의 성향분석을 해서 동대표들의 어떤 분이 동의할 것 같다, 동의하지 않을 것 같다, 어떤 분이 관심이 많다 하는 부분들이 철저히 다 반영이 되면 사전 추진위원회 구성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더 수월해 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차 공간을 설계하고 마련하는 기획단계에서는 추진위원회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추진위원회의 결정과 판단에 따라 이후 계획한 부분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개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주민참여적인 개념으로 보면 몇 명이 할 것이 아닌 이상 최대한 많은 사람이 역할을 하도록 하게, 또 평가를 위해 내용을 만드는 것도, 점검하는 것 조차도 이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차예절 지키기 부분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홍보전단지를 만들건지, 아니면 주차예절에 대한 주민토론회를 열 것인지 여러가지 형태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차예절을 지키게 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건지 이런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할 것 같아요. 주민들이 띠 두르고 캠페인 할 것인지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죠. 가장 효과적으로 하면서도 가장 참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난 번에 성북동 골프장 짓는 문제 때문에 분쟁이 있었다고 하지요. 인근에 있는 아파트 동대표는 반대하고, 그 지역과 떨어져 있어서 직접적으로 관계없는 사람들은 찬성했다고 하지요.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골프장 개발업자는 반대하는 주민대표를 만나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근처의 아파트 동대표를 만나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골프장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대안 비슷한 것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내 봤어요. 실제로 골프장 건설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매일 공 딱딱거리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생각해 봤냐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주민들이 이곳 말고 조금만 더 가면 골프장이 하나 더 있는데 그걸 이용하면 안 되겠냐고 제안했다고 해요. 이런 의견을 바탕으로 반대를 해서 지금은 골프장 건설이 무산이 됐거든요.

차량문제도 이런 분쟁이 있을 수 있죠. 서로 주차하려고 하는 문제, 외부에 손님 오면 주차 때문에 싸움하고, 이런 문제들을 주민들 내부에서 철저히 토론하고 해결해 가는 과정들이 필요하죠. 간단하게 해결될 것 같아도 토론하면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올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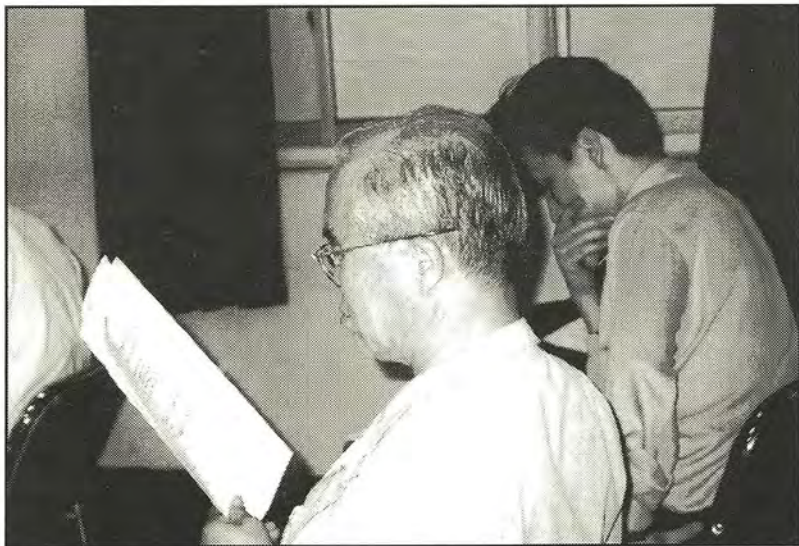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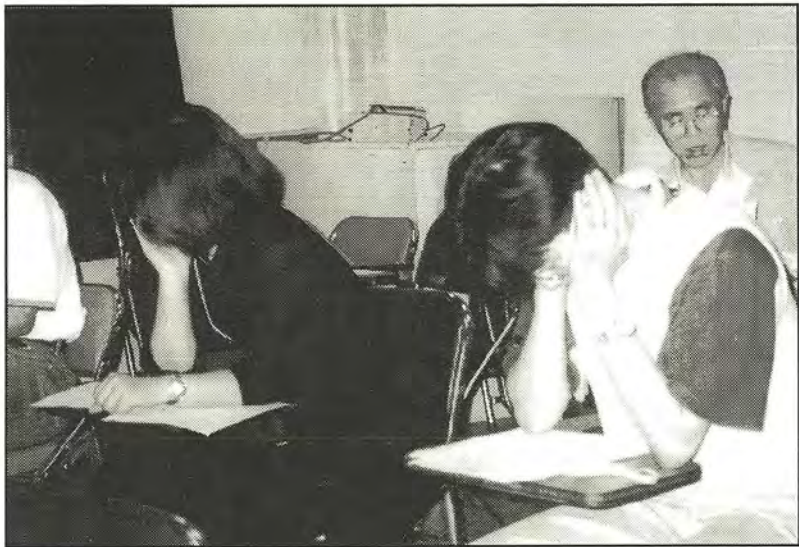
이 쏟아져 나온 얘기들을 모을 때 유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추진하는 사람들은 주민이 결정할 때까지 못 기다리는 경향이 있어요. 뭐냐하면 추진하는 사람들은 이미 답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답대로 가야 하는데 주민들은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을만들기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주민들이 참여한다는 전제하에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막 끌고 간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 굉장히 부족하고 늦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하는 주민들이 이 정도 수준밖에 못한다면 그 수준대로 주민을 믿고 나가야 합니다. 추진주체가 설정한 명분대로 진행하면 그때는 깨집니다. 바

반갑습니다. 도시연대 <주민참여 마을학교>입니다.

로 이 점을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 '주차문제 해결 방안 강꾸'를 먼저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오히려 지금 필요한 것은 주차예절 지키기가 먼저 되어야 할지도 몰라요. 그리고 예절 지키기 운동을 하다보면 '예절만으로 해결될 것 같지가 않다'는 의견이 주민들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 내부적으로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공청회, 워크숍을 해 보자'라고 자연스럽게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추진주체가 그림을 다 그려놓고 시작하면 주민들이 참여할 여지가 없어집니다. 몸뚱이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의사결정 과정들이 다 녹아 들어가는 참여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자기 것으로 받아 들어서 움직여 가는 것, 그게 마을만들기 아닐까요. 그 속에서 문제가 해결되어 가는 것, 주민들은 그걸 원할지도 몰라요.

워크시트 작성과 발표를 마치고



반갑습니다. 도시연대 <주민참여 마을학교>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례 하나 얘기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YMCA의 '생활협동조합을 통한 살기좋은 아파트 단지 만들기'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생활협동조합이라는 프로그램이 애초에 있는데 여기에서는 음식 나누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단지에 배달을 할 때 동네 한 분한테 음식을 갖다놓고 이 사람에게서 물건을 다 받아가는 걸로 작전을 짰어요. 개별적으로 다 안주고 말이죠. 그렇게 되면 그 공간이 사랑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자주 와서 차 마시고 하다보면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같은 소위 활동하시는 분이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뭐 해봅시다. 뭐 해볼까요?" 하고 나온 게 "독서모임을 해 봅시다" 라고 된 거죠. 프로그램이 음식 나누기만 하다가 독서모임으로 늘게 되었죠.

이걸 누가 담당할 것인가 얘기하다 한 명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 독서모임에서 활동을 하던 사람들이 "학교운영위에 관심을 가져보자" 하고 의견을 냈어요. 요즘 학교 교육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우리 아이들문제를 우리가 책임지자라고 얘기가 된 거죠. 그러면 활동가는 주민들의 이런 활동이 잘 되도록 돕는 거죠. 나서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걸 통해서 이 아파트 단지는 푹푹 뭉치고 주민들이 다 자기역할을 갖게 되고, 또 아빠들이 자기들 모임을 가져 '아빠하고 함께 하는 산행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뭐하느냐 하면 '들꽃이름 맞추기 운동'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꽃씨를 받아서 심기 시작하고, 꽃이름 익히고 이런 식으로 이어진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해마다 학교운동장에서 '가족 한마당'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재밌죠.

광명 YMCA에서는 주민들을 소모임으로 조직하는 전략을 짰 거죠. 소모임의 장(長)을 '등대'라고 하고요. 구성원들을 '촛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촛불마다 자기 역할을 다 했어요. 배달하는 사람, 회계하는 사람, 독서그룹 연락하는 사람... 다 역할을 쥐서 한 달에 한 번 주제별로 돌아가면서 역할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생협 구성원들이 내일, 내일모레 수련회 간다고 하더라고요. 수련회하면서 '살기 좋은 우리마을 만들기 워크숍'도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하는 것이지 실제 활동가들이 하는 것은 별로 없어요. 활동가들은 고무자, 촉진자, 촉매자 역할을 한 거죠. 지도자가 아니고, 주민이 주체가 되고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은 조직가라고 합니다. 뒤에서 소리나지 않게 조직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런 상상들을 많이 한번 해 보십시오.

주민이 있고요, 주민지도자가 있어요, 활동가, 조직가도 있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활동가가 되겠죠. 실제 마을만들기 운동은 주민들이 스스로 하기에는 잘 안돼요. 주민지도자가 발굴됐다해도 주민이 따라오지 않으면 잘 안돼요.

처음에 활동가가 주민들을 만나죠. 거기서 뜻이 맞는 사람을 찾죠. 주민지도자를 발굴하는 것이죠. 그다음에는 활동가는 주민지도자와 만나서 일을 풀고 주민을 만나는 것은 주민지도자가 만나서 일을 풀어가죠. 이때부터 이 사람, 즉 활동가는 촉매역할만 하면 돼요. 이런 역할들을 해 내느냐 안 하느냐가 주민참여활동을 보장하느냐 안 하느냐를 알려 주겠죠.

활동가 이 사람들이 다 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몸뚱아리는 참여하지만 정신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걸 해야겠다는 의식이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차피 마을만들기는 좋은 세상을 만들자고 꿈꾸는 것인데 그 꿈이 잘 표현되도록 만들어 주기만 하면 됩니다. 모두가 다 느끼는 문제를 어떻게 행동으로 풀어 나오게 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작업하신 것은 마을만들기할 때 염두해야 할 것을 다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짠 계획대로 하면서 고려해야 할 지점이 있어요. 8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왜 할려고 하는지, 목적 이 부분을 항상 잘 정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을 가지고 마을만들기로 가는데 어떤 프로그램이 배치되어야 하는지,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캠페인을 할 것인지 토론회를 할 것인지와 관련한 것이죠. 세 번째는 일을 풀어가는 여러분과 주민주체의 능력과 자질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주민주체를 세워 놓았는데 이 분이 혼자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닌지, 정보를 파악할 능력이 있는지, 모임을 끌어가기 위한 능력이 있는지, 없는 지도 점검을 하셔야 합니다. 넷째, 의사소통부분인데요. 내부의사소통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추진위원회를 꾸렸다면 어떻게 팀워크를 잘 맞춰 풀어갈 것인지 이 부분을 고민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나서 잘 꼬셔서 지도그룹을 세우고 추진그룹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하고 여러분들 의견이 자주 대립된다 이러면 어떻게 할거예요. 기다린다고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조절해 낼 것인지, 다른 주민간 사이의 팀워크 안 맞을 때는 어떻게 풀 것인지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외부의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인적자원, 물적자원 두 가지 다를 포함합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이 추진위원회가 어떤 조직체계를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위원장을 두고 그 아래에는 역할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의사결정이 민주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구조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반갑습니다. 도시연대 <주민참여 마을학교>입니다.

요, 일곱 번째, 이미지입니다. 우리가 마을만들기 하려는 이미지가 잘못되면 집단 이기주의가 될 수도 있어요. 주차문제 해결하려다 장사하는 차량이 못 다니게 하는 집단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긍정적, 보편적 가치를 담아낼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하셔야 합니다. 청계산 화장터 경우 지금은 집단 이기주의적 이미지가 강하죠.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이미지가 중요합니다. 자기 주장이 절실하고 주민들 대부분이 원해서 하는 것이라 하지만 외부에 이미지가 잘 못 비춰지면 힘을 많이 못 받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는 마을만들기가 어떤 매력이 있는지, 사람들이 뭘 보고 참여하고 동의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하셔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다 만만하고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다 아시고 계시죠. 막상 해 보면 참 어렵습니다. 그 때 이런 점을 다시 되새기면서 차근차근 정리하면서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오늘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해서 참여를 배제시킨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마을만들기 길라잡이

CO (Community Organization)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1.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를 구별하라.
2. Plan (계획) Planing (기획) 과정에 유의하고 구별하라.
 - 기획은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으로 이해하여 반드시 행동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것이다.
3. CO (Community Organization) 프로그램과 CD (Community Development) 프로그램이 상호관계성을 중시하라.
4. 목적 (Goal) 목표 (Objective)를 구별하라.
5. 프로그램의 개발과정
 - 1) 지역 여론조사 - 다음의 사례를 가지고 의식을 조사하기
 -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왜 그것을 원하는가? 장래에 무엇을 하고 있는가?
 - 그들의 사고방식은 무엇인가? 삶의 투자가치를 어디 두고 있는가?
 - 그들 삶에서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생각되고 이익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 2) 지역 환경조사 (SWOT)
 - 긍정적인 대상은 누구인가? 부정적인 대상은 누구인가?
 - 소비, 여가, 문화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들은 어떤 조직체를 신뢰하는가?
 - 변화에 대처하는 능력은 어느 정도인가?
 - 3) 지역 성격 발굴
 - 그들이 잘 가는 곳은 어디인가? 왜 그런가? 지역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 그들이 받고 싶은 교육은 어떤 것이 있는가? 자기 개발을 위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반갑습니다. 도시연대 <주민참여 마을학교>입니다.

- 지역사회에서 나에게 제일 관심을 끄는 것은 무엇인가?
- 지역사회에서 참여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 지역의 어떤 문제가 그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가?
- 어떤 공동된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하고 싶은가?

4) 프로그램 개발 기준

- 프로그램의 목적 (철학, 비전, 가치)를 실현하는 프로그램인가?
- 프로그램의 부가적 이익과 질은 있는가?
- 프로그램의 위기에 대하여 대처할 수 있는 대안이 설정되는가?

5) 프로그램 조직

-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체계가 유연하며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가?
-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성장이 일어나도록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가?

6. 프로그램의 내용들

- 1) 일상적인 프로그램 - 탁아소, 공부방, 쉼터, 녹색가게, 협동조합, 자활공동체
- 2) 사안별 프로그램 - 재개발, 조례제정, 환경문제, 청소년 문제
- 3) 활성화를 위한 동기 유발 프로그램 - 소모임, 인간관계, 심성개발, 주제 워크숍

지리적, 사회 문화적 환경 (Factor) 파악하기 - 지역지도 그리기

1. 자신의 활동 현장이 되는 지역의 지도를 가능한 대로 직접 그려봅시다.
2. 아래와 같은 지역의 관공서 및 단체, 종교시설 및 공공시설 위치가 파악되면 파란색을 사용하며 표시합니다.
 - 주요 관공서(구청, 동사무소, 파출소 등) 학교 및 교육시설, 종교시설
 - 공공시설 및 사회복지 시설: 복지관, 유아원, 유치원, 놀이터, 약국, 은행, 우체국, 병원 등
3. 우리가 활동하는 단체가 위치한 곳을 녹색으로 표시합니다.
4. 작업 전지의 왼쪽 상단부분에 지역의 일반 현황을 기입합니다.
 - 행정구역명, 면적, 인구, 동수, 세대수 등

5. 지역의 사회문화적 환경을 다음의 worksheet에 따라 정리해 봅시다.

| | 특징 | 비고 |
|----------------|----|----|
| 역사적 배경 | | |
| 경제적 상황(직업분포 등) | | |
| 정치적 성향 | | |
| 종교분포 | | |
| 교육수준 | | |
| 문화생활 수준 | | |
| 전통문화 | | |

인적 환경(Actor) 파악하기

1. 지역/주민자치 조직 파악하기

| 조직 / 모임명 | 주요활동 | 주요 모임장소 | 특징 |
|------------|------|---------|----|
| 예) 부녀회/반상회 | | | |
| 예) OO주민 모임 | | | |
| 예) 조기축구회 | | | |

* 특징란에는 정치적 성향, 관청이나 주민과의 관계, 지역사회에서의 역할, 지역사회 여론 형성에 미치는 영향 등 주민조직 운동과 관련하여 고려할 사항을 정리.

2. 지역/주민 지도자 파악하기

| 조직 / 모임명 | 지도자 이름 | 특징 |
|------------|--------|----|
| 예) 부녀회 | | |
| 예) OO주민 모임 | | |
| 예) 조기축구회 | | |

반갑습니다. 도시연대 <주민참여 마을학교>입니다.

* 특징란에는 활동 스타일, 정치적 성향, 관청이나 주민과의 관계, 지역사회에서의 역할, 지역사회 여론형성에 미치는 영향 등 주민조직 운동과 관련하여 고려할 사항을 정리.

3. 기타 주요 여론형성 구조 파악

| 장소 | 구성원 | 특징 |
|--------|-----|----|
| 예) 미용실 | | |
| 예) 복덕방 | | |
| 예) 놀이터 | | |

4. 주요 단체 파악하기

| 조직 / 모임명 | 주요활동 | 특징 |
|----------|------|----|
| 예) OO복지관 | | |
| 예) YMCA | | |
| 예) | | |

5. 지역사회/주민이 느끼는 문제점과 요구사항 파악하기

| 문제영역 | 필요/요구사항 | 관련된 사업 / 활동 |
|------|---------|-------------|
| | | |
| | | |
| | | |

* 문제영역의 예: 실업문제 포함한 경제문제, 생활환경 문제(상하수도, 전기통신, 교통), 주거환경(위생, 정신건강, 자연환경 등), 교육 청소년 문제, 노인문제 등

훌륭한 마을만들기 활동가 10계명

1. 주민들이 조직활동에 참가해야 하는 중요성을 인식해야 하며, 자신들의 삶에 대해 힘을 가지도록 조언할 수 있어야 한다.
2. 파분한 일상 업무 속에서도 위기의식과 융통성을 동시에 갖고 있어야 한다.
3. 자기가 바라는 어떤 이상적인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진정한 대중의 참여를 저해해서는 안 되며, 다른 신념도 존중해 주어야 한다.
4. 겸손하고 팀워크정신이 있어야 하고 현실적이어야 한다.
5. 동시에 조직가는 상황이 변할 때까지 현실에 집중하려 해야 하고 좋은 유머감각으로 그 변화가 더딜 때에도 살아남을 수 있어야 한다.
6. 새로운 사상과 이론, 방법을 받아들인데 개방적이어야 하며, 비판도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
7. 합당한 모험이라면 할 줄도 알고 성차별이나 환경문제 등 다른 부문의 활동에도 민감해야 한다.
8. 가난한 사람들을 잘 살도록 하는데 헌신해야 한다. 곧 자신의 개인적인 성장이나 업적 정치보다도 대중의 이익을 앞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9. 압력을 받고 있다해도 침착하고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
10.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활성화하는데 개방적이어야 한다.

주민참여 마을학교 다섯마당을 마치고



〈참가자 소감〉

〈주민참여 마을학교에 다녀와서〉

이신숙, 서정찬 (주민참여 마을학교 참가자)

〈도시연대 주민참여 마을학교를 끝내고〉

박종숙 (도시연대 간사)

참가자 소감

참가자 : 다섯마당 다 참여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주민참여 마을만들기가 어떤 것인지 몰랐어요. 단지 주민이 참여한다는 그 자체가 관심이 있었을 뿐이었죠. 그동안 현장방문도 하고 이론공부도 하면서 느꼈던 것은, 오늘 프로그램을 짜면서 가장 크게 느꼈는데 뜬 구름 잡으면 안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구체화시키기 위해 가장 많이 고민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거리를 다닐 때 예전에는 땅만 봤는데 주변에 거리도 보고, 담도 보고, 어쨌든 주변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저로서는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가자 : 저는 정말 막연했던 생각이 구체적으로 잡혀간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래도 아직은 어리벙벙해요. 여기 이 강의도 느닷없이 강의시작하기 전날 인터넷에서 인사동 검색하다가 알게 됐거든요. 웬지 제 마음과 비슷하게 가는 방향일 것 같다는 생각에 참여를 했습니다. 2마당만 빼 놓고 5마당까지 왔는데 생각보다 많은 것을 느끼고 하니까 솔직히 막 벅차요. 저는 지금 지내고 있는 마을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제가 사는 동네에서는 벌써 마음이 떠났어요. 5년동안 강원도를 오가며 직장생활을 계속하면서 현재 살고 있는 곳이 잠자는 곳밖에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어요. 참여가 없었다는 것에는 자신의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오랫동안 머물렀을 뿐 활동공간이 아니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애착도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점차 몇 년간에 걸쳐서 변해가는 동네 모습들이 너무 직선적이고, 하늘이 가려지고, 담이 높아지고, 창문하나 내기에도 힘들어지고 하니까 빨리 하늘 많이 보이고, 초록색이 많이 보이고, 또 둥글둥글한 삶이 있는 곳으로 가야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강원도쪽에 가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 곳 주민과 어떻게 어울릴 것인가가 화두가 되더라고요. 사실은 지금 진행중인데 터만 마련해 놓고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 어린이들을 매개로 한 달에 한번씩 왔다갔다 하고 있거든요. 지역의 주민들 하나하나 보니까 제일 젊은 사람이 40대 후반이예요. 50대, 60대도 있고 전체적으로 60여가구가 있는데 흩어져 있죠. 아이들과 함께 활동하면서 어른들과 친숙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마을주민들 찾아가

서 이야기 들어오기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습니다. 노인들이 어린이 안 본지 오래 되니까 굉장히 반가워 해주고 많은 얘기를 들려주더군요. 기대했던 이상이었어요. 이것을 하면서 도시의 어린이와 시골의 노인을 연결시키는 프로그램을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했어요. 잘 하면 살고 있었던 서울이라는 곳도 희망을 놓지 않아도 되고 앞으로 살고자 하는 노인들만 있는 곳에 아이들 소리도 나게 하고, 아이들은 자연과 친숙해 질 수 있고, 그러다 보면 가족관계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막연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몰랐는데 이 강의를 들으면서 이왕이면 정착하려고 하는 처음부터 그동안 생각해왔던 것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서울 도 시에서는 그 지역의 특산물과 같은 것을 이용하고 그 지역에서는 도시의 도움을 받고 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계획을 세워보면서 정말 구체적인 생각을 못했다는 것이 실감났습니다.

참가자 : 저는 원래 지방의원으로서 동네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일을 하자고 끌어들이는 것이 본능입니다. 요즘, 주미자치센터가 구성이 되었고 주민자치위원의 역할이 마을 만들기의 일과 일맥상통하다는 생각에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참여하다보니 자치 행정을 실현하는데 많은 보탬이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나이가 좀 들었는데 여기 나와 보니 굉장히 젊은 기분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좋습니다. 마을을 만들어 가는 기획방법을 알게 된 것이 무엇보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 이 있으면 적극 참여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배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램이 있다면 마을만들기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전문적인 측면을 좀 더 배우고 싶다는 것입니다.

참가자 : 저는 물리적 환경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은 분야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 마을만들기라고 했을 때 주민참여보다 마을만들기에 초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와서 보니 주민참여가 마을만들기의 가장 핵심이고 성공으로 이끌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가지 아쉽다고 말씀드릴 것 같으면 원활한 주민참여를 이끄는 자기를 희생적인 촉매자, 조직가가 없는 것이 아쉽고 또 그러한 촉매자, 조직가에 대해 보상없이 개인의 공명심과 열의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우리 사회시스템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뭔가 나름대로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전문가집단에서 주민참여를 어떻게 잘 구성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마을만들기 사례로 보여졌던 부분들이 도시빈민이나 저소득층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 쪽은 연대감도 어느정도 있어서 그러한 활동들이 어느정도 가능했을 것이고 또 그러한 활동이 조직적으로 필요했기에 진행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편 도시

거주자 중 중산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꽤 높습니다. 이들 중산층에 대한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이나 구체적 사례조사가 꼭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가자 : 안녕하세요, 원래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 못하는데 마이크를 들고 있으니까 더 떨리네요. 저는 이 주민참여 단계를 넘어서 주민자치라는 측면에서 마을만들기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커뮤니티 형성이고 하나는 지역 자치에 의한 작은 정부 실현입니다. 첫 번째 커뮤니티 형성은, 며칠 전에 영자신문에서 일본의 교수가 쓴 글을 읽었는데, 미국인 교수이거든요. 이런 글을 기고하셨더라고요. 한국의 대학이 학부제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커뮤니티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한국의 가장 중심이 되고 문화적 틀이 되는 커뮤니티가 무너진다는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들으면서 보니까 상당히 그러거 같아요. 지금 도시도 그렇지만 농촌도 아이들을 같은 경우에 함께 놀기도 하고 수영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같은면 전부 집에서 게임을 하고 과외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함께 하는 것들이 많이 사라졌죠. 예전에 대학은 학과 중심으로 조출하게 모여 자연스럽게 공동의 활동이 있었는데 지금은 학부제란 개념때문에 과에 대한 소속감이 굉장히 떨어졌어요.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서 지금의 학생과 청년들이 나중에 사회에 진출했을 때 과연 우리의 커뮤니티가 얼마나 이루어질 수 있는가 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마을만들기라는 것, 다시 말하면 단순히 취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활하는 그 생활범위 안에서 뭉쳐서 그 안에서 어떤 환경을 개선하는 활동은 그 자체가 굉장한 커뮤니티 실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민자치를 위한 작은 정부라고 했는데 우리 사회 자체가 고도화되고 발전되면 그만큼 정부에서 할 일은 더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요구가 그만큼 많아지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사람들의 요구가 많아지면서 그 부분 부분을 주민자치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다면 그만큼 정부의 역할은 줄어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주민참여, 주민자치에 의한 마을만들기가 확산이 된다면 그만큼 우리 행정의 일은 줄어들고 작은 정부의 실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당을 참석하지 못하고 나머지는 모두 참석했는데 오늘 이 다섯 번째 마당에서는 중요한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전까지는 이 과정에 참여하면서 '아, 내가 우리 마을에 살면서 이런 면에서 어떻게 해 보고 싶다, 이러면 될 수 있겠다' 하고 생각을 가져 봤는데 오늘 여기에서는 '아, 내가 어정쩡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상당히 겁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한 편 이런 면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오늘 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CO (Community Organization) 와 CD (Community

반갑습니다. 도시연대 <주민참여 마을학교>입니다.

Development) 의 연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 CD를 조직하는데 있어서 외부에서 들어가는 개인이 아니라 그 지역에 사는 사람 자체가 활동가가 된다면 꼬 조직이 구성되지 않더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만일 개인이 어떤 걸 해 보고 싶은데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면 사람이 모이는 그때까지 다른 것은 못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지역주민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면 한 사람이 되든, 두 사람이 되든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오늘 상당히 많은 것을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참가자 : 저는 지금까지 제가 생각했던 주민참여 마을만들기라는 것이 맞았는지, 틀렸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지금까지는 마을만들기는 외부환경을 그러니까, 녹화도 많이 하고 자기 집 앞 공간을 좀 확보해서 서로 편안하고 살기 좋고 아름답게 만들자는 활동, 외부공간을 개선하는 쪽으로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기존의 그런 생각이 시아가 좀 좁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편 마을만들기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이고 도시나 마을을 좀더 살기 좋게 만드는 방법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참가자 : 마을학교 참여 전까지는 그냥 물리적 계획, 도면위에 그려져 있는 그림으로만 인식됐던 마을이나 동네들이 하나하나 의미가 새롭게 부여되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법이나 계획쪽에서 이야기하는 어린이 공원, 학교, 이 단순한 것들이 실제 사람들 생활안으로 들어가면 더 많은 의미를 갖고,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앞으로 도시계획쪽으로 하게 될 것 같은데 만약에 하게 되면 뭘 하나를 하더라도 그 안에 담기는 의미와 주민들을 생각하는 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된 좋은 기회였습니다. 기획하신 분들께 수고하셨다고 박수 쳐 줍시다.

참가자 : 저는 주민참여라는 것이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에서 합의 도출을 가져오는 커뮤니티가 일어나는 공간이 필수적으로 마련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어느 아파트나 어느 마을에서 주민참여 마을만들기를 한다고 하면 어린이들이 할 것도 아니고, 자기 집에서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같이 와서 대화하고 토론하고 고뇌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아파트도 보면 사무실은 있는데 회의실은 없거든요. 노인정도 있고 하지만, 우리도 토론문화나 함께 어울리는 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준다면 자연스럽게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만들기가 더 빨리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참여 마을학교에 다녀와서

이 신 숙 (주민참여 마을학교 참가자)

그것은 낯설면서도 반가운 만남이었다.

‘주민참여 마을 만들기?’

인터넷에서 우연히 만난 이 프로그램이 눈에 띄어 바로 전화를 걸어 보았다. 내심 어린이를 위한 조그만 공간을 조만간 마련하고 싶어하던 차에 내 나뭇대로의 상상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았다.

이미 안내문에 적혀있는 대로라면 40명 제한에 신청일자도 훨씬 지나 내일이 첫 마당이 시작되는데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대는 별로 하지 않은 채 최소한 무슨 내용인지만이라도 알아보자 하고 전화를 걸었다. 사실 매주 화요일 저녁 7시라는 시간은 공교롭게도 나의 사정상 허락되지 않는 시간때문이었기도 하다. 그런데 편안하고 친근한 목소리는 총 다섯 마당의 일정을 알려주면서 빠짐없이 참여할 수 있기를 이야기하며 내일 첫 마당부터 나오라고 하는 것이었다. 어찌할 것인가? 호기심이 채 어떤 방향으로 가기도 전에 부여된 이 기회를 놓치기가 싫어 나의 일정을 조절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둘째 마당을 제외한 총 4번의 참석을 이룰 수가 있었다.

첫마당

물어 물어 도시연대 강의실에 도착한 시간은 막 강의를 시작되려는 7시 조금 넘어서 였다.

조그만 강의실이었지만 뻑뻑이 자리를 채운 사람들. 나는 놀랍고 두근거렸다. ‘이렇게 진지한 모습의 주민들이 많이?’ 하지만 나중에 강의를 끝난 후 자기소개를 통해 알고 보니 대부분 도시조경이나 환경분야에 어느 정도 관계성을 갖고 있는 공무원, 구의원, 연구원, 학생이었고 뭘 모르고(?) 주민으로 참여한 사람은 나 혼자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운동이란 차원은 위에서부터 아래로가 아니라 수평적 관계에서 순환적 사고의 연대의식을 갖는 것이고 그것이 일반화되어 자연스럽게 아래에서 위로 나아가져야 한다고 생각한 나로서는 (위, 아래 표현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면서도 적당한 다른 표현을 생각하지 못하여) 각각의 생각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공통으로 갖는 그 무엇에 이렇게 다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것에 우선 반갑고 기뻐다. 그리고 하남시에서 부시장을 비롯 각 부서 과장급 공무원이 대거(!) 참여하여 그야말로

반갑습니다. 도시연대 <주민참여 마을학교> 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아름다운 마을로 가득한 하남시를 만들겠다는 그 의욕과 열성에 같은 하늘아래 한 지역의 주민으로서 찬탄의 박수를 보내고 싶었고, 공무원에 대한 인식도 좀 더 긍정적으로 갖게 되었으며, 더 나아가 '아! 내가 이사하게 되면 하남시로 가야겠다'라는 생각도 순간적으로 갖게 되었으니 어쨌든 이러한 장소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난 또다른 좋은 효과를 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늘 강의는 그동안 국가가 일방적으로 주도해 온 경제 성장 위주의 개발이 이번에는 각 지역 주도로 되풀이되면서 지나치게 경쟁적이고 근시안적으로 진행되어 자연환경과 생활세계를 무분별하게 파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으로 인한 대안적인 개발양식과 삶의 질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의 양상이라고 진단하였다. 그것은 '지역'이 갖는 의미를 되묻는 작업에서 출발하면서 그 공간을 풍요롭고 윤택하게 가꾸기 위한 전략 그리고 그것을 실행할 주체 형성 방안을 모색하는 차원으로 주민들의 참여와 발의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지역을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 거기에 담기는 삶 그 자체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것이라는 말한다.

그래서 이미지, 물리적 시설, 경제, 생활이 유기적이고 조화롭게 함께 충족되어지는 마을을 어떤 식으로 전개하는 가에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선택을 해야하는데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사소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의사소통을 거치지 않은 물리적 환경은 오래지 않아 쓸모없게 되기 때문에 의사소통과정속에 자연스럽게 애정, 책임을 갖게 되면 즐거움으로 참여하는 포괄적 의미의 주민운동으로서의 마을만들기라는 것이다.

둘째 마당을 쉬고 셋째 마당에서

첫째 마당이 주민참여 마을만들기에 대한 필요성을 이론에 두었다면 둘째 마당은 실제 우리나라의 마을만들기 활동에 대한 사례중심의 강의라 꼭 듣고 싶었는데 개인적인 부득이한 사정으로 듣지 못하여 그 많은 사례중에 몇 곳을 골라 직접 찾아가는 오늘 현장방문은 특히나 기대되었다. 아침 8시에 양재역 서초구민회관앞에서 집결하여 대구로 출발!

1마당에 참여했던 인원을 생각하고 있던 나의 예상과는 달리 25인승 차에 12명이 함께 하였다. 이미 이렇게 많은 사례가 있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운동이라 생각하든 안하든 변화를 시도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은 신나는 일이다. 사실 생각을 갖고 있어도 실천한다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 하물며 그것이 발상의 전환이라 한다면 그 생각조차 낸다는 것은 오죽하랴!

그러한 의미에서 삼덕동에서 만난 김경민씨는 적어도 나에게도 신선한 충격이었다. '내 집도 아닌 전세 들어 사는 집의 담을 허물다니...' 하지만 그는 자신의 것이지만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한 사려깊은 생각들을 삼덕동에 말없이 전해주었다. 대문이 없어지고 담이 없어지면

서 공유하는 공간은 일정한 숫자의 면적보다 더 깊고 넓은 시야를 제공하면서 알 수 없는 내 마음의 경계까지도 희미하게 만들어 주었다. 서로가 각자이면서도 어울릴 수 있는 디자인으로, 눈에 확 튀지는 않지만 조용히 다가가 보고픈 다양하고 예쁜 문양의 벽화가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골목이 또 어디 있던 말인가! 늘어지는 능소화에게 그렇게도 어울리는 배경으로서의 담은 정말 처음이다.

맨처음 시작했다는 병 뚜껑 벽화, 어린이들이 참여한 마을지도 벽화, 선사시대의 암각화를 본 뜬 것 같은 벽화, 조폐공사에 문의까지 해보기도 하였다는 10원짜리 동전 벽화, 전통문양의 벽화, 아예 마당을 벽으로 옹기 둥기 화분을 벽에 걸고 꽃을 심은 벽 등, 아참! 마지막에 본 담이 없는 넓은 뜰에 물레방아 들고 그 아래 팔뚝만한 많은 수의 잉어가 뛰노는 연못은 그야말로 감탄이었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가 시내속에 위치한 대학병원의 담도 허물어 그야말로 시내한가운데 저 절로의 공원을 갖게된 곳도 찾아보고 이제는 대구시의 주요 과업으로서 '담장을 허물면 세상이 보인다'는 팜플렛을 들고 찾아온 공무원과 이야기도 나누면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였다.

서울로 출발하기 전 교육청으로부터 빌렸다는 일본식 집에 동네미술관을 꾸며놓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빛살미술관에서 김경민씨와의 대담 중 무엇이 그동안 가장 힘들었었느냐는 질문에

“솔직하게 말할까요? 힘든적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냥 재미있었어요.”

그래야 되나보다. 일이라 생각하지 않고 운동이라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웃과 함께 했을 때 그것이 옳다고 느끼면 느끼는 대로 할 뿐 아닌가!

넷째 마당

대구 삼덕동이 김경민씨 개인의 시작으로 인하여 그 영향이 관(官)으로까지 갔다면 오늘 방문한 사당동 양지마을은 처음부터 주민들의 참여가 이루어진 곳이었다. 원래 도로부지로 구획된 곳이 계속 방치되어 불법 쓰레기 투기장이 되어 있었던 것을 행정기관에서 주차장으로 이용하려 하자 주민들의 반대로 공원을 조성하기로 계획을 수정하였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주민들은 설계에도 의견을 제시하고 시공과정에서 자재점검도 하고 이의제기도 하며 작품제작에도 참여하였단다. 그리고 여기에는 전문가 김성균 교수팀과 동작구청 공원 녹지과가 서로간의 주민 의사 반영에 최대한 노력하고 서로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하였던 것도 지금의 공원이 조성되는데 큰 기여가 된 것 같다.

어쨌든 양지공원은 지역적 특성을 그대로 이용하면서도 주민들의 참여를 나타내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눈에 띈다. 산언덕이기 때문에 자연스런 위, 아래 공간을 살리되 빗물에 쓸리지 않게 시멘트처리나 벽돌을 불가피하게 깔게 되자 이를 친자연적 공간으로 연출코자 자갈을 박는

다던가 통나무를 계단처럼, 시각 설치물처럼 깔아놓았다 한다. 그리고 마당형식으로 계단식 공간을 원형이라든가 장기관 등으로 꾸며 놀이도 하고 등글게 앉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마당 경계가 될 수 있는 계단 등에는 주민손도장이 찍혀있고 어린이들의 타일벽화가 붙여졌으며 맨 위에 샘의 흔적을 말해주듯 사람다니는 길 옆에 따로 물길을 놓고 어린이 놀이터 입구쪽에는 솟대도 세워놓았다.

하지만 그렇게 조성하기까지의 주민들의 노력과 관계자들의 공들이 함께 했음을 열심히 설명해주는 당시 양지마을공원조성 대책위원장 홍성달씨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어찌 주민의 관심에서 떠나버린 듯한 현재의 모습은 왜일까? 떨어진 팔각정의 지붕모서리며 죽어가는 화단의 꽃과 식물, 엉클어져있는 관목들, 사람들의 발에 닳아 버린 듯한 반질반질한 꽃자리, 울타리 주변에 보이는 휴지조각들... '귀감'도 있으면 '타산지석'도 있음을 잘 새겨두어야겠다.

이어서 간 곳은 동두천에 위치한 봉암리. 여기는 또다른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현재의 안정되고 여유로와 보이는 모습의 봉암리에는 조영순씨라는 분의 노고가 무척이나 컸다. 하지만 그분은 많이 배워서라든가, 의식이 투철해서라든가, 이름값이라도 하며 살아야겠다는가 라는 의도한 바가 전혀 없이 시작되어졌다 라는 것에서 감동을 준다. 이북에서 내려와 이곳에 제2의 고향으로 정착하면서 딸자식 넷을 키우는 아버지의 마음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이다.

1975년에 월부로 사준 책을 읽고 넷째 딸이 글짓기에 당선된 것이 계기가 되어 마을문고, 장학회, 도서관추진위원회로 이어진 것이 세월을 지나 이제 행정기관의 지원으로 지은 번듯한 마을문고 건물을 갖게 되었다.

내 아이에 대한 애정이 내 아이와 함께 하는 아이들의 관심으로 확대되어 이룩한 마을도서관뿐만 아니라 기계톱 하나로 손수 제작한 수많은 놀이기구들을 보면 참으로 그 마음씀씀이와 실천에 절로 고개가 숙여질 뿐이다. 그뿐이라? 한구루의 앵두나무 열매를 아이들에게 나눠준 것이 그들의 추억이 된다는 것에 오히려 감동받아 2천평 농장 울타리에 몽땅 앵두나무를 심었다. 마침 남아있는 앵두가 있어 탐심을 내고 있었더니 어느새 눈치를 채시고 환하게 웃으며 따라간다. 아직도 욕심많은 나는 고마움과 함께 많이 따라야겠다는 생각에 비닐봉지를 찾았지만, 순간적으로 부끄러 생각에 한 움큼 쥐고 나와 몇몇이 그 맛을 보았다. 왜 그리 맛있는지...

워낙이나 어린 아이들에게 관심이 많은 조용순씨는 누가 시켜서도 아난데 군자녀만 다니는 유치원을 부럽게 쳐다보는 마을 어린이들을 위해 무엇인가 아이들을 위한 시설을 만들어줘야겠다는 생각으로 장난감 도서관을 만들었다. 그러나 아이들이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처음 운영하는 데에서 오는 관리미숙으로 문을 닫게 되던 차에 봉암 마을문고 성공사례 발표장에서 어린이집 지원을 요청하게 되고 이 뜻이 받아들여져 지금의 어린이집에 이른다. '뜻이 있으면

길이 있고 두드리면 문이 열린다' 는 것이 이것이 아닌가?

그 뿐이라? 고리채를 벗어나기 위해 만든 7만원이 지금의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을 운영하게 되었다는데 방문한 그곳은 여느 리(里)단위의 마을과는 달랐다.

돌아오는 길에 조용순씨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이제 나는 딸 넷을 모두 출가시키고 그 손주들까지 이곳에서 앵두 따먹고 (기계톱으로 만든) 놀이터에서 놀고 (그렇게 만들어진) 어린 이집을 다니게 하여 작년에 손주 키우기까지 졸업했습니다. 세상에는 중요한 일들이 참 많지만 그 중에서도 아이들에 대한 일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느새 내 속을 드러내자 격려차 해주신 말씀이지만 교훈으로 마음속에 새겨놓았다.

다섯째 마당

"마을만들기!! 막상 꿈을 꾸어보고 계획도 세워 보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면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러한 갈증을 조금이라도 풀어 보고자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하였습니다." 하며 시작된 최종덕강사님의 강의를 듣자 그동안 얼마나 내가 안일하게 생각해 왔는지 반성하게 되었다. 그저 저지르면 될 것이다라는 막연한 생각이 참으로 무모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래! 그래!' 하면서도 막상 나누어준 <주민참여 마을 만들기 전략 세우기>를 채우려니 왜 이렇게 어려운지...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적어도 머릿속에서는 어떻게 해야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얼마나 다행인가, 이제라도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체제를 갖추어야겠다고 한다는 것이. 그러한 점에서 나는 감사한다. 그리고 또한 이제 시작부터, 계획부터, 더불어 천천히 실천해 보고자 결심한다.

주민참여 마을학교에 다녀와서

서정찬 (주민참여 마을학교 참가자)

참여하기 전

대학에서 4년간 지역개발학이라는 학문을 접했던 내게, '주민참여' 라는 말은 독단적인 행정에 대한 비판과 지방자치시대의 부활에 따른 새로운 시각의 전환을 위한 문구 정도로 인식되어 있었다.

이러한 인식으로부터 주민참여라는 것이 진정한 지방자치제의 실현에 대한 필요조건임을 인식하게 된 것은, 가깝고도 먼나라 일본의 주민참여 행정을 보고 느끼면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나 주민참여의 수준을 넘어 '주민자치' 로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일본의 마을가꾸기(まちづくり)의 흐름은 나에게 신선한 충격이었으며, 나에게 구체적이며 진정한 삶의 목표를 부여해 주는 계기가 되었다.

자신이 살아가는 지역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가지고 행정이 무언가를 해 주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과 함께 삶의 환경을 가꾸고 새롭게 만들어 가는 것이 물질문명에 의해 우리의 공동체 문화가 파괴되어가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이런 마음이 내가 살고 있는 마을에서 내 자신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박종숙 간사님의 "도시연대의 주민참여마을학교"에 대한 메일은 희소식이 아닐 수 없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과연 주민참여에 의한 마을만들기 운동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보고 싶었으며, 이러한 운동에 앞장서고 계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나와 같이 초보적인 단계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사람들과 만나고 싶은 마음에 먼길을 마다않고 참여하게 되었다. 비록 네 번째 마당은 참여하지 못했지만……

참여하며

첫째마당은 장시간의 기차여행에 대한 피곤함보다는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에 대한 두근거림으로 시작되었다. 역시나 도시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과 대학원생들이 많았으며, 구 의

원도, 그리고 도시복지를 담당하는 사람들, 등등 소중한 만남의 시작이었다.

둘째마당은 실제 행해졌던 그리고 행해지고 있는 마을만들기 사례를 소개하는 시간이었다. 우리나라에서 마을만들기라는 용어의 대두는 최근의 일이지만, 그 흐름은 이미 오래 전부터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었다.

셋째마당은 대구 삼덕동 골목가꾸기 현장체험시간이었다. 삭막한 주차장으로 변해 버린 골목길을 뛰노는 아이들의 공간으로, 정취와 이야기가 있는 우리네 골목으로 되돌리고자 하는 김경민씨, 단 한사람에 의한 새로운 흐름에 대한 도전, 그리고 그 흐름을 뒷받침해 주는 주위의 사람들과 주민들, 그리고 마침내 그 흐름은 행정을 지원을 얻어 한 동네를 넘어 대구시 전체로 번져가고 있었다. 이러한 것이 마을만들기의 힘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다.

다섯째마당은 주민교육가인 최종덕씨와의 만남, 아니 정신무장(!)의 시간이었다. 공동체 가꾸기 (Comunity Development)를 위하여 '마을만들기' 라는 새로운 흐름을 어떻게 가꾸고 키워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하는 시간이었다.

참여 후

마을가꾸기에 대한 생각과 표출되는 양상이 한국과 일본에서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우리나라는 아직은 걸음마 단계라는 생각은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우리가 개발과 보존의 우위를 이야기할 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입장차이로 인식하듯, 마을가꾸기 또한 단순히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단 말인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 나는 많은 숙제를 부여 받았다. 단순히 '주민참여에 의한 마을만들기'에 대한 호기심에서 시작되었던 것이 이제는 내 자신이 내가 사는 동네를 위해 어떤 일을 어떻게 그리고 혼자서가 아닌 여러사람들과 함께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어렵지만 행복한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이다.

타무라아키라(田村明)씨의 다음의 글로서 이 글을 맺을까 한다.

"앞으로의 마을만들기의 과제는 '사람이 살기에 가치가 있는 장소'를 어떻게 만들고 유지할 수 있는가 이다. 좋은 생각이 가지고 있어도 실천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 마을만들기라는 것은 우리에게 친숙한 용어로, 사람들의 실천을 기대하고 있다.

마을은 동태적(動態的)이며, 시간과 함께 끊임없이 변화해 간다. 이전에 행해진 훌륭한 실천이라도 잊혀져가기 마련이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속에서 새로운 발상을 실천해 나간 사실은 시대가 바뀌어도 큰 의미를 지니며 시사하는 바가 있다. 지금에 와서는 당연하게 보이는 일이

라도, 누군가가 구체적으로 발상을 하고 이를 실천하여 시대의 흐름을 만들었기에 현재가 있는 것이다. 실천이라는 것은 아직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 시대에, 어려움을 딛고 넘어서 행해진 것이다. 그것이 시대를 움직이며 시대를 바꾸었다. 실천을 위해서는 지혜와 힘 그리고 용기 또한 필요하다.”

내가 권하고 싶은 책

일본에서의 주민참여 그리고 이를 넘어 주민자치에 의한 마을가꾸기에 대한 책으로 다음의 두권을 권하고 싶다. 우리말로 번역되어 출판되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추천1.

「마을만들기의 실천(まちづくりの實踐) · 田村明 · 岩波新書 · 1999 ·

일본의 도시는 물론 산간지역에 이르기까지 각지에서 행해진 마을만들기 사례를 소개하는 책이다. 특히나 단순한 사례의 소개에 그치지 않고 진정한 마을만들기의 이념정리와 실천을 위한 기반조성 그리고, 주민자치에 의한 '시민의 정부' 라는 21세기의 지방자치제가 나아가 할 길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추천2.

「NPO와 마을가꾸기(NPOとまちづくり)」 · NPOとまちづくり研究會 · 風土社 · 1997 ·

이 책은 마을만들기 NPO (비영리단체)를 주제로 일본 전국의 선진적인 사례의 소개를 중심으로 하면서 중간중간 미국의 사례도 함께 소개하고 있다. 시민활동을 마을만들기에 어떻게 활용해 갈 것인가? 행정주도의 마을만들기의 한계와 시민활동의 나아가야 할 길 있어 중심이 되는 NPO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 종합해 놓은 책이다.

마을만들기를 지원하는 구조와 조직을 시민단체와 행정 그리고 기업의 세 틀로 구분하고 이들의 협조적인 지원체계가 어떻게 마을만들기를 이끌어 가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으며, 한국 사회에서 마을만들기 운동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의 중요한 지침서가 되리라 생각한다.

도시연대 주민참여 마을학교를 끝내고

박종숙 도시연대 간사

“안녕하세요. 도시연대입니다. 저희 도시연대에서는 살고 있는 주민이 스스로 자신의 생활 공간환경을 개선하자는 마을만들기 활동을 알리고 교육하는 주민참여 마을학교를 진행하는데요. 관심있으시면 참가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내용의 전화와 이메일, 회원들에 대한 엽서를 수십 번도 더 보내면서 참가자 모집에 열을 올리기 시작한다. 참가자 모집에 대한 불안과 진행에 대한 걱정으로 시작했던 주민참여 마을학교가 어느덧 한 해를 넘어간다.

도시연대는 작년 2000년도부터 자신이 살고 있는, 그리고 생활하고 있는 공간을 스스로 개선하고 가꾸어 나가는 마을만들기 활동을 지원하고 사회화하는 일을 하고 있다. 마을만들기는 새로운 마을을 만들자는 운동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도시공간을 사람들이 생활하는 데에 있어 보다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을 하도록 개선해 나가자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의 도시공간은 오직 경제성장을 위해 바쳐진 물리적 장소로서만 기능해 왔다. 그 결과 우리는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 붕괴를 비롯해 최근에는 부실공사로 인한 화재참사, 그리고 주택가 도로를 마구 헤집고 다니는 차량들에 의한 교통사고로 하나밖에 없는 개인의 생명을 담보로 살아가는 지경이 되었다. 경제대국을 꿈꾸며 개인의 편의와 안전을 당분간 뒷전으로 돌렸건만 우리에게 돌아 온 것은 생활환경의 위협적 요소에 대한 공포심, 그로 인한 서로에 대한 불신뿐이다.

산업화와 경제화 시대를 거치면서 잉태된 이러한 도시문제들은 여러 각도에서 해결의 실마리가 모색되어 지고 있다. 그러한 활동중의 하나로 도시연대는 마을만들기 운동을 실천하고 있다. 직접 살고 있고 생활하고 있기에 문제의 원인과 그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사람들의 관계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주민이 직접 생활속의 도시문제를 조금씩 해결해 나가자는 것이다.

그러면 이런 마을만들기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지칭하는 것일까?

알고 보면 우리의 일상 곳곳에서 마을만들기는 이미 진행되고 있다. 골목길 가꾸기, 환경장터, 주민음악회, 거리 축제 등 물리적인 환경을 개선하는 것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형성하고

반갑습니다. 도시연대 <주민참여 마을학교>입니다.

그 지역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측면까지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마을만들기 활동은 주민이 스스로 만들어 내고 활동함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력이 그다지 길지 못하고 참여하는 주민의 범위 또한 쉽게 확장되지 못한다.

이처럼 도시문제의 해결방안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마을만들기가 좀더 대중적인 운동으로서 기능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도시연대는 작년부더 마을학교를 개최하게 된다. 우리는 이 마을학교를 통해 현대 도시사회의 문제와 우리의 일상이 어떻게 연결되고 있고 그 해결을 위해서는 주민이 나서야 한다는 것을 알리고자 한다. 또 주민참여 마을만들기 활동은 전문가가 하는 것이 아니고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하려 한다. 이와 함께 마을만들기 활동을 실제 진행하고 있는 주체들이 서로 교류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참가자들 이야기

도시연대 주민참여 마을학교는 마을만들기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실제 마을만들기를 하고 있는 주민, 중요한 파트너인 행정공무원, 지역의 단체활동을 하고 있는 활동가, 그리고 도시건축조경 등에 걸쳐 공부를 하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는 모든 이들이 그 대상이다.

실제 모집된 참가들은 직업을 가진 사람에서 갖지 않은 사람까지, 20대에서 60대 까지 매우 다양했다. 지역의 복지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 각 지자체와 관련한 연구원에서 도시관련 업무를 보고 있는 이, 사회복지와 관련한 강의를 하면서 언젠가는 뜻이 맞는 사람끼리 좋은 마을을 이루고자 하는 꿈을 가진 이, 디자인계통의 잡지를 편집하는 이, 보다 많은 주민과 함께 참다운 지방자치 실현하고자 하는 지자체 기초의원, 대학과 대학원에서 도시관련 학문을 전공하는 이, 그리고 서울시와 하남시의 공무원들이 그들이다. 이중에 어떤 이는 멀리 전남 무안에서부터 서울을 왕래하며 마지막날까지 함께 한 이도 있었다.

첫째 마당에서 넷째 마당까지

첫째 마당을 열어준 분은 연세대에서 사회학 강의를 하시는 김찬호 박사님이였다. 김찬호 박사님은 박사논문을 쓰는 당시 일본 토요나카시에서 거주했던 경험이 있다. 그곳에서 쇠퇴해가는 지역상권을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진행된 상가지역의 마을만들기 활동과 주민참여과정을 직접 체험하였다. 이 후 한국에 돌아와 엔도 야스히로의 책을 한국어로 옮겨 『이런 마을에 살고 싶다』 라는 책을 출간함과 함께 마을만들기에 대한 강연을 수차례 진행하였다.

둘째 마당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도시설계연구팀장으로 계신 정석 박사님이 끌어 주셨

다. 대학 재학 시절부터 공동체 형성에 많은 관심을 가지셨던 정석 박사님은 서울시의 여러 도시계획 분야의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주민참여를 주요한 과정으로 삼고 있다. 또한 고양시 일산에 살고 있는 정석 박사님은 직접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관심도 높아 지난해 주거지와 학교지역 인근 러브호텔 건설 및 영업 성행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지역의 주민으로서 함께 참여하기도 하였다.

5월 29일 주민참여 마을학교 첫째마당 <도시, 주민참여, 마을만들기>에서는 커뮤니티 디자인이라는 개념이 소개되었다.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역공간을 풍요롭고 윤택하게 가꾸어가기 위한 과정으로 주민들의 참여와 발의를 주되게 삼게 되는 지방정부의 인식변화, 대상들을 개별적으로 포착하여 계획하던 방식에서 이제는 대상들 사이의 관계와 맥락을 함께 생각하고 계획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는 점, 이 두 지점에서 김찬호 박사님은 커뮤니티 디자인 개념을 성립시켜 내고 있다. 이러한 개념아래 커뮤니티 디자인 즉, 마을만들기를 사회적 디자인 (social design), 또는 시민적 디자인 (civic design)이라는 맥락에서 설명하고 그것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향을 풀어냈다.

이어 6월 5일 진행된 둘째 마당 <우리나라의 마을만들기 활동>에서는 다양한 참여주체와 다양한 테마들을 중심으로 우리의 생활공간인 아파트 지역, 주택가 지역, 상가 지역, 그리고 넓게는 국외에서 진행된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정석 박사는 이러한 사례들이 보다 폭넓은 참여로 이어지지 못하거나 꾸준하게 지속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기는 하지만 이에 대한 엄밀한 시선보다 저마다의 다양성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보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익명성이 보장되기에 개인이 무엇을 하건 자유가 보장되는 편리한 도시공간에서 마을만들기와 같은 활동은 부담되고 귀찮아하는 것이 현실인데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마을만들기 활동에 대해 날카로운 잣대를 들이댄다면 그나마 살아나는 불씨가 타오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강의실에서 이루어진 첫째마당과 둘째마당이 진행된 후 이어진 셋째, 넷째마당에서는 마을만들기가 이루어진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6월 15일은 대구 삼덕동의 담장허물기 현장을, 6월 22일은 서울 사당3동의 양지공원 조성현장과 동두천시 봉암리의 마을만들기 현장을 각각 찾았다.

대구 삼덕동 지역은 1998년 담장 허물기로부터 시작하여 꾸러기 그림대회, 골목공원과 마을미술관 조성 등의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곳이다. 이웃과의 교류를 열어가는 장을 제공한 담장 허물기는 대구시 전역으로 퍼져 각 구청, 경북대학교 병원, 학교, 공원을 둘러싸고 있던 담까지도 무너뜨리게 했다. 현재 대구 삼덕동은 사라질 위기에 놓인 한옥 한 채를 보수하여

반갑습니다. 도시연대 <주민참여 아을학교>입니다.

마을 국악원으로 활용할 계획을 하고 실현에 옮기고 있다. 또한 대구 YMCA 녹색가게와 가출 청소년 쉼터, 대구 녹색소비자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힘을 모아 삼덕동 마을만들기를 위해 애쓰고 있다. 대구를 찾은 참가들은 1998년부터 시작된 대구 삼덕동 지역의 마을만들기의 시작과 현재를 그대로 확인할 수 있었다.

대구 삼덕동에 이어 진행된 두번째 마을만들기 현장 탐방은 6월 22일에 진행되었다. 서울 사당동 양지공원은 전문가나 행정 공무원들만 참여하던 공간계획과정 자체를 변화시킨 사례이다. 애초 공터로 남아 있던 곳을 관할 구청에서 주차장으로 이용할 계획을 갖고 이를 실행에 옮기려하자 주민들이 안전성과 쾌적성을 내세워 이를 반대하자 공원을 조성하기로 계획을 전환하면서 시작된다. 사당동 양지공원이 주목을 받은 이유는 조성과정에 있어 처음부터 끝까지 사당 3동의 주민들이 함께 했었기 때문이다. 전문가가 계획했던 안을 주민들의 시각에서 판단하고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맞게 수정했으며 동네 아이들의 그림과 손도장으로 공원을 아기자기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순탄치 만은 않았다. 공원조성 자체를 반대하는 주민과 계획안에 대해 다른 의견을 제시한 주민과의 갈등을 풀어냈던 일, 처음에는 많은 이가 관심을 갖다가 차츰 시들해져 갔던 주민들, 그리고 관리에 대한 알찬 계획을 세워 놓고도 제대로 지켜 내지 못한 오류도 있었다. 사당동의 양지공원 탐방은 주민참여로 진행된 공원 계획의 엄청난 성과와 그 이면에 남아있는 주민참여에 대한 어려운 숙제를 확인하는 자리였다.

이어 사당동을 떠나 발길을 돌린 곳은 동두천 봉암리였다. 봉암리는 6·25당시 피난온 사람들을 중심으로 꾸려진 마을이다. 이 중 조용순이라는 분이 있는데 어린이에 대한 관심이 무척 높았다. 비록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는 어렵지만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만은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고 싶었다 한다. 이에 조용순씨 집에 있는 책들을 모아 문고를 만들고 인근의 나무들과 페타이어를 모아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터를 만들기 시작했다. 이렇게 시작한 어린이들을 위한 활동을 바탕으로 지금은 군의 지원을 받아 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되었고 뜻을 같이 했던 주민들도 마을금고를 운영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봉암리야 말로 우리가 얘기하는 마을만들기를 아주 자연스러운 일상생활로 풀어가고 있는 곳이었다.

마을만들기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을 직접 찾아 눈으로 확인하고 참여주민을 만나 보면서 우리는 마을만들기가 결코 어렵고 새로운 일이 아님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다.

다섯째 마당을 끝내고

그동안 마을만들기에 대한 개념을 알아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마을만들기의 실제 상황을 둘러보며 간접체험한 것을 바탕으로 마지막 시간인 6월 25일 다섯째 마당에서는 참가자

자신이 마을만들기의 주체가 되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여기에는 지역의 주민과 활동가를 대상으로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교육, 훈련하고 있는 한국주민운동정보교육원의 최종덕 팀장님이 함께 했다. 이날은 마을만들기를 기획하는 데 있어 어떤 프로그램을 기획하느냐 보다 누구와 어떻게 함께 하느냐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다. 또한 강의 후에는 참가자가 직접 주어진 워크시트에 자신의 상상력을 마음껏 펼쳐 보는 시간을 가졌다.

주민참여 마을학교를 진행하면서 참가자들은 나름의 의문도 가져보고 자신과 자신의 마을 상황에 빚대어 많은 생각을 했을 것이다. 준비하고 진행을 한 도시연대 역시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참여한 분들에게 또 어떤 마을만들기 활동을 보여 줄 것인가에 대해 생각하곤 한다. 지난 5월에서 6월에 걸쳐 진행된 한 달동안의 과정을 마무리하고 서로의 일상으로 돌아간 이들을 생각해 본다. 그리고 그 일상에서 각자가 품은 마을만들기에 대한 숙제를 풀어가는 모습, 그 숙제들을 확인하고 공유하는 자리가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주민참여 마을학교에 참가한 사람들

| | | |
|-----|-------------|---------------------------------------|
| 권태순 | 신목종합사회복지관 | 서울시 양천구 신정2동 1278-1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 |
| 김성주 | 대학원생 | 서울시 마포구 창전동 금호아파트 701호 |
| 김영관 | 하남시청 | 경기도 하남시 신장2동 520번지 하남시청 |
| 김오열 | 서울YMCA간사 | 서울시 종로구 |
| 김정기 | 하남시청 | 경기도 하남시 신장2동 520번지 하남시청 |
| 김창배 | 하남시청 | 경기도 하남시 신장2동 520번지 하남시청 도시공원과 |
| 김태현 | 문화연대 간사 | 서울시 종로구 화동 138-8 문화연대 |
| 김혜민 | 서울대 환경계획연구소 |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산56-1 서울대 환경계획연구소 |
| 나혜진 | 경기개발연구원 | 경기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179-2 경기개발연구원 |
| 남명현 | 하남시청 | 경기도 하남시 신장2동 520번지 하남시청 |
| 박옥중 | 신목종합사회복지관 | 서울시 양천구 신정2동 1278-1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 |
| 박용범 | 하남시청 | 경기도 하남시 신장2동 520번지 하남시청 시정개선키획단 |
| 박우량 | 하남시청 | 경기도 하남시 신장2동 520번지 하남시청 |
| 박홍섭 | 마포두레생협 | 서울시 마포구 성산1동 572-174 마포 두레 생활협동조합 |
| 변성환 | 도시연대 회원 | 서울시 중구 예장동 산 4-5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 서정찬 | 도시연대 회원 | 전남 무안군 현경면 해운 932 |
| 손지훈 | 도시연대 회원 | 휴학중 |
| 안동규 | 하남시청 | 경기도 하남시 신장2동 520번지 하남시청 |
| 양난영 | (주)안그라픽스 | 서울시 성북구 성북2동 260-88 (주) 안그라픽스 |
| 위대현 | 하남시청 | 경기도 하남시 신장2동 520번지 하남시청 |
| 유준상 | (주)우대칼스 | 서울 서초구 양재동 275-6 삼호물산빌딩 B동 701(주)우대칼스 |
| 이광주 | 일반시민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역곡3동 163-4 초원아파트 201호 |
| 이수경 | 하남시청 | 경기도 하남시 신장2동 520번지 하남시청 |
| 이신숙 | 푸른학교 교장 |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 5가 112 (28/7) |
| 이현민 | 서울대 환경계획연구소 |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산56-1 서울대 환경계획연구소 |
| 장옥연 | 도시연대 회원 | 서울시 중구 예장동 산 4-5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 전병창 | (주)우대칼스 | 서울 서초구 양재동 275-6 삼호물산빌딩 B동 701(주)우대칼스 |
| 전진호 | 하남시청 | 경기도 하남시 신장2동 520번지 하남시청 |
| 정상원 | 하남시청 | 경기도 하남시 신장2동 520번지 하남시청 |
| 정석구 | 구리YMCA |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479-3 |
| 정재희 | 서울시 도시계획과 | 서울시 중구 태평로 1가 31 서울시 도시계획과 |
| 조봉연 | 서울시 도시계획과 | 서울시 중구 태평로 1가 31 서울시 도시계획과 |
| 최미영 | 직장인 |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주공아파트 347-1201 |
| 최은영 | 대학원생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교정아파트 403호 |
| 최자령 | 경기개발연구원 | 경기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179-2 경기개발연구원 환경연구부 |
| 최준호 | 은평구의원 |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84 서울시 은평구의회 |

도시연대

견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민연대

서울시 마포구 창전동 2-28(2층)

전화: 02-332-6044 전송 : 02-332-6010

<http://www.dosi.or.kr>